

청양 포박이들의 사랑애사

임장혁 · 정형호 · 조순자 공저



靑陽文化院

청양 토박이들의 생애사

임장혁 · 정형호 · 조순자 공저



靑陽文化院

■ 발 간 사 ■

청양문화원장 이진우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들으며 성장해왔으며 오늘날의 평안한 하루하루가 그들의 은혜라 여기며 지내곤 합니다. 그렇게 지난 날 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추억이나 경험을 전하는 세대가 될 것 입니다. 청양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토박이에게 살아온 이야기는 미래에 청양의 생활사가 되었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양 군민의 생활담은 개인만의 삶이 아니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청양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사회인으로 활동하며 이제는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책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양은 농업지대이기에 군민 대부분이 토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습니다. 한편 여성은 주부로 가사와 농경생활을 해왔으며, 남성의 일부는 근대화와 더불어 교육자, 공무원, 직장인 등 공공기관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노년기를 맞이해 고향을 지키며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박이가 생을 마감하면 지역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온 이야기는 지역역사의 일부분이기에 향토사학자는 이들의 생애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군내 토박이들의 생애사 조사에 참여해주신 중앙대학교 교수 임장혁박사, 정형호박사, 조순자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기꺼이 내주시어 조사에 협력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서 문 ■

민속학에서 생애사연구의 학술적 가치

중앙대학교 교수 **임 장 혁**

한국 민속학이 시작된 지 벌써 100여년이 되었다. 우리 민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농경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을 통한 생업활동과 휴일이라 할 수 있는 명절의 관습으로 의례 · 놀이 · 신앙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의 민속학의 관심은 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지역민속을 이해하며 나아가 우리민족의 생활관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근년에 들어 민속학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연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기존의 단체 연구의 한계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마을단위의 조사로 집단의 활동이 지역성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이와 무관

하게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무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민속학자는 개인의 구술을 통해 생애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구술사(oral history) 또는 생활사(life history)라고도 한다.

생활사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개인의 증언을 통해 문자로 기록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리지나 고문헌자료를 통해 청양지역의 민중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로한 분이 살아온 자신의 생활사의 증언이 당시 그 지역의 민중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역사에 묻힐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당시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둘째로, 지역공동체의 의례나 놀이, 행사 등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표면적으로 행동의 통일

민속학에서 생활사연구의 학술적 가치

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사는 구성원의 내면에 있어 각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어 민속의 재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 백 명이 놀이에 참여하는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 간에 협동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체구성원의 개별 역할이나 의도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위상이나 성별 또는 세대에 따라 달리하며 마음의 의지도 다르기 마련이다.

한 개인의 생활사연구는 민속을 보다 심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 결혼관이나 자녀관, 인생관, 직업관 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인생의 직·간접에 의한 경험과 보모나 선종의 영향을 받으며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애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진솔한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 생활사 조사는 청양군내 토박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의미를 부여코자 하였다. 이들이 청양에서 태어나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왔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농민이나 교사 · 공무원 · 주부로서 살아오며 생애사에서 특정 경험을 계기로 어떻게 인생관이나 직업관 · 자녀교육관 등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에 관점을 두었다. 이번 조사에 응해준 분들은 1940년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기에 청양이 근대화하는 과정을 체험하였기에 소중한 기억이다. 이들의 생활사는 단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당시 청양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생활사조사는 청양의 근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조사지역 및 조사 참여자



조사자

임 장 혁 / 중앙대학교 교수
 정 형 호 / 중앙대학교 교수
 조 순 자 / 중앙대학교 교수

조사 참여자 및 지역

북 진 서(대치면) 박 용 국(목면)
 우 중 실(청남면) 주 기 예(청남면)
 전 예 근(청남면) 정 용 옥(청남면)
 임 동 일(화성면) 임 영 순(운곡면)
 정 영 옥(청남면) 정 철 호(청양읍)
 이 종 금(청양읍)

청양 로박이들의 생애사

■ 발간사 ■

■ 서 문 ■

민속학에서 생애사연구의 학술적 가치

목 차

- 곧은 나무가 고향을 지킨다 / 임장혁 013
- 민속학에서 본 복진서의 생애사적 의미
- 청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대를 이어 상쇠로 살아온 삶 / 정형호 035
- 민속학에서 본 박용국의 상쇠와 농부로서의 삶
- 태평마을에서 발굴한 현대판 ‘만파식적’ / 조순자 085
- 민속학에서 본 우종실의 생애사적 의미
- “말 허면 뭇 혀, 밤낮 울어서 반평생을 살아씨유” / 조순자 ... 107
- “딸은 사람도 아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혀” / 조순자 129
- “옛날노래? 시방은 여간해서 있지를 안 해요” / 조순자 153
- 민속학에서 본 주기에, 전예근, 정용옥의 생애사적 의미
- 고택을 지키고 문중을 생각하며 / 임장혁 187
- 민속학에서 본 임동일의 생애사적 의미
- 대를 이어 구기주를 담아 온 고부의 삶 / 정형호 205
- 민속학에서 본 대를 이어 구기주를 빚은 임영순과 최정아의 삶
- 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 임장혁 247
- 영상자료의 민속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 대를 이어 가업인 한약방을 운영하며 약재와 함께
살아온 삶 / 정형호 253
- 민속학에서 본 한약방을 지켜온 이종금의 삶

곶은 나무가 고향을 지킨다

1. 면천 복씨, 청양에 입향하여 동족마을 이루다

예로부터 ‘곶은 나무가 고향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곶은 나무는 도회지의 집을 짓는데 베어져 팔려가고 곶은 나무는 건축재로 쓰기에 부적합하기에 베어지는 일 없이 산에 남게 된다’는 의미이다. 눈치가 빠르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기에 고향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이들은 곶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향은 단순히 남겨진 곳이 아니고 조상과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자취가 남아 있기에 그 터전은 쉽게 저버릴 수가 없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특히 장남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스스로가 곶고 곶은 의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기에 고향은 지켜지고 유지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난 터에서 평생을 보내고 지켜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답답하거나 무뎌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태어난 집에서 평생 주소가 바뀌지 않고 일생을 대치면 탄정리 터전에서 보낸 토박이가 있다. 도암 복진서(卜鎭

瑞)는 대치면 탄정리에서 태어나 아직도 집터를 지키고 있다. 면천 복씨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卜智謙)이며 당진 면천면에 시조묘가 있다. 면천 복씨 22세 복세온(卜世溫)의 후손들이 청양 대치면에 세거하였다고 하며 이들을 ‘청양파’라고도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25세 복상길(卜祥吉)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3형제가 의병대장 조중봉(趙重峯)의 진영에 참여하였다. 이때 조중봉이 ‘형제가 모두 진중(陣中)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만형인 복상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홍성 금마면 송암리 고향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위태로운데 집이 무슨 상관이나"며 호통을 쳐 다시 금산전투로 향하던중 병이 나서 청양군 주정리에 정착했고 아우 응길(應吉)은 금산 전투에서 사망하여 금산 칠백의총에 안면하시고 주정리와 탄정리에는 면천 복씨가 동족마을을 이루며 400년간 살아왔다. 복상길의 후손은 ‘대치파’와 ‘수은공파’와 후곡파와 초촌파로 나뉘어 존속되고 있다. 복진서는 면천 복씨 대치파의 종손으로 탄정리에서 조상의 터전이며 부모로부터 집터를 계승해 지켜나가고 있다. 그는 탄정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며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복진서의 부친은 탄정리에 태어나 3형제 중에 막내이며 누님

도 3분이 계셨다. 부친의 집안은 유복하여 동네에서 ‘복부자’라 불리기도 했다. 부친의 큰형은 한때 광천 오서산에서 광산사업과 광천 독배에서 염전 조성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집안이 기울게 되었다. 둘째형은 대구사범학교를 다녔고 조혼을 하였지만, 유복자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다. 복진서의 부친은 어릴 적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가 결혼할 당시까지도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였다. 그는 가세가 기울었을 때에도 농사를 거의 지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에게 삶에 있어 경제력은 그다지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던 듯하다. 동네분들은 그의 별명으로 남들에게 덕을 베풀던 성현 ‘공자(孔子)’로 불렀고 아들 진서를 ‘맹자(孟子)’라 불렀다.

2. 도암 복진서 탄정리에서 출생하여 보낸 유년기

복진서는 두 분의 누님과 여동생이 있어 4남매 중에 셋째이며 외아들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기는 백부께서 광산업을 하다가 대치면 최고의 부자였던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넉넉하지는 않으나 그다지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5살 무렵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전쟁 피

난으로 누나와 함께 피난을 외갓집으로 떠났다. 그는 외갓집이 대치면 상갑리이기에 둘이서 20리길을 걸어갔다. 그는 누나와 외갓집 가는 길에 비가 내려 아주까리 잎을 우산삼아 비를 가리고 가던 일을 기억한다. 외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하고 복숭아를 따주셨고 설탕물도 타 주셨다. 그 당시에도 설탕은 귀한 식품이었다. 할머니는 “여기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하여 하루를 자고 누나와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집에는 보급대 모집병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아 그는 벼를 밭에서 자기도 했다. 한번은 누나와 고동을 잡으러 대치천의 냇가에 갔다가 탄정교가 폭격을 맞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그때 놀라서 고생했던 그 당시의 장면이 생생하다고 한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은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으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항시 생각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부친은 농사일에 일절 거들지는 않았고 한겨울의 땀감도 준비가 없었기에 그의 집은 장작을 사서 매년 겨울을 지내야 했다. 그는 셋째 아들로 부유하게 자라서 가사 일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거의 모든 가사경제를 부담하셨다. 그의 아버님은 금수저 도련님으로 자란 환경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다. 가게가 점차 기울어지자 경작하던 농지를 팔 수 밖에 없었

다. 이러한 환경은 그에게 어서 성장해 사회인으로 진출해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하도록 하였다

3. 독선생으로부터 한문을 배운 게 큰 자산이 되다

그의 부친은 경제적 관념은 그다지 없었으나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여 옛 가난한 선비를 연상시킨다. 부여에서 잠시 사진사를 하여 관광객에게 사진을 찍고 수입을 올린 적은 있으나 그것도 오래 하지는 않았다. 복진서는 청양중학교 입학하고 일학년이 되고나서 어머니의 권유로 뒷집에 기거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독 선생에게서 한문을 배웠다. 그 선생은 ‘양애기’라 불리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을 왜 ‘양애기’로 불리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전북 전주 분으로 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가끔 전주를 다녀오곤 했다. 그는 홀로 대치면 탄정리에서 기거하며 아이들에게 한문·주산·영어를 가르쳤다. 당시에 그 선생에게 배운 아이들은 5명 정도 있었다. 선생은 기거하는 동안 주인에게 방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숙식 및 매일 학생 부모로부터 술상을 제공 받았다. 어머니는 수업료 대신에 쌀을 집주인에게 주었다. 지금 회상해보면 그 선생님의 영어와 주산 실력

은 그다지 지식을 갖추지 않은 듯 하지만, 한문은 썩 괜찮았다. 그에게 학습이 된 것은 한문이었다. 교재는 당시에 알려진 백낙준의 『신천자문』이었다.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한글 사용은 크게 늘었으나 한자 사용은 여전히 줄지 않았으며, 1945년 8·15 이후에는 한자폐지론과 한글전용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마침내 문교부(지금 교육부)는 57년 10월에 1300자를 상용한자로 선정하였다. 『신천자문』은 문교부의 상용한자를 토대로 지어진 천자문책이었다. 양애기 선생님으로부터 천자문을 학습하고 나서 한문에 대한 관심과 의욕은 자산이 되었고 공무원생활과 현재 면암서화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그의 부모님이 농지를 거의 팔게 되면서 어머니는 가계를 책임지기위해 장사를 하였다. 특히 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이익을 보게 되었다. 당시 부모님은 중국인과 동업관계였던 ‘손’씨를 양자로 삼았다. 손 씨의 아버지는 예산군 합덕에서 솜 판매 도매상을 하였다. 그의 양자인 손 씨가 청양에서 장사를 하게 어머니와는 반씩 지분을 갖고 청양에서 솜을 팔았다. 목화에 서 씨를 빼낸 솜은 이불솜과 옷 솜으로 활용되었다. 솜은 보온성이 뛰어나 누비옷을 만들어 입고 이불을 덮고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소재였다. 또한 방석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였다. 인조 솜이 아직 없었던 시대에 목화솜은 생활에 꼭 필요한 소재로 반

드시 누구나 필요하였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솜 장사가 비교적 잘 되어 전에 팔았던 농지를 다시 사들이기도 했다. 손 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있었으며 그와는 의형제관계로 원만히 지내었다. 하지만 손 씨는 놀음을 좋아하는 바람에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남긴 채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 되었다. 그로 인해 어머니도 솜 장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복진서는 군내에 유일한 청양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당시에는 대도시의 공업고등학교와 상업학교가 인기가 있었으며 농업학교에 들어와 전학을 가는 학생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농업고등학교에 만족하였다. 그의 고모부가 토마토 온실재배를 권유하여 시험재배도 하였으며 학창시절을 마감하였다.



사진 1. 중학생시절 우정을 나눈 친구와 함께

4. 성인이 되어 공직자로 출발하면서

복진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의 뜻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모았던 돈을 옛 농지를 다시 사들이는데 쓰게 되어 대학생이 되려는 꿈을 접었다. 한때 서울에 취직하기 위해 서울에서 몇 달 생활을 했다. 그러나 서울생활은 그리 마음대로 풀지는 않았다. 두 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결국 귀향하기로 결심하였다. 서울에서의 몇 달 간의 생활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의 생활이었고 도시의 삭막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첫 시험에 1차 합격하였고 면접에서 공화당 시절 민주당으로 복진풍 친척 형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였기에 2차 면접에서 탈락 하였고 이듬해 두 번째 시험에 여당인 공화당에 입당하고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는 합격을 했지만 발령이 날 때까지 삼년가까이 기다려야만 했다.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 면사무소에서 호적 정리 사업에 관한 아르바이트 요청이 들어왔다.

호적제도는 대한제국기에 갑오경장(甲午更張)에 따라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통감부가 우리나라에 설치되

면서 호적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겪게 되었다. 호적은 거의 전적으로, 가(家)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증문서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당시 호적대장은 일본의 문서로 작성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제헌 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조선허적령」과 그 부속법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호적관련문서는 일본의 호적대장이 유지되었다. 마침내 1958년 「민법」의 제정(1960.1.1 시행)과 함께 「호적법」(1960.1.1 법률 535)과 그 부속법령이 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다. 마침내 새로운 제도에 의한 호적정리 사업이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호적문서를 우리의 형식으로 작성하기 위해 기존에 관리되던 일본식 호적대장을 우리의 등록대장에 맞게 정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간단한 일본어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일제 강점기의 호적대장을 우리의 형식으로 옮겨야 했다.

복진서는 간단한 일본어를 알았고 한문을 학습한 바가 있기에 호적정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록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이었지만 능히 수행하였다. 그가 일개 면의 호적정리를 맡아 잘 처리하였고 이를 알게 된 다른 면에서도 그에게 일을 맡기고자 요청이 들어왔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입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고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공무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첫 근무지인 장평면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5.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복진서의 부인은 경주김씨 집안으로 고향은 광천이다. 처갓집은 ‘광천 9형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당시 그의 뒷집에는 집안 형수가 광천에서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형수의 오빠가 누이동생 집에 왔다가 앞집의 혼기가 찬 신랑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중매를 서주었다. 상견례는 다방에서 양가의 부모가 만나게 되었다. 복진서의 어머니와 청양읍에 살던 큰 누님이 신부 측은 어머니와 여덟째 작은아버지가 오셨다. 양가가 좋은 인상을 갖고 만났는지 혼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복진서는 신부 집에 11월에 처음 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약혼반지를 갖고 가서 처음 본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얼마안가 장인에게서 장인의 큰 형님 댁에 결혼식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처가 집에 도착하니 장인과 집안 사람들은 다음날 혼례준비로 큰댁으로 갔다. 집에는 그와 신부만이 남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의 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 그는 혼례를 처갓집 마당에서 올리었다.

결혼식에는 중학교 교사였던 사촌형님과 고향친구와 고교동창 등 여러 명이 동행하였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예단으로 치마저고리와 패물을 넣은 함을 친구가 매고 갔다. 혼례를 올리고 3일후 신부와 함께 청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처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 그는 2남 1녀를 두었고 자녀들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사진 2. 처가에서 혼례 후 친구와 함께



사진 3. 가족을 이루고 어머니와 함께

6. 첫 해외나들이에서 느낀 한민족

복진서는 공직 생활 중이던 1991년 8월11일부터 10일간 해외 첫나들이로 소련 사할린에 가게 되었다. 당시는 노태우대통령의 북방외교에 진전으로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남북교류의 장으로 사할린에서 행사가 8월15일에 열리었다. 재소 한인교포단체인 유즈노 사할린 고려인협회의 초청으로 남북교류와 통일기원을 위한 <’91 남북통일 전통미용 풍속제>는 한국미용문화협회가

한국의 행사를 주관하였고 미용인·한복연구가·국악인·민속학자 등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대한항공 전세 비행기를 4시간여를 타고 사할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60여명이 참가하였다. 그는 셋째 동서가 한국미용문화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행사에 참가하기를 권유하였고 동서 4명이 참여하였다. 참가비는 3백 만원 정도였으며 4동서가 자비로 부담하였다. 북한에는 세시의 옷차림과 씨름, 그네타기, 널뛰기 등을 보여주었다. 남한에서는 민요가수들과 함께 전통혼례를 시연하였다. 그는 혼례에서 신랑의 아버지 역을 맡게 되었다. 사할린 교포는 8월15일을 최고의 명절로 여긴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간 북한사람과도 교제하면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친해질 때 즈음 아쉬움에 헤어졌다. 마지막 날엔 사할린 시장이 주관하는 아리랑식당에서 만찬도 있었다. 사할린교포는 대부분 남한사람들이었고,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다. 매일 여러 집에서 초청을 했고, 고국의 실정과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교포 집에서 3일간 동서들과 함께 보냈다.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나와 환송을 해주어 고맙기까지 했다. 지금도 첫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우리민족 북한과 사할린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게 했던 소중한 추억으로 맘속에 자리 잡고 있다.



****'91. 사할린 남북통일 전통미용풍속제 1991. 8. 17****

사진 4. 해외 첫나들이로 사할린 남북통일 전통미용풍속제 참가



사진 5. 사할린을 떠나며 동포들과 함께

7. 공직자로서 보람된 일

복진서는 1995년 5월에 목면장으로 사무관 발령을 받고 취임하였다. 그리고 1996년 7월 5일 정산면장에 두 번째로 자리를 옮겼다. 정산은 고려시대에는 정산현이었으나 조선시대 1664년에 청양현에 합병되었다가 1895년에 청양군과 정산군으로 분리되었고 1914년 청양군 정산면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정산현감을 지낸 대표적 인물로 송담 송남수(松潭 宋柟壽)선생이 1586년에 부임하셨고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1548~1631)선생이 1591년부터 5년간 현감을 지내셨다.

복진서는 유서가 깊은 고을에 면장으로 부임하여 와보니 면사무소 내에 ‘백연지’라는 연못이 있으나 안내문도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사계 김장생선생이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송남수선생이 만들고 연꽃을 심은 것으로 정정하여 은진 송씨 문중의 도움을 받아 돌로 안내문으로 교체하였다. 만향정은 본래 송남수선생이 1587년에 정자를 짓고 현판을 걸었던 정자이다. 면장으로 부임하여 와보니 정산면사무소는 좁고 초라하여 정사환경을 새롭게 정비위해 나섰다. 그는 군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유 농지를 매입하고 연못에 정자를 짓기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정자인 만향정과 자

오교를 복원하였다. 당시 그는 백곡리 이장인 전통가옥 건축가 박충길씨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거의 자재비와 인건비만으로 건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흔쾌히 응하여 건립을 하게 되었다.

송남수는 절친이던 이호민(1553~1634)이 만향정의 준공에 초청하였고 그는 정산8경시를 남겼다. 이호민은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교서를 잘 지었고, 시에도 뛰어나 전란의 비애를 형상화한 시들을 지었는데, 특히 그의 〈용만행재문하삼도병진공한성(龍灣行在聞下三道兵進攻漢城)〉은 의주로 피난한 왕을 수행하면서 지은 바 있는데 이는 문학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호민은 망향정8경의 시중에 망향정의 6번째 기둥에 다음과 같은 시귀를 남겼다.

정자 동쪽에 큰 들판이 있는데 누런 보리 풍년이구나
원님은 거문고와 노래를 즐기지만 이 풍년은 누구의 힘이런가

궁궐에 가면 연못이 있고 절에도 연못이 있기 마련이다. 경복궁의 서편에 경희루가 있고 연못이 있는데 연꽃이 있으며 궁중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여 용신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절에도 연못은 약사여래가 있고 용과 관련된 조형물이 있다. 연못은 수계(水界)를 나타내며 국민이나 불교신자나 민민이나 모

두 농민이기에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에게 적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조성되었다. 위 시에 나타나있듯이 풍년을 맞이하고 이는 수신에 의한 영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복진서의 망향정 복원사업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후세에게도 전하고자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면민에게 정신적 유산을 전하고자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는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로 망향정을 손꼽고 있다. 정산면사무소의 망향정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길이 후세가 잘 보존하면 송남수가 농민인 주민의 맘을 이해하고 건립한 정신은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8. 퇴직 후 노년기를 맞이하며

복진서는 칠순을 지나고 공직을 떠난 지도 12년이 지났다. 중학교 때 배운 신천자문을 시작으로 서예에 관심을 갖고 습작한 지도 13년이 되었다. 그는 2006년 충청서도협회 주최 서예전에서 입선을 하였고 2008년 대한민국서도대전에서 입선을 하는 등 20여 차례 서화전에 수상하였으며, 이제는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면암서화협회를 설립하여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 선생의 호를 따서 ‘대한민국 면암서화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벌써 7회를 마쳤다. 면암은 14세에 화서 이항로(李恒老)선생에게 사사하였고 대원군이 현금 3만량과 쌀 3섬을 하사하였으나 반납하고 의병총수로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면암은 충과 효를 실천한 의인이시다. 서화협회는 면암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했던 공모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는 중국과 서화가들과 교류하며 한중의 민간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있다.

복진서는 고향의 초중고동창들과 정기적인 모임으로 우정을 나누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며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서화를 지도하고 서화의 명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자산이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

[민속학에서 본 복진서의 생애사적 의미]

‘터’는 공간의 의미로 집터, 장터, 묘터 등의 일정공간을 터라고 한다. 특히 집터에는 터주신이 있어 집터를 지켜주는 지신(地神)이 모셔져있다. 터주는 ‘터주단지’ 또는 ‘터주까지’라 불리는 향아리에 쌀을 넣고 묻고 위에 짚으로 쌓아 눈비를 가린다. 지방에 따라서는 쌀과 콩, 팥 등 오곡을 넣기도 한다. 터주단지에 햇곡식을 넣을 때에는 가장먼저 텃 벼를 넣고 묵은 벼는 꺼내어 제수를 장만한다. 터주는 집안의 무사, 무병, 풍년을 기원하는 대상이 된다. 터주신은 지신이며 조상신으로 모셔왔다.

복진서는 고회를 맞아 전시회를 개최하며 도록 『도암 복진서 서수전(島巖 卜鎮瑞 書壽展)』의 인사말에서 “서울이나 대도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태어난 곳에서 한번도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70년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청양에서만 살았으니 완전 토종 청양산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청양 탄정리는 단순히 태어난 곳만이 아니며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집터는 옹기에 지켜가고 계승해야 할 유산이었다. 그는 고향인 청양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장남이고 외아들이기에 터를 지키고 복

씨 일가의 터전을 중압감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던 듯하다. 더욱이 유교의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충과 효를 중시하는 면천 복씨 가문의 장자로 어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복진서의 부친은 가계의 경제적 기여나 관심은 적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옛 가난한 선비를 연상시킨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듯이 성리학을 중시하고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에 물질적 풍요나 빈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친도 역시 인간의 삶에 물질보다는 정신세계를 실천하며 자녀교육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복진서가 공직자로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정산 면사무소에 망향정을 복원하고 정산에 충효탑을 건립한 것도 면천 복씨의 가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실천하여 얻어진 보람이라 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시절에 신천자를 학습하였고 공직자로 입문하여 서화로 노년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공직자로 입문할 당시에 대대적인 호적정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한문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퇴직할 무렵부터 시작한 서예와 한국화의 학습도 한문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평생의 공직생활이나 취미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복진서의 생애사는 유교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치면 탄정리는 그의 단순한 고향이 아니며 가문과 가풍을 지켜왔고 계승해야 할 터전이었다. 그러기에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터를 지키고 있다. 아직도 그가 이사장으로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사)면암서화협회는 일찍이 어머니의 권유로 배웠던 한자 학습과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서화의 국내외보급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대를 이어 상쇠로 살아온 삶

1. 2대에 걸쳐 농악의 상쇠를 한 박용국의 유년 시절과 가족

박용국(남, 1949년생, 69세, 박남 박씨, 청양군 목면 안심1리 마근동)은 2대에 걸쳐 목면에서 상쇠를 하며 농악을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40년간 운전을 했으며, 산을 좋아해 한때 칠갑산에서 약초도 캐다. 따라서 그는 평생 청양에 살면서 지역 사회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인물이다.



사진 1. 박용국의 최근 모습

그의 집안은 고조부로부터 4대에 걸쳐 이곳 목면에 살았으며, 부친은 박승운으로 청양에서 상쇠로 유명한 분이다. 부친은 쇠를 주로 쳤지만, 새납도 잘 불었다.

“쇠는 어른신네가 팔십이 거의 될 때까지 청양군 상쇠로 있었시유, 박승유씨라고, 고향은 요 너머 건지동이고. 목면 안심리 건지동. 옛날 군수님들 뭐 있으면 대전으로 대회에 나가고, 그때 내가 차가 있어 모시고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되고 되었슈.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신네는 새납도 불고 그러셨어유. 호적도 부시고 했는데, 돌아가셨슈. 지금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부친은 두레 작업에서 소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신명이 많았다. 그리고 상여소리를 잘 했다. 그래서 상여 나갈 때에 요령을 앞에서 이끌었다. 박용국이 기억하기로 부친은 법 없이도 살아갈 온화한 성품으로, 이로 인해 남의 보증을 잘못 서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다

부친은 현재 박용국이 살고 있는 안심리 마근동의 바로 옆 동네인 안심리 건지동에 살았다. 박용국도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결혼 후에 분가해서 마근동에 정착했다. 박용국은 5남매로 아들 둘에, 딸이 셋이었으며, 본인은 둘째 아들이고, 현재 14살 위의 형님이 이웃 건지동에 살고 있다.



사진 2. 부모님의 회갑 사진(1970.10.14.)

가운데 앞줄이 부모님. 둘째줄 흰색 상의가 둘째아들 박용국

부친의 외가는 건너편 목면 본의리로 6.25 때에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 부친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상쇠로 사셨다. 원래 고조부께서 노량진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따라서 박용국은 청양 목면 지역에 4대에 걸쳐 살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그의 고향인 건너편 건지동에는 박남 박씨가 10여가구 정도 살고 있다. 부친께서 운수회사인 금남여객의 임원이었던 집안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

부친은 공주의 백제문화제 행사, 3.1절 만세운동 기념식 행사

에도 참여했다. 이 행사 때에 부친은 주로 상쇠를 맡았다. 박용국 본인도 예전에 공주의 15개 농악이 3.1운동 기념 행사 때에 공우회 이름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노인들을 15일간 연습시켜 참여한 적이 있다.

그의 집안은 부친 시절부터 농사를 지었다. 부친은 예전에 참외와 수박 농사를 주로 지었다. 수확한 과일은 주로 공수원 시장, 목면시장, 정산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곳에서 정산은 5.5km, 지곡리는 4km 정도이다. 부친은 콩도 많이 심었는데, 보리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땅에 콩을 심었다. 아직도 목면 안의 리 인근에는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편이다. 구기자는 별로 심지 않았으며, 인근 지곡리에서는 구기자를 많이 심었다. 그리고 고추는 먹을 만큼만 심었지만, 지금은 많이 심는 편이다. 부친 시절에는 담배농사도 많이 했는데, 건초를 말려서 정산의 수매장으로 넘겼으나, 본인은 직접 담배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

2. 안심리의 두레농악과 마을제의

목면 안심 1리는 마근동, 건지동, 시장(현 면 소재지)의 3동네로 이루어져 있다. 안심 2리는 학교 있는 쪽과 막동거리 쪽이

안심 2구이다. 목면에서는 안심 2구가 가장 컸다.

옛날에는 면 소재지와 파출소가 지곡리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줍망고개, 곧 좋은망고개를 중심으로 정산면하고 경계에 있다. 원래 그쪽 지곡리에 면소재지와 파출소가 있었으며, 이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예전부터 안심리와 지곡리가 서로 경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곳 안심리가 중심지라 해서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이 옮겨 오게 되었다.

현재 이곳 장터가 있는 곳에 중앙으로 2차선 도로가 뚫려 대천해수욕장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나가면서 차가 많이 다닌다. 따라서 안심리가 목면의 중앙이 되었다. 이곳은 공주와의 경계로서 생활권은 주로 공주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유구장을 주로 봤으며, 신평장과 공성장도 갔다.

안심리에는 큰 두레와 함께 두레농악도 있었다. 두레작업은 주로 김매기할 때에 했는데, 대개 아시메기, 두물메기, 만물메기의 3번을 댔다. 아시메기와 두물메기는 호미를 사용하며 두레농악을 했고, 만물메기는 손으로 했다.

“여기는 두레가 컸지유. 여기는 안심리, 본의리, 저기 공주시 어천리 경계예유. 목면하고 공주시하고 경계예유. 옛날 두레를 먹으면 여기가 제일 컸어유. 요 건너 동네에 본의리라는 동네가 있어유. 그 동네 사람이 오고, 저 아래 영기 세우고 두레 농악 치고, 두

레 먹고 그랬어유. 참 여기가 유명했지유. 그때 나는 어렸지유. 형님이 두레는 주로 했고, 아버지가 대전에 두레 치러 갈 때에 차로 모시고 다녔지유.

옛날에 호미로 댔는데, 저도 했시유, 아시, 두물, 그리고 나중에 만물은 호미로 안 하고 손으로 해유. 아시와 두물 때에 두레를 쳐유. 옛날에는 풍장이라고 했지유. 그 다음에 풀물이란 말을 썼지유. 한번 댔 때에 일주일 이상 걸리지유.”

안심리의 두레는 남자들만이 참여했으며, 대략 17~18세부터 참여했다.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대신 음식이나 참, 막걸리를 내오는 일을 맡았다. 대략 60~7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다른 동네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었다. 안심 1, 2리에서만 할 때에는 20~30명 정도만 참여했다. 두레가 없는 본의실에서는 안심리에 돈을 내고 두레를 의뢰한 적도 있다.

“두레 논 댔 때에는 남자들만 했지유. 집집마다 남자들이 참여했는데, 한참 장정들이 하는데, 스무 살도 가고, 열일곱, 여덟살만 되면 다 가유. 옛날에는 학교를 못 가고 다 지게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잖어유? 소 다 풀 먹이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일 해야지유. 오십 넘으면 두레를 빼 주고, 여자들은 음식 내가고, 참 내오고, 그때는 동이에다 막걸리 이어 오고, 그냥 된장 수제비 해서 먹고, 술하고 음식은 그 집에서 내고, 두레 먹을 때에는 마을 공동으로 하고, 본의실 같은 데서 오면 다만 얼마라도 내고 같이 술 먹고, 그 때는 만물 하면 농사 다 지은 거지요. 여기가 한 육칠십명이 참

여했지유. 그렇지 않으면, 요 동네에서 맬 때는 스무명도 되고, 삼십명도 되고, 다른 동네도 매 주었지유. 본의실 같은 데는 두레가 없고 동네에서 그냥 했고, 큰 두레는 안심리에서 다 했지유.

아침에 들로 가지유. 저 들판이 컷지유. 저기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렇지. 오늘은 누구네 논이다 라고 정하는 화주가 있슈. 다 정하는 사람이. 누구네 매면 누구네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끝나면 끝물 치고, 나중에 맨 꼬트머리 맨 집에 가지유. 술 한잔 먹고 국수라도 먹고 그러지유. 화주가 동네 반장 같지유. 100평이면 얼마, 200평이면 얼마, 300평이면 얼마. 그렇게 평당 돈을 매기지유. 어차피 일꾼을 얻어 매야 되는데, 땅은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품삯을 주지유.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야 되지유. 그것을 화주가 하지유. 평수가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거 몇 마지기여, 다 알지유.”

두레를 한 때에는 직접 논으로 간다. 화주가 날짜에 따라 어느 논을 매는지를 미리 알려주면, 이에 따라 아침에 직접 그 논으로 간다. 그리고 다 매면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논으로 이동한다. 두레가 끝날 때에는 풀물을 치면서 마지막 논을 맨 집에 가서 술과 국수를 먹는다. 100평 단위로 계산해서 땅이 많은 집에서는 품삯으로 돈을 내며, 이것을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같이 먹고 살게 해 준다. 박용국은 어릴 적에 두레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으며, 14살 위의 형님이 두레작업에 주로 참여했다. 두레는 60년대에 와서 사라졌다.



사진 3. 목면에서 상쇠를 하던 시절의 모습. 당시에는 뒤에서 북을 잡고 있음.



사진 4. 목면에서 상쇠하던 시기의 농악

두레 일을 하러 들에 나갈 때에는 팽과리, 징, 북, 장구 등을 가지고 간다. 한 곳의 논을 멘 다음에, 소리꾼이 소리를 맥이면 풍장을 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일하러 갈 때에는 악기는 한 벌 가지고 가지유. 북, 팽메기, 징, 장구 이렇게 가지고 가지유. 처음 저기할 때 치고, 나중에 얼마 안 남았으면 치고. 소리꾼이 있슈. ”얼마지기 논매미가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거기까지 하고 풍장을 치면, “어허!” 하고 다같이 소리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지유. 그러고 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유. 나는 거기 참여를 못 했는데, 언제나면 초등학교는 졸업했을 때유. 내가 서당에 다닐 때니까. 안심리는 1리와 2리가 같이 했지유.”

이곳에서는 농악을 예전에는 ‘풍장’이라 했고, 나중에 ‘풀물’이라는 말도 썼다. 아시메기를 할 때에는 일주일 이상 두레를 쳤

다. 초벌메기를 하고 보름쯤 후에 다시 두벌메기를 시작했다.

두레가 다 끝나면 두레를 먹이는데, 이것은 백중 며칠 전의 칠석 즈음에 했다. 이것은 세벌메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한바탕 노는 날이다. 안심리 동네 앞쪽 정자나무 아래에서 크게 두레를 먹였다. 이때 마을의 남녀가 모두 참여하며, 여자들은 주로 음식을 준비한다. 수구막이 옆에 고속도로 쪽으로 큰 정자나무가 있는데, 이곳이 예전에 두레를 먹이던 곳이다.



사진 5. 안심리 두레 먹이던 곳(가운데 큰 느티나무)

두레를 칠 때의 기에는 마을기가 있고, 큰 용기가 있었으며, 영기가 2개 있었다. 이때 소리는 건지동에서 살다가 이사온 김복동이라는 분이 선소리를 주로 맥였다. 모든 두레꾼이 뒷소리꾼이 되어 소리를 받았다.

안심리에서는 정초에 걸립도 했는데, 주로 동네에 돈이 필요할 때에 실시했다. 정월 보름 1-2일 전에 풀물패(농악패)가 풍장을 치며 각 집을 다녔는데, 안심 1구 100여 가구 중에 많은 집을 돌아다녔다. 이때 집집마다 쌀과 돈을 내놓으며, 마을 풀물패는 부엌, 장광, 샘에 차례로 가서 풍장을 쳤다. 걸립은 화주가 미리 갈 집을 알려주면, 이에 따라 각 집을 방문하는데, 각 집에서는 미리 대문을 잠그고 기다린다. 풀물패가 집앞에서 팽과리를 치면 주인은 대문을 열어준다. 샘에 가서는 “물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물 꾸녕 좀 뚫어 주십시오” 라고 빈다. 장광(장독대)에 가서는 주왕님께 집안 잘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안심 2구에서는 돈이 없으면 걸립을 했지유. 풀물패들이 풍장치고 각 집을 돌아다녀요. 쌀을 한 말 주는 집이 있고, 돈을 얼마 주는 집이 있고, 집집마다 다 가면 잘 되라고 부엌에 가서도 치고, 장광에 가서도 치고, 샘에 가서도 치고, 각각 가락이 있슈. 갈 때를 미리 정해서, 화주가 가라고 하면, 집앞에 가면 주인이 대문을 잠가유. 팽맥이를 치면 그때서야 대문을 열어유. 그러면 부엌에 가고, 장광에 가구, 샘에 가구. 물 잘 나오라고 치고, 장광에 가서 주

왕님께 집안 잘 되라고 치고, 샘에 가서는 물꾸녕 뚫어달라고 하지유. 광에는 안 가지유. 옛날에는 광에도 가는 경우도 있었대유. 걸립하면 우리 어르신네가 팽맥이를 치고, 팽맥이를 잘 쳐야되니까, 다 돌아당기는 거지유.”

이 마을에는 큰 용기가 있었는데, 용의 형상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이 기는 안심리에서 퇴비 거름을 많이 생산해서 청양군에서부터 상으로 받았다. 마을기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글자를 써 넣었다. 용기는 오래 되어 낡아서 현 보존회에서 다시 만들었다.

안심리 두레는 박용국이 15살 때에 마지막 두레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두레는 대략 1960년대 중반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두레는 안심 1-2리가 같이 참여했다.

한편 백중 때에는 특별히 안심리에서 장이 섰다. 그곳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가축을 매매하는 소전도 있었다. 예전에 백중 날은 머슴 생일날이라 했으며, 이 날은 막걸리를 마시는 날로 여겼다. 안심리는 원래 4일, 9일에 장이 섰는데, 오래 전에 장이 사라졌다.

안심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정자나무 제사를 지낸다. 정자나무의 수종은 버드나무이며 수백년 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서는 ‘정자 위한다’라고 하는데, 나무를 위하고 동네가 안녕하

기를 기원을 한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지만 언제부터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노인회장이 제주가 되며, 노인회 총무가 모든 준비를 하고, 이때 동네에 모아둔 돈을 사용한다. 정월대보름날 10-11시에 군수와 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점심을 먹는다. 술을 올리는 것은 노인회장, 군수, 면장, 동네 주민 순서로 진행한다. 축문은 박용국이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총무가 쓰기도 한다.

“정자나무 제사를 동네에서는 정자 위한다고 하지유. 제주는 노인회장이 하고, 총무가 다 준비하고, 반장이 준비해. 동네 돈이 있어유. 오래 됐지유. 우리가 모를 적부터 옛날부터 했지유. 우리는 모르니께, 노인들도 그 윗대가 정자나무를 심었다고. 그 사람들 살았으면 백 몇 살쯤되었으니 오래 되었지유, 이 나무는 버드나무에유. 오전 10시나 11시에 제사지내지유. 군수님 오면 제사 지내고 점심을 먹지유. 옛날에는 이장하고 면장은 꼭 참석했대유. 지금은 군에서 제 지내라고 돈이 나와유. 지금은 군에서 시간을 다 알지유. 그 때부터 군수님이 계속 오시지유. 실지로 제사는 노인회장이 하지



사진 6. 안심리 마근동의 정자나무
(정월대 보름에 정자위하는 나무)

유. 처음에 술잔은 노인회장이 하고, 다음에 군수, 면장 순서로 하고, 동네 어른 다 해유. 축문은 해마다 날짜로 해서 다시 써유. 내가 쓸 때도 있고, 총무가 쓸 때도 있고. 축문은 나무를 위하고, 동네 안녕을 기원하고 그러지유.”

수구막이는 안심리 마을 앞쪽 논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 보호목이다. 이것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앞에 병풍처럼 일렬로 나무를 심었다. 홍수가 크게 날 때에는 금강 강물이 목면 시장터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 이 때에는 앞 들판이 물에 잠겼으며, 배가 드나들기도 했다.



사진 7. 안심리의 수구막이

“수구막이 거 오래 됐지유, 이거(마을 안 정자나무) 심고서 그 무렵 심었을 거지유. 마을 보호목이라고 했지유. 얼마나 됐는지 몰라유,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수구맥이라고 했지유. 요기 물이 많이 들어왔지유. 옛날에 대청댐 안 만들었을 때에 시장 그들까지 물이 들어왔슈. 배가 여기 밑에까지 올라왔지유. 우리 어려서도 물이 들어오는 것 다 봤지유.”

수구막이 나무는 현재 군청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나무 때문에 논에 그늘이 진다고 논 주인이 수구막이 숲의 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예전에 일부 주민이 나무를 베자는 의견도 냈지만, 마을회의에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못 베게 했다.

“수구막이는 군청에서도 보호목으로 지정해서 못 베게 하지유. 여기 마을에서도 그렇지유. 저쪽으로 한 줄을 어느 업자가 사간다고 해서, 논 임자가 판다고 한 주를 뺐어유. 그래가지고 되게 혼나고, 내내 수구맥인데, 거기 가생이 있는데 한 주 뺐어유. 논 임자들이 그늘이 지면 농사가 잘 안 되잖아유. 베자고 하는데, 마을에서 안 된다 해서 못 베게 했지유. 지금도 그늘은 벼가 안 되고 그러지유. 수구막이는 특별히 제사는 없어유. 두레 먹는 곳은 고가도로 옆인데, 수구막이에서 보여유. 정자나무가 이만한 게 하나 있어유. 이거(마을 안 정자나무)하고 비슷해요.”

샘제는 정월대보름날에 목면시장의 예전 장터 인근에서 실시한다. 이곳의 샘은 두레박을 사용할 정도로 깊었으며, 나중에 양수기를 써서 끌어올렸다. 15년 전에 그 우물을 메꾸고 인근에 대형 관정 2곳을 파서 산 위로 물을 끌어올려서 상수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심리에서도 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

원래 있던 관정은 시장이 들어서서 파출소 뒷마당 쪽에서 샘제를 지내고 있다. 대략 오전에 정자나무 제사를 지내고, 점심 이후에 2~3시부터 샘제를 지낸다.

3. 서당 공부와 청소년 시기의 놀이

박용국은 9살에 목면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15살에 졸업했다. 초등학교 27회 졸업생이며, 동창회와 스승의 날 학교 행사에도 계속 참여한다. 그는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대신 3년간 가까이 서당에 다녔다. 당시 친구들은 주로 도보로 정산중학교에 다녔다.

서당은 목면 송암리 용고니에 있었으며, 조한국 선생에게 천자문 계몽편, 명신보감을 배웠고, 맹자도 조금 들어갔다. 그리고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송암리 옆)의 반곡에서 이재창 선생에

제도 배웠다. 따라서 2년 8개월을 한문을 배웠으며, 예전에는 글씨도 제법 잘 쓰는 편이었다. 이곳 안심리는 공주와 거의 경제이기 때문에 생활권이 공주에 겹치게 된다.

용고니의 조선생 서당에 다닐 때에는 학생이 30명 정도가 배웠다. 학생이 많아서 방에 딱 찰 정도였다. 학생들은 책상이라 해서 공부하는 작은 책상을 앞에 놓고 앉는데, 이 책상에는 뚜껑이 있어 안에 책과 벼룩, 북, 먹 등을 넣게 되어 있다.

훈장인 조선생은 매우 엄했지만, 냇가에서 같이 목욕을 할 정도로 학생들과 가깝게 지냈다. 같이 서당에 다녔던 이재창이 상여소리를 잘 했는데, 우성면 윗골로 이사를 와서 안심리와 본현리, 공주 등을 다니며 상여소리를 했다.

훈장 선생님께 1년에 2번에 걸쳐 보리가 날 때에 보리, 벼가 날 때에 벼를 얼마씩 드렸는데, 얼마를 냈는지는 어른들이 냈기에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서 조부에게 통감을 직접 배웠다.



사진 8. 박용국이 작성한 축식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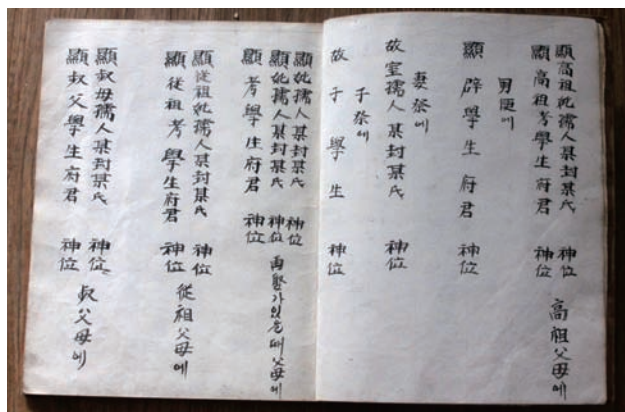


사진 9. 박용국이 작성한 축식(각종 제문 서식)

용고니의 조선생 서당에 다닐 때에 천자문 계몽편을 책걸이 한 적이 있다. 서당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들어가는 순서대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내용이 달랐다. 따라서 책걸이 시기는 일정치 않고 개인별로 서로 다르다. 책걸이 하는 날에 누나가 집에서 떡을 해서 가져와 학생들과 나누어 먹었다. 떡은 시루떡이며, 찹쌀과 콩가루로 넣은 인절미도 준비했다.

“우리는 천자문을 안 배우고 계몽편을 배웠어요. 요기 조한국 선생한테서. 계몽편 떼면 책걸이 한다고, 집에서 떡하고 다 해갔고 가유. 우리 누나가 가지고 가유. 우리 학생들 다 같이 먹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하면 못 쫓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늦게 오고, 들어오는 대로 배우니까, 제각각 배우는 게 다 틀려유. 그래서 책을 떼는 시기가 다 틀려유.

우리 용고니서는 한 삼십명 됐슈. 아주 이렇게 큰 방에 꼭 차 앉

아서, 앉들 못했슈. 쾌상 갖다놓고, 요만한 쾌상이 네모진 거 놓고. 다리는 없슈. 딱 열면 그 안에 책 넣고. 속에다 버루집 놓고, 북 놓고, 먹 놓고. 그렇게 하고서 여는 거,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글씨 쓰고.”

집안에 있는 만사는 8살 위인 이용성씨가 써서 준 것이다. 주로 한시가 쓰여 있으며, 책 표지는 무제시(無題詩)라고 쓰여 있다. 그는 공주시 우성면 윗골에 살았으며, 서당에 같이 다닌 선배인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사진 10. 박용국의 선배인 이용성이
희사한 한시 필사본

8월 추석 명절에는 청년회와 4H가 중심이 되어 연극을 했다. 이 동네 너머의 안심 2리 건지동에서 했을 때에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도랭이(도롱이)를 쓰고 노인들 웃기는 내용의 연극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참여했으며, 10년 선배들이 주동을 했다.

“팔월 명절 때는 옛날에 우리 때는 연극 같은 것도 했슈. 옛날에 4

에이지, 청년회에서 팔월 십오일 추석 날 요너머 동네, 건지동, 거기
도 안심리유. 연극은 뭐 시골연극이라 해서, 도랭이 쓰고 하고, 노인
네들 웃기고, 내용은 오래되어 생각이 잘 안 나지유. 우리 선배들은
나이가 열 살 차이도 되고, 그 선배님들이 하고, 우리는 따라 가고,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지유. 우리는 연습하고.

그리고 콩클대회를 했는데, 밴드를 불렀는데, 밴드라고 해야 기
타맨 하나 부르고,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사회 보고, 상품 걸
어놓고 콩클대회를 해요. 저 아래 어천리도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요. 표를 사서 노래를 불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요. 그러면
다 구경을 와요. 그게 추석 명절 때에 해유. 여기서 안 하면 어천
리 우성면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면 그리로 가요. 인근 송학리에
서도 연극하고 콩클대회도 하고 그랬지유.”

추석에는 동네 노래자랑도 열렸다. 상품을 걸고 열리는 콩클
대회 방식인데, 사회는 동네 젊은이가 맡고, 외부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을 반주로 데리고 왔다. 어천리와 근처 젊은이들이 참
여한 노래자랑이었다. 표를 사서 노래자랑에 참여하는데, 등수
를 매겨 상을 주었다. 이곳 안심리에서 열리지 않으면 다른 동
네에서 열려서 그곳에 구경하러 갔었다.

목면 시장터에서 난장이 설 때에 씨름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
소 1마리를 걸고 약 5일간에 걸쳐 큰 씨름판이 벌여졌다. 씨름
대회의 유명한 장사로는 공주 사람인 최일포, 백영준 등이 소를
여러 번 타 갔다. 인근 공주의 우성면 용봉리에도 공수원 시장

이라고 해서 장이 섰는데, 때에 따라 난장이 선 적도 있다.

“우리 시장 서는 거, 난장 서고, 씨름대회하고, 소전 서고, 다 봤지유. 이게 시장터요. 씨름 저기 하려면, 시장 발족하기 위해 씨름하고, 난장 선다고 해요. 옛날에 난장 서면 씨름대회하고 소 한 마리 주고, 광목 주고, 하루 이틀 안 해요. 오일간 그렇게 해유. 씨름하고 그런 걸 하지유. 그러면 장사꾼도 오고, 씨름대회 하러 인근에서도 다 오죠.”

학교 다니던 시절에 게잡이를 한 적이 있다. 밤에 횃불을 들고 냇가에 가서 금강에서 올라온 민물게를 잡은 기억이 있다. 봄철이 되면 ‘사시랑게’라고 해서 게 새끼가 강에서 냇가로 새카맣게 올라온다. 냇가의 한쪽을 막고 옆에 초막을 지어서 밤새게를 잡았다. 안심리 마을 앞 중부 뜰 냇가에서 많이 잡았으며, 논배미에도 게가 있었다.

“여기에 옛날에는 민물게가 엄청 많았슈. 강에서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봄에 요만한 게, 사시랑게가 요기 냇물로 새카맣게 올라와유. 거기를 중부뜰 냇가라고 하지요. 그놈들이 올라와서 논배미에도 있는데, 가을이 되면 어른 손만해요. 더 큰 놈도 있지유, 이런 놈이 알 까러 강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놈을 망을 치고 잡는 거유. 비료푸대로 두어 푸대씩 잡았시유. 엄청 많았슈. 지금은 없는데, 지금 군산 하구둑 막아서 안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슈. 그래서

못 올라온다고. 지금은 저 천장리, 금정리 그 냇가에 게를 넣고서 청양군에서 행사를 해유. 넣고서 가을에 게막 짓고서 잡는 걸 해유. 없어져서 일부러 새끼를 풀어서 행사를 해유.

게는 밤에 잡아요. 햇불 밝히고, 발을 대각선으로 치고서 이렇게 뚝을 내고, 이렇게 움막 같은 집을 지어요. 나무로 해서 짚으로 엮어서 임시로 움막을 지어요. 게 잡을 때까지. 추석 때 내리는데, 서리 올 때까지 내려유. 이게 냇가면, 발을 이렇게 쳐유. 뚝을 이렇게 내요. 게가 내려가다 요리로 올 거 아니유? 고기로 밖에 내려갈 수 없지유. 그러면 움막에 앉아서 내려가는 놈 붙잡고, 손으로 그냥 잡아요. 그냥 타고 내려오면, 햇불 밝혀놓고 잡아넣고, 잡아 놓고 해유. 그 전에는 서너명이 같이 가서 술 한잔 받아서 먹고 그러지요. 게가 내려오면 물살이 표시가 나요. 그전에는 고기가 굉장히 많았지유. 옛날에는 좋았슈.“

게는 강에서 올라와서 가을이 되면 대략 어른 손 크기로 자란다. 그리고 알을 까러 가을에 강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가을에 냇가에 망을 치고 게를 잡는다. 대략 추석부터 서리 올 때까지 게를 잡았다. 냇가에 비스듬하게 발을 치고, 대각선 발의 아래쪽 한 곳만 터놓는다. 그리고 그 옆에 나무와 짚으로 임시 움막을 짓는다. 밤에 햇불이나 등불을 들고 움막에서 기다리면 게가 발을 피해 발의 끝부분 터진 곳으로 몰려든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손으로 게를 쉽게 잡았다. 하룻밤에 비료푸대로 2푸대를 잡은 적도 있다. 대개 3-4사람 정도 같이 가서 게를 잡았

으며, 잡은 게는 주로 계장을 해서 먹었으며, 호박을 넣어서 지져 먹기도 했다.

초등학생 시절에 게 10마리를 한 묶음으로 엮어서 공주 시장에 가서 팔기도 했다. 게가 비쌀 때에는 당시 돈으로 3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돈으로 3만원 정도의 값어치다. 그래서 용돈으로 유용하게 쓴 적도 있다. 그런데 군산에 금강하구둑이 생기면서 게가 올라오지 못하자, 갑자기 게가 사라졌다. 청양 군에서는 요즘 금정리 냇가에 어린 게를 넣어 기르고, 나중에 이 게를 다시 잡는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예전에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했다. 메기, 뱀장어, 잉어, 가물치, 눈치 등과 같은 물고기가 많았다. 메기를 잡을 때에는 밤에 횃불을 들고, 톱의 등으로 메기의 등을 내려 쳐서 기절을 시켜 잡았다. 밤에 불빛을 비추면 물고기는 멈추는 버릇이 있어서, 이때 톱등으로 때려서 잡았다. 잡은 메기는 들에 있는 호박을 따서 넣고 지져서 술안주로 먹기도 했다.

겨울철에 토끼몰이를 한 적이 있다.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토끼가 눈에 잘 띄어서 잡기가 좋다. 예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무릎까지 눈에 빠진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이 쌓이면 토끼가 잘 뛰지를 못한다. 그대신 사람도 눈에 빠져 뛰는 데에 똑같이 어렵지만 토끼는 다리가 짧아서 더 어렵다. 그러면 가는 철사로 울무

를 만들어 토끼가 가는 길에 설치한다. 토끼는 항상 밭자국만을 쫓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가지 않고 자기 길만 간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무에 목이 걸리게 경우가 많다. 대개 2-3명이 같이 가서 토끼를 사냥한 적이 있다.

어린 시절 놀이로는 연날리기, 자치기, 팽이치기, 다마(구슬)치기, 딱지치기,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딱지는 접은 딱지만 사용했으며, 둥그런 원을 그리고 밀어내는 방식이 있고, 상대의 딱지를 쳐서 뒤집으면 따먹는 방식도 있었다. 썰매타기는 주로 논밭에서 했다.

어린 시절에 참외와 수박 서리를 한 적이 있다. 주인이 밤에 원두막에서 지키는데, 한번은 짓궂은 장난을 친 적이 있다. 당시 해병대에서 휴가를 왔던 7년 선배가 원두막의 사다리가 땅에 닿는 부분에 오줌과 거름이 든 통을 갖다 놓은 적이 있다. 주인이 밤에 멋모르고 내려오다가 오줌통에 빠지라고 장난을 친 것이다. 대개 17-18세 나이에 이런 장난과 서리를 많이 했다. 당시 인심이 좋은 편이라 아이들이 서리를 하다가 들키면 주인은 야단만 치고 말았다.

박용국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밥을 먹으면 나무하러 가

는 것이 일과였다. 인근에서 비교적 큰 산인 미궐산¹⁾에 많이 갔다. 나무 한 짐을 해서, 지고 오면 한나절이 걸리며, 오전과 오후에 걸쳐 나무 1짐씩 하루에 두 짐을 하면 하루 해가 다 갔다. 미궐산에는 절이 2곳이 있었다.

어려운 분들이나 상을 당한 집안에는 4H청년회에서는 집단으로 산에 나무를 해서 그 집에 몰아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무를 몰아주는 것은 일종의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지게 작대기를 두드리며 노래를 한 적도 있다.

4. 결혼 이후의 생활과 운전자로서의 다양한 이력

박용국은 1976년에 비교적 늦은 나이인 27살에 결혼을 했다. 결혼은 중매로 했으며, 인근 안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본가와 처가가 모두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식을 했다. 결혼을 한 후에 분가하면서 이곳 안심리로 이사를 왔다. 처가는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이며, 장인이 전쟁 중에 월남을 했다. 그리고 처 작은아버지는 유구에서 직조공장을 운영했다.

처가 동네인 유구는 예전부터 직조로 유명한 곳으로, 처갓집에서 직조공장을 직접 운영했다. 유구에 직조공장이 많을 때에는

1) 본의리와 송암리 사이의 해발 369m의 산으로 인근에서 비교적 큰 산이다.



사진 11. 박용국의 약혼식 (1976.5.17)



사진 12. 박용국의 결혼식 (인근 안심교회)

30여곳에 이를 정도였는데, 지금은 2~3곳만이 남아 있다. 공장이 많을 때에는 돈이 많이 도는 부유한 곳이었다. 지금은 큰처남이 중학교 교사를 명퇴한 후에 그곳에 별장을 짓고 살고 있다.

장인, 장모, 처작은아버지가 모두 평안도 출신으로 6.25 전쟁 중에 월남했다. 처외가집은 공주 금학동이며, 처외할아버지는 지역 조합장까지 하시고, 서예에 뛰어난 분이다. 한때 공주 교육대학에서 서예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처외삼촌은 공주의 명구의원 집과 사돈을 맺었으며, 교사를 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

박용국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3년

간 장사를 한 적이 있다. 군대 이외에 고향을 떠난 유일한 시기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웠다. 본인은 처음에 논농사를 2500평을 짓다가 나중에 1,000평을 늘렸다.

1970년대 통일벼를 처음 재배할 때에 동네에서 콤바인을 처음 구입해 농사를 지은 적이 있다. 그 때는 소와 경운기를 주로 사용한 시기이며, 당시 통일벼 22-23호를 심던 시기이다. 그는 이미 1960년대에 운전면허를 따서 콤바인을 구입해서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20대에 운전면허를 따서 40년 이상을 운전을 한 셈이며, 한때 대형면허를 따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큰사위 사업을 도와준 적도 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왜 콤바인을 갖고 농사를 짓느냐고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정부의 권장에 의해 통일벼를 재배한 시기인데, 벼를 수확해서 탈곡을 할 때에 벼가 쏟아지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콤바인을 사용하면 덜 쏟아지는 이점이 있었다. 처음에 주위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도나도 콤바인으로 탈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곳 들판 탈곡을 도맡아서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당시 일년만에 콤바인 값을 다 뽑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했다. 지금은 일년에 콤바인으로 12-15일 정도만 일을 하는데, 당시 바쁠 때에는 45-50일간 일을 할 정도였다.

“그 전에 농기계 사업을 했슈. 이 동네에서 제일 처음으로 콤바인을 샀슈. 그때 당시는 통일벼가 나오던 시기에유. 22호, 23호 통일벼. 그 때가 박정희 시대인데, 70년대인데, 벼 한섬 두섬 먹던 걸, 통일벼는 다섯섬 넉섬씩 먹으니. 너도나도 통일벼를 심었지유. 흑벽돌 찍어서 토방 짓고 그랬슈,

그 때는 소로 하고, 어쩌다 경운기로 하고. 경운기가 제일 많았지유. 그래 기계사업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유. 바심을 허는데, 콤바인 치는데, 통일벼는 막 쏟아져유. 일반벼는 아무리 집어던져도 안 쏟아져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슈. 왜 콤바인을 가지고 하는지. 정부에서는 사람이 벼를 베서 말려유. 낱아유. 걷어서 묶어 줄가리 쳤다가 탈곡기 들어가면 모여서 탈곡기를 해유. 그렇게 하면 쏟아지는 비율이, 콤바인 하는 것보다 더 쏟아진대유. 그거를 허가를 내서 콤바인을 만들은 거다. 콤바인이 덜 쏟아진다는 거지유. 콤바인이 나오던 초창기에 샀지유.

일년 지나니까, 너도나도 하니까, 서로 해 달라니까 견갑을 수가 없어. 나중에 콤바인 사는 사람 있더라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되유. 그 때는 돈은 못 벌었지만, 일년만에 콤바인 값을 빼고도 남았슈. 그렇게 일거리가 많았슈. 요즘은 많아야 십이일, 십오일 하는데, 그전에는 사십오일, 오십일을 콤바인으로 일했슈.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괜찮았슈.”

콤바인으로 강원도 철원에 가서 작업을 한 적도 있다. 철원에는 큰 들이 있어서 콤바인을 끌고 가서 바심(탈곡)을 했다. 시가상 그곳에서 먼저 탈곡을 하고, 이곳에 와서 탈곡을 했다. 철원의 마을 이장이 논 크기로 계산해서 품값을 쳐주었다.

“강원도 철원에 큰 들이 있지유. 무슨 뜰인가 있어유. 2년간 거기 가서 바심을 먼저 하고 여기 와서 바심을 해유. 거기가 바심이 빨라유.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슈. 바심이 탈곡이유. 거기 가서 콤바인 가지고 해유. 거기도 포크레인으로 논배미를 만들었는데, 주인도 논이 몇 마지기인지도 몰라요. 마지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품값을 정확히 쳐주는데, 평수도 제대로 몰라유. 그래도 이장이 품값을 쳐주대유. 무한지경 논매미도 있고, 대충 품값을 정해유. 내가 2년을 거기 가서 일했어유. 그 바람에 이장을 알아가지고, 내가 애기해 주어, 여기서 한 사람이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슈.”

몇 년간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도 이 동네에서 철원에 가는 사람이 있다. 결혼 이전에는 철원에 간헐적으로 갔지만, 결혼 이후에는 자주 가서 일을 했다.

5. 장년기의 산행과 약초 캐기, 그리고 사슴 사육

목면 면사무소에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약 15년간 청소차 운전을 했다.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리고 면사무소 퇴직 이후에는 이곳 안심1리에서 5년간 이장을 했다. 건너마을 안심 2리의 막동골 김광옥 전 이장과는 예전부터 친한 사이로 지낸다.

박용국은 목면에서 농악의 상쇠를 계속 했다. 1996년 10월 3일에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 35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목면 여성농악팀을 이끌고 대회에 나갔다. 이전에는 부친이 이곳 농악을 지도했으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본인이 지도하게 되었다. 당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농악대를 조직해서 농협 마당에서 농악을 연습을 시켰다. 원래 농악은 남자들 중심으로 조직했는데, 90년대부터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일부 남자들만이 참여했다. 당시 참여 인원은 기를 든 사람과 놀이패 등을 합쳐 대략 65명 정도였다.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목면 여성농악대(1996.10.3. 제 35회 청양군민의 날)

이 시기에 산에 다니면서 약초와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등산을 다니고 약초를 캐다. 청양의 칠갑산은 예전부터 산삼, 능이버섯,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산이다.

산삼은 대개 큰 산의 6~7부 능선의 참나무 아래 반 음지에서 많이 난다. 새가 삼밭에서 씨를 물고 가 똥을 싸서 이로부터 삼이 자리게 된다. 칠갑산에는 정산 쪽에서 마치터널을 지나 좌측 골짜기 쪽의 반음달에 산삼이 많이 나왔다. 썩은 높이 올라가지 못하며, 비둘기나 까치 같은 새가 높이 올라가는 편이다. 한때 강원도 홍천 오성산, 충북 제천과 영동 지역의 산까지 다니며 산삼과 약초를 캔 적이 있다. 지금은 장뇌삼을 많이 심어 놓았다.

“칠갑산에서 산삼도 캐고, 능이버섯도 캐고, 송이가 많이 났어요. 송이버섯 저기 한 사람은 대치에서 해 놓고, 그 전에는 많이 캐고. 지금은 장뇌삼을 심어놔서 못 들어가요. 잘못하면 욕 먹고, 웬간하면 안 가지요. 가들 안 해요. 등산이나 가지요.

산삼은 소나무 밑에는 잘 안 나고, 드물고, 참나무 밑에 같은데 많이 나요. 주로 방향이 반 음지, 아주 햇빛이 안 들어도 안 되고, 거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고 새가 삼밭에서 씨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썩은 밭에서 물고 많이 안 올라가요, 까치 같은 것은 막 올라가고, 비둘기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6~7부 능선에 많이 나요. 새가 물고 먹고서 똥싸고 나는 거니까. 충북 저쪽 제천, 영동 같은 데 많이 다녀봤는데, 내가 봐도 육칠부 능선에 제일 많

이 나요. 칠갑산은 지금 터널 넘어가면 좌측으로 고랑이 한 서너 개 있어요. 그 골에서 많이 났어유. 거기가 반음달이거든요. 거기 가 대치——, 뭐라던가?

터널 생기기 전에는 우리 어려서는 거기 고갯길에 눈 많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갔슈. 직행이 63번, 860번 두 대가 있었슈. 잊어버리 지도 않아유. 이 고개도 그랬슈. 여우고래도 그랬슈. 눈 많이 오면 차단되고 그랬슈. 지금 다 까서 그렇지.”

청양 칠갑산에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눈이 오면 버스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다. 칠갑산 마치고개나 인근 여우고개 등은 비포장 고갯길이라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차가 제대로 못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다.

박용국은 산을 좋아해서 면사무소의 등산대회에 가서 1등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약 15여 년 전 쯤에 목면 안심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칠마산악회를 만들어 회원들을 데리고 산에 다닌 적도 있다. 현재도 지곡리 사람들을 포함해 목면 산악회가 활동하고 있다.



사진 17. 마라톤 대회 참가(공주시 우성면 주최 5천m 마라톤대회에서 목면 대표로 우승)

산에 가게 된 것은 인근 용봉리 고개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박종환(남, 1953년생)의 영향이 컸다. 그는 충북이 고향인데, 강원도에서 한때 장사를 했으며, 서울에 살다가 이곳에 내려왔다. 공주에 사는 친구의 권유로 이곳 안심리 옆 용봉리에 와서 순대국밥 식당을 열었다. 그는 생활에 여유가 있었으며, 산에 갈 경우에는 식당은 부인이 맡아서 운영했다.

산을 알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9년 즈음으로 목면 면사무소에서 퇴직하기 전이었다. 시간이 나면 그와 산에 같이 갔으며, 2,000년대에 화물차를 사서 운전하고, 산 밑에 가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산에는 보통 3인이 한 조로 가며, 혼자 가는 경우에는 조카를 데리고 갔다.

강원도 홍천 오성산에 자주 갔는데, 그 지역 이장을 잘 알고 있어서 사전에 허락을 받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곳은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으로 허락 없이는 올라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오성산에서는 주로 더덕과 약초를 캐서 서울의 이종오 약재상에 갖다 팔았다. 대략 금요일



사진 18. 산삼을 채취한 박용국

에 퇴근하고, 자동차로 강원도로 가서 일요일에 산을 타고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당시 오성산의 이장 댁에서 농기계 사업을 배워, 박용국은 안심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트랙터, 콤팩트를 구입해 사용했다.

그는 산에 가서 버섯을 채취하기도 했다. 송이버섯은 능이버섯과 비슷한 시기에 채취하는데, 송이버섯을 먼저 따고, 바로 능이버섯을 따다. 능이버섯은 습기 있고, 후미진 곳에서 나며, 해마다 초가을에 짧은 기간에만 딸 수가 있다. 버섯 포자가 있는 곳은 지형적으로 솔잎이 덮인 뽕죽한 곳인데, 산의 지형을 딱 보면 “저기 능이버섯이 나는 구나”라는 느낌이 온다.

칠갑산에서는 20여년 전에 송이를 캐으나 지금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요즘은 산삼도 캘 수가 없게 되었다. 주민들이 장뇌삼을 많이 심어서 지금은 산에 가서 삼이나 약초를 캐기가 어려워졌다.

목면 면사무소의 공무원을 하면서 부업으로 사슴을 사육하기도 했다. 10여년 전에 엘크 5마리로 시작했다. 이후 20마리까지 늘어날 정도로 잘 되어, 당시 소 먹이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았다. 사슴피는 1년에 한번 사슴 1마리에 양동이 반 정도를 받는다. 뿔도 일년에 한번 14~15kg 정도를 잘랐다. 엘크의 뿔이 클 때에는 1m 정도에 이르며, 뿔은 5가닥으로 자라는데, 큰 엘크는 소보다 몸집이 더 컸다. 뿔은 봄부터 나기 시작하며, 뿔

을 자르는 시기는 7월 중순~8월 사이이며, 뿔이 늦게 나는 사슴은 9월에 자르기도 한다. 보통 녹용은 말랑말랑한데, 사슴뿔을 제때에 자르지 않고 늦으면 딱딱해져서 녹각이 되며,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녹용은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는데, 상대가 제일 비싸며, 하대는 녹각 수준이다. 200g씩 각저를 만들어 파는데, 당시 15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사슴피에 위생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가 어려워져서, 10마리를 공주에 팔고 그 만두었다.

“전에는 사슴이 소보다 낫았어유. 처음에 엘크 5마리를 가지고, 십 몇 년 했을 거유. 나중에 한 이십마리 되었지. 더는 맥이지 못하고. 사슴피는 아, 어느 날 갑자기 사슴피 저기 하다고 피도 안 먹지, 가격이 저기 하지, 위생 문제가 있어 안 먹으니, 이런 문제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 안 되겠어유. 신품에 사슴 많이 키우는 최정암이라고 있어유. 처음 그 사람이 알선해서 그 때문에 했고, 용인 품평에 가서 종자도 사고 했지요, 가만히 생각하니, 나는 힘 들고 다 가져가라. 내 열 마리 네가 가져가라 그래 그만 두었지요.

십여년은 소 맥이는 것보다 낫았지유. 사슴 한 마리 피가 엘크 큰 놈은, 반 바께쓰 나와유. 일년에 한번 하지유. 뿔이 14킬로, 한 참 클 때 15킬로 나가고, 15킬로 되어야 되지. 뿔도 일년에 한번이지유. 뿔의 길이가 1미터 정도 되지유, 가지가 이렇게 있지유. 엘크 제일 큰 거. 소보다 훨씬 크지. 엘크 큰 거는 그래유. 일년에 그렇게 크지유. 뿔은 다섯 가닥 정도 되유. 봄 되면 올라오지유. 자르는 것은 칠월 쯤해서 자르지유. 크는 거 봐서 자르지유. 칠월 중순 되

면 어느 정도 크지유. 늦은 건 팔월도 가고, 그러고 늦게 나는 놈은 구월까지 가유. 많이 맥이는 사람들은 시기를 맞춰유. 뿔이 더 오래 되면 녹각이 되어 못 쓰지유. 오래되면, 딱딱해지면 못 쓰고 말랑말랑해야 되유. 녹각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쥬. 뿔은 위부터 상대, 중대, 하대 얼마씩 가격이 달라유. 밑에가 녹각이 되고, 상대가 제일 비싸고, 200그램씩 각저서 15만원에 팔았슈.”

엘크사슴의 뿔을 자를 때에는 마취총을 사용하게 된다. 마취총은 총으로 쏘는 것과 입으로 부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략 2~3분 정도면 사슴이 마취가 된다. 아무래도 입으로 부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총을 구입했다. 당시 청양의 총포상에서 이태리제250 마취총을 구입해 집에서 보관을 하고, 사슴이나 염소를 마취시킬 때에 사용했다. 이 마취총은 멧돼지를 잡는 엽총과 실탄이 틀리며, 실탄은 모두 외제를 사용한다. 총소지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요즘에도 신품, 계룡 등지의 사슴농장에 가서 마취총을 쏘준다. 마취제 약값이 비싼 편이라, 한번 쏘는데 30만원을 받는다. 염소도 총으로 마취시키는데, 사슴보다는 염소가 마취가 잘 되는 편이다.

산행을 가르쳐주었던 박종환씨에게 엽총을 구입해 사냥도 배웠다. 산에 사냥을 가는 시기는 밀렵 허가가 나는 때에만 가능

하다. 곡식을 먹는 유해 조수의 피해가 심해서 일정한 시기에 경찰서에서 사냥 허가를 내준다. 이때 엽총을 찾아서 까치, 고라니, 멧돼지 등을 잡는다. 곡식의 피해가 심한 시기에는 특별 허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멧돼지의 피해가 커서 멧돼지 사냥을 가기도 한다. 엽총은 정산 지구대에 보관했다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허가를 받아 사냥을 가며, 필요에 따라 야간까지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

6. 부친의 장례와 대를 이은 농약의 상쇠 활동

부친은 25년 전쯤인 1990년대 초반에 84살로 세상을 떠나셨다. 추석 전날 밤에 돌아가셔서 어쩔수 없이 5일장을 치렀다. 당시 집에서 장례를 치렀으며, 박용국은 40대 시절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둘 두었던 때이다.

동네에서는 상포제로 연반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을 당할 때에 상가집에 돈으로 부조를 하는 방식이다. 연반제는 별도로 매년 내는 돈은 없었으며, 단지 가입할 때에는 가입비로 쌀 1말을 냈다. 대개 연반제의 기금은 장례가 끝나고 상가집에서 들어온 부조의 일부를 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을 사용한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집에서 오일장 했슈. 그때 왜 그랬냐면, 명절이 끼어가지고, 추석 전날 돌아가셨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일장을 했지유. 대개 삼일장 하는데, 삼오칠구로 나가니까, 오일장이지요. 그 때가 이십년 전쯤이지요. 우리 어르신네가 팔십넷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결혼해서 애 둘 낳았으니까, 한 나이 사십되었을 거예요. 구십년도지요.

대개 그 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고. 동네에서 연반계라고 있었슈. 연반계에 들면 상여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지유. 연반계는 상 당하면 다 해주는데, 대동계는 동네 계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두 개 다 들거나, 아니면 하나만 드는 경우도 있슈. 연반계라는 것은 상을 당하면 나오는 돈으로 그것으로 계잡음을 하고, 대동계는 어디서 들어오는게, 동네로 들어오는 게 많아유. 누가 내는 돈이 있고, 그걸로 하고. 동네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는 건 없지유. 가입할 때 쌀 한 말씩 내고 그랬지유.

상을 당하면 동네에서 돈을 자진해서 내지유. 동네에서 다 가서 도와주니까, 돈 백만원도 내고, 있는 집에서는 더 내지유. 예전에 상여도 많이 댔지유.”

상이 나갈 때에 상여를 메는데, 동네 상여는 좌우 합쳐 12인이 메는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동네의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형겅에 꽃문양을 하고, 나무에 여러 문양을 조각해서 장식으로 꽃았다.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별도로 있었다. 그런데 상여를 쓰지 않게 되자 지금부터 10년도 안 되어 동네에서 상여집을 부수고, 상여를 불태웠다. 안심리에는 상여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곳 마근동 상여, 건너 마을인 건지동 상여, 그리고 면사무소가 있는 시장통 상여가 각각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요즘에는 가볍고 간편한 일회용 꽃상여를 사용한다. 영구차에서 내려 산으로 갈 때에 동갑네나 친구들이 꽃상여를 메며, 8명이 메는 경우가 많고 6인이 메는 경우도 있다. 꽃상여는 작아서 메기에 비좁은 편이다. 그리고 요즘은 딸이나 아들이 상조회에 가입하면서 상조회에서 장례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열둘이 매는 상여가 있었슈. 지금은 꽃상여로 가볍지유. 옛날에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슈. 꽃 같은 것도 종이 아니고 형겅으로 해서 문양을 만들지유, 나무도 그러서 꽃아서 만들지유. 이 동네에도 상여 만드는 전문가가 있었슈. 그 양반이 다 깎아서 그러서 만들지유. 다 돌아가셨지유. 상여는 부신 지 십년도 안 되었슈. 상여를 다 태워버렸슈. 저 넘어 건지동 상여도 있고, 이 동네 마근도 상여도 있고. 목면 면사무소에 있는 2구에도 따로 있고. 요즘에는 일회용 꽃상여를 다 하지요. 아니면 상조회사에서 다 해주지요. 자식들이 들면 다 해주잖아요. 서운타 그러면 꽃상여를 사서, 영구차 내려서 꽃상여를 매지요. 이건 6명이 매면 작아서 복잡해유. 대개 8명이 매지유.

요즘에도 상여소리를 해유. 이 동네 상여소리 하던 사람이 다 돌아가셨슈. 한 분 있는데 풍증이 와서, 인저 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양승국씨라고, 농악 때에 호적도 불고, 어

르신네한테 배운 분인데, 그 양반이 요령 했지유.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돌아가셨슈.”

상여소리를 하는 분은 요즘도 일부 있다. 박용국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이 동네 안심1구에 사는 양종국이란 분이 요령을 잡고 소리를 했다. 그는 부친의 제자로 농악에서 호적을 붙였는데, 상여소리를 잘 했다.

이곳에서 장례는 탈관을 해서 살장(撒葬)을 한다. 대리석 돌로 시신 주위의 4면을 세우고 위에 ‘따깁’이라 해서 뚜껑을 닫는다. 부모 합장을 할 경우에는 부친은 자식들의 위치에서 오른쪽에, 모친은 왼쪽에 모신다. 잔치상도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동네는 탈관하지유. 살장 이렇게 하고. 지금은 돌을 이렇게 넣잖아유. 모시고 따깁을 하고, 이렇게 돌로 두르고, 대리석 같은 걸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한쪽으로 놓고, 먼저 해 놓아유. 나중에 따깁만 열고 두 분을 합장하지유. 좌우잖아유. 남자가 오른쪽이지유. 잔치상도 남자가 오른쪽이지유.”

예전에 부조로는 상을 당한 집에는 계란 10줄을 엮어 부조를 했다. 어려운 사람은 부조를 못 하고, 여유 있는 집에서는 계란부조나, 팔죽부조를 했다. 한편 동네에서는 대동계도 있었다. 이것은

동네 계로서, 동네에 들어오는 돈으로 기금을 만들며, 별도로 걷는 돈은 없다. 동네 사람들은 대동계, 연반계 2가지를 다 들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당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면에서 상쇠를 했다. 그래서 청양에서 농악경연대회가 열리던 시절에 면 대표로 목면 농악대를 이끌고 참여했다. 1996년 10월 3일 제 35회 군민의 날 행사에 목면 여성농악대를 끌고 참여했다. 박용국은 마지막 솟대쟁이패이며 남사당에서 활동했던 송순갑 선생이 청양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알고 있다. 그의 아들인 송덕기씨가 현재 대전에서 웃다리농악을 이끌며, 대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있다.

이곳 목면의 농악대에는 오래된 용기(龍旗)가 있었으며, 이것을 들고 청양의 농악대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청양의 대회에 몇 번 참석하는 과정에 그 기가 없어졌다. 그 용기는 오래 전에 퇴비를 많이 만들어서 청양군수로부터 상으로 탄 깃발이다. 오래된 기인데 사라져서, 목면에서 초기 농악단장을 한 여성 독지가가 150만원의 돈을 내서 새로 제작했다. 대전의 국악사에 맡겨 제작했는데, 예전의 용기가 없어도 그 국악사에서는 이곳 용기의 형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새로 제작했다. 현재 목면의 농악대에는 용기 하나와 영기 두 개가 있다.

근래 공주생명고(예전에는 공주농고) 출신의 김윤만이 상모

도 잘 돌리고 한때 민속촌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다. 그는 윗동네에 사는 김중탁씨 둘째 아들로서, 이 지역 출신의 뛰어난 젊은 전문 농악인이다. 그는 최근 팀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며, 외국까지 공연을 다니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사진 19. 박용국 부부의 중년 시기



사진 20. 박용국 부부와 두 딸과 큰손자

7. 청양 가락을 지키며 욕심 없이 사는 상쇠 박용국

박용만은 현재 청양지역 전통 농악의 가락을 전승하는 청양두레농악보존회에서 상쇠 역할을 맡아 이끌면서, 매주 청양문화원에서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보존회는 한상돈씨가 회장이며,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문화원에서 모여 연습을 한다. 이 농악대는 청양의 장승축제, 고추축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두레농악의 선반은 청양면에서는 한상근이 비나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쇠는 3인이 치고 있는데 박용국이 상쇠 역할을 한다. 잡색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포수, 꽃나비 정도가 등장한다. 청양 농악의 가락은 전통적 이 지역의 가락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웃다리 가락과 비교해 새마치는 비슷한데, 들어가고 끝맺는 것이 약간 다르다. 특히 아랫녘의 호남지방 가락과 매우 다르다.

그는 목면 복지관에서 얼마 전에 농악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근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곳 가락과 다르게 지도하고 있어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청양은 자춘마치, 2채, 3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동할 때에는 길풍장을 친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 지역 농악이나 앓은반이(사물놀이)를 배워서 길풍장을 치지 못하며, 이동할 때 세마치를 치려고

해서 서로 맞지 않는다. 이들 젊은 사람들은 힘이 크게 들지 않는 예전 길풍장을 치지 못한다. 박용국은 요즘 이곳 가락을 배우지 않은 주민들을 이끌고 행사에 나가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상쇠인 본인이 직접 가운데를 들어가서 억지로 맞춰주고 있다.

“여기 가락하고 웃다리가락하고 내내 새마치는 비슷한데, 농악 자체가 처음 들어가고, 붙이고, 끝맺고 하는 게 가락이 좀 틀려유. 지금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치고 어찌고 그러면 우리보다 손이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가락이 아니에유, 틀려유. 여기서도 선생님이 복지관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락을 치면은, 노인네들이 지금 배운 앓은반이 사물도 하고, 선반도 치는데, 몇 년을 치면서 여적도 저렇게 치느냐고, 저건 풍장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유. 우리는 두채, 삼채, 자존마치 이렇게 주로 치지유.

그리고 여기는 이동할 때 길풍장을 치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못 쳐유. 그런데 고추축제나 청양 체육대회 할 때 행진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새마치를 치고 가유. 그러니까 안 맞지. 길풍장은 힘 안 들이고 착착 맞는데, 새마치는 앞뒤가 안 맞고 그래유. 이게 익숙을 못 하니까 옆에서 볼 때는 우왕좌왕이지,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가운데를 들어가서 왔다가며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조금 맞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인근 송학리의 정월대보름 동화제에 꼭 참석한다. 송학리에서 이장을 하고 동화제 지도자로 활동하던 오영범씨가 근래에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아들인 오인세씨가 농협에 근무

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휴일에 산에 많이 오르는데 산속에서 닥치는 대로 캐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버섯이나 약초, 나물 종류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 취나물을 뜯으면 매년 다시 나오는데, 요즘은 아주 뿌리채 캐가는 경우도 있다. 인근 산 중에 공주 방향의 사미산, 앵봉산, 미궐산 3봉은 나물이 많이 나는 곳이다. 등산로는 소방대원들이 잘 닦아 놓았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점차 약초와 나물이 없어지고 있다. 이들 산에는 새해에는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목면에서는 제사상을 준비해 한 해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그는 열심히 생활해서 3남매를 대학에 보냈다. 큰딸은 공주 여상을 다니며 부기를 매우 잘 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스카웃 되어 근무하다가, 나중에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그만두었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며, 큰사위는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둘째 딸은 정산중고를 거쳐 간호대학을 나와서 분당 차병원에 간호사로 있으며, 10살 넘는 손자가 있다. 그리고 막내아들은 대전에 있는 대학의 토목과를 졸업하고 현재 천안에 살고 있다. 한때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사료차 2대를 구입해 한 대는 본인이 운전하고, 다른 한 대는 사람을 두고 사료배달하는 일을 하며 잘 살고 있다. 자식들이 모두 잘 살고 있어서 걱정은 없다.

그의 부인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효심이 강하다. 현재 공주시의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명한 장인을 직접 모시고 있다. 장인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눈 수술을 3번 하고,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실명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 부인이 다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 그의 집 안에는 간호사가 많은데, 둘째딸이 간호사로 있으며, 막내 처제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수간호사로 있고, 처이모부가 세브란스병원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8. 정신없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본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으며, 부인은 공주시의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처가는 9남매이며, 처제가 여섯이고 집사람은 그 중에 둘째이다. 얼마 전에 눈먼 장인 생신에는 마곡사로 가서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현재 밭은 1500평, 논은 2700평 정도를 농사짓고 있다. 논은 주로 기계를 사용해 관리하며, 밭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 주로 콩, 깨, 고추 등을 재배하며,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수확한 밭곡식은 대부분 집에서 먹고, 자식들

에게 일부 나누어 주는 정도이다. 올해도 현재까지 밭에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했는데, 크게 바쁜 일은 없다.

그는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해서 걷기가 다소 불편하다. 그래서 타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팔고 지금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최근 7개월간 산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다.

두레농약을 같이 이끌고 있는 한상근 회장은 나이는 약간 아래지만 서로 뜻이 잘 맞는 편이다. 그는 청양 읍내가 고향이며, 홍성의 집에서 오고간다. 그는 다른 지역의 신가락을 칠 줄도 알지만, 두레농약은 청양 고유의 것을 쳐야지 남의 가락을 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런 점은 두 사람이 공통적이다. 공주 의당에 가서 지신밟기를 할 때도 청양 고유의 가락을 친다. 한회장의 가락과 본인 가락은 매우 유사한 편이며, 앞으로 청양중학교에 농악대를 발족시켜 이곳 가락을 지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한상근 회장은 옛날에 신평 그걸 치고, 각지를 돌아다니고 보니까, 우리 청양을 보니까 그게 없다. 청양 것을 해야지, 저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느냐? 그래서 한 회장이 이건 아니다. 공주 같은 곳에도 의당에 가서 지신밟기, 집터 밟기를 허거든요, 거기 요전에 가는데, 우리보고 청양 걸 하라고 하고, 자신들은 공주

것을 할 거라고 해요. 공주 봉현은 상여소리 그거 하고, 자기 걸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요번에 바뀌었지, 한회장이 그 군수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발족을 했지유. 군수가 하라고 해서. 한회장은 원래 청양 사람이예요. 그는 아버님한테 배운 거와 가락이 비슷해유. 신가락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인제 청양군에 두레농악을 해서 그 걸 가르치지유. 청양중학에도 두레농악을 발족을 시킬려고 지금 학생들을 가치르고 있어유. 우리 청양 것을 보존하자 그러지유.”

청양두레농악보존회는 청양문화원에서 매주 수요일에 회원들이 모여 강당에서 연습을 하며, 회원들은 50명 정도 모인다. 목면에는 20개 면이 있는데 다른 곳과 가락이 다르다. 얼마 전에 1년간 지곡의 장수마을에 가서 농악 지도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곳 목면 면소재지에서도 잠시 가르친 적이 있다. 농악 회원들이 다른 곳의 신가락을 배워오면 혼란이 일어난다. 현재 목면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 홍성 출신의 젊은 여자가 농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얹은반이를 조금 할 줄 알고 선반은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래서 회원들이 본인이 지도한 이곳 가락과 다른 가락을 현재 치고 있다. 농악에서는 팽과리, 장구가 가장 중요한 악기이며, 정도 잘 맞춰야 하지만, 북은 단순히 따라주는 역할을 한다.

안심리 마을에서 현재 5사람이 농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본인이 지도를 했다. 지금도 안심리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에 풀

물을 치고, 정자나무 제사, 시장의 샘제 때에 농악을 친다. 청양 두레농악에서는 쇠 1인, 장구 3인이 이곳 안심리 사람으로 되어 있다. 2018년 7월 11일 목면의 다목적회관에서 이루어진 노인잔치에서 앓은반이를 할 때에 징을 쳐 달라고 해서 참여한 적이 있다. 목면의 다목적회관에서는 노래반, 아코디언반, 댄스반, 서예반, 농악반 등이 개설되어 있어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 인터뷰하던 7월 31일에도 그는 목면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새벽에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날은 면사무소 주위에 꽃을 심는 날로, 그는 오전 9시부터 오전 내내 교통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

[민속학에서 본 박용국의 상쇠와 농부로서의 삶]

그는 일생동안 농악의 상쇠로서, 땅을 일구는 농부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40년간 운전수로서, 15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살았고, 또한 산을 좋아해서 약초와 산삼을 캐고, 사슴 사육도 했다. 따라서 강인한 신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군대생활과 3년간의 서울 생활 이외에는 줄곧 고향을 지킨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목면 안심리의 건지동에서 평생 농부로 살았으며, 지역의 상쇠로 활동한 신명이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삶을 보고 자란 박용국도 자연스럽게 부친의 삶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쇳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두레 풍장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청양의 상쇠가 되었다.

그는 영락없는 농사꾼이다. 1960년대 소멸된 마을 두레 작업에 마지막으로 참여했으며, 한때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논농사와 밭농사를 손에서 놓지 않고 농부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고, 마을에서 게잡이, 토끼몰이, 서리의 추억과 각종 예전 전통놀이를 하면서 성장했다.

또한 그는 신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일찍이 1960년대에 운전을 배웠으며, 40년간 운전 기술로 트럭, 청소차, 승용차, 트랙터, 오토바이 등 많은 차를 운전했다. 한때 청양의 농사 시기와 다른 철원 지역에 가서 트랙터로 그쪽 농사일을 돕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일관성있게 살아왔다. 특히 그는 산을 좋아해서 칠갑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충북 등지를 다니면서 약초와 산삼을 캐다. 또한 산악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등산도 다녔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농악의 상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기 고장의 가락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다른 지역 가락을 익히고, 앞은반이를 하면서 선반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여전히 청양 전통 가락의 전승에 힘을 쏟으며, 욕심없는 삶을 살고 있다.

태평마을에서 발굴한 현대판 ‘만파식적’

1. 운명의 이끌림

‘만파식적(萬波息笛)’은 신라의 신적(神笛)이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는 신라의 용신(龍神) 문무왕과 천신(天神) 김유신이 신문왕에게 준 피리라고 한다. 신문왕이 감은사에 머물고 있을 때 감은사를 향하여 떠내려 온 거북머리 모양의 산 꼭대기에 기이한 대나무가 있었다. 이 대나무는 낮에는 둘로 쪼개졌다가 밤이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신문왕이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거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여 ‘만파식적’이라 하였다. 신라시대에 ‘만파식적’이 있었다면 21세기 청양군에는 ‘금강식적’이 있었다.

청양이 자랑하는 대금연주자 우종실. 그의 음악인생 서막은 ‘만파식적’에 버금가는 일명 ‘금강식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어느 여름날 금강이 범람하여 황톳물이 중산리 들판까지 덮쳤다. 갑작스런 물난리에 걱정이 된 그의 둘째 큰아버지가 논에 나갔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 온 단소를 주워오셨다. 둘째 큰아버지의 단소 연주는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

다. 그 때부터 그는 부모님의 농삿일을 돕는 사이시간에 산으로 들로 다니며 마음 가는대로 단소를 붙었다. 범람한 흙탕물에 떠 내려 온 단소가 그의 음악인생에서 만난 첫 악기였다. 먼 훗날 그는 청양군의 자랑스런 예인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우종실은 1998년 4월 30일 ‘청양군 향토유적 10호 대금장’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2. 감수성 많은 어린소년, 늦은 밤 외딴 집에서 들려오는 통소소리에 반하다

우종실은 1940년 12월 15일에 청남면 중산리 윗태평마을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둘째인 그는 위로 6살 많은 형과 아래로 남동생 셋, 여동생 세 명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 그의 뒤에는 항상 형이 있어서 동네친구들이나 형들도 그를 쉽게 보지 못했다. 행여나 그가 몸집이 큰 녀석한테 맞아 울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형이 녀석을 찾아가 혼내주곤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는 형을 잘 따랐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먼 길을 걸어가느라 힘이 들긴 했지만 시장에 가면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간식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미당의 5일장에는 먹을거리가 많았다. 시장 구경,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에 빠

진 그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시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뒤통무니를 쫓아가곤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약한 아버지 걱정을 하며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혼자서는 밤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해가 먼 산으로 넘어가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그는 항상 양달듬과 음달듬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가 여섯 살 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둑해진 저녁 무렵 그날도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얼마 쯤 갔을까. 어디선가 관악기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아래태평마을 외딴집에 살고계신 노씨 할아버지가 연주한 통소소리였다. 태평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 늦은 저녁 멀리서 들려오는 통소소리는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마도 그 날부터 그가 전통의 소리를 가슴에 품었던 듯 같다.

눈이 안 좋은 아버지가 어디에서 글을 배우셨는지는 그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의 아버지는 학교선생님 보다 더 글을 잘 가르치셨던 기억만이 남아있다. 덕분에 그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 한글을 모두 뗐다. 그의 아버지는 특별한 교수법으로 쉽게 한글을 가르치셨다. 먼저 자음인 ‘ㄱ, ㄴ, ㄷ’을 가르쳐 주신 다음, 거기에 모음 ‘ㅏ, ㅑ, ㅓ’를 붙여 가, 나, ㄷ’을 가르쳐 주신 다음, 거기에 모음 ‘ㅏ, ㅑ, ㅓ’를 붙여 가, 나,

다를 익히도록 했다. 그 글자 아래에 받침을 붙이면 ‘각, 간, 감’이 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는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 좋았다. 그 중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가마니 짜기였다. 형님은 가마니 날줄을 넣고, 아버지는 바디를 누르고, 그는 굵은 짚을 얇은 쪽으로 대주는 역할을 했다. 만일 아버지와 함께 방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지겨워서 일찍 그만뒀을 지도 모른다. 여덟살이 되자 그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청남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청남국민학교는 한 반에 60명씩 학년 당 2개 반으로 전교생이 700~800명 정도 되는 큰 규모였다. 그는 제 때 학교에 입학했지만, 그의 형은 10살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10살 혹은 심지어 15살에도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학년의 동급생끼리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3. 한국전쟁 중에도 태평했던 중산리 태평마을

그가 국민학교 3학년 다니던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태평마을 앞의 큰 길로(2차선 도로) 인민군들이 마차에 무기를 싣고 걸어서 들어왔다. 차도 몇 대 있었다.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

고 텔레비전도 없어서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 그런데 어른들 말씀이 “난리가 났다” 하여 비로소 전쟁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있는 금광굴로 피했다. 사람들은 금을 캐던 폐광을 금광굴이라고 불렀다. 당시 윗태평 마을에는 12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동굴의 막장에 자리 잡았다. 동굴 안에서는 가족별로 모여 지냈다. 동굴 안에 호롱불을 밝히고, 밥을 포함해서 간단한 요리도 해먹었다. 피난 이틀째 되던 날 동굴입구에서 총성이 들렸다. 인민군이 공포를 쏜 것이었다. 곧이어 인민군이 굴에 대고 소리쳤다. “해치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왔습니다. 나와서 평상적인 생활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인민군이 소련 장총을 메고 있었다. 인민군의 작은 키에 비해 총이 엄청 커보였다. 그 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 별 일 없이 살았다.

그리고 세 달 만에 9.28 수복이 되었다. 당시 논에 벼가 노랗게 익어갈 무렵이었다. 수복 이전 인민군은 마을의 모든 논을 다니며 곡식의 예상수확량을 조사했다. 심지어 밭에 있는 수수목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세어 예상수확량을 기록했다. 인민군은 수수를 수확한 후에 7:3으로 나눌 거라고 말했다. 농사꾼에게 3을 주고 인민군이 7을 가져간다고 했다. 인민군이 가져

간 7의 분량은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고루 나눠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곧 9.28 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이름 덕을 보았는지 태평마을은 특별한 피해 없이 전쟁을 보냈다. 다만 비행기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다. 보통 유엔군비행기가 낮게 비행하다가 인민군을 발견하면 포격을 했는데, 배 안에 인민군복과 비슷한 색을 입은 일반인을 보고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포격을 하는 바람이 모두가 몰살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부여장에 가려고 길을 나선 양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옛날에 중산리 사람들이 부여장에 갈 때는 주로 왕진나루를 이용했다. 중산리 사람들은 청양읍내 보다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부여장에 많이 갔다. 부여장은 중산리에서 걸어가면 왕복 5시간 정도의 거리다. 마을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곡물을 짊어지고 갔다가 물건을 사서 짊어지고 걸어서 마을로 돌아왔다.

4. 폭우에 떠내려 온 단소와의 운명적인 만남

우종실이 국민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 폭우로 금강이 범

람했다. 금강범람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논밭에 황톳물이 가득 찼다. 그 해에는 수침으로 농사가 흉작이었다. 여느 해처럼 금강이 범람한 어는 여름날 농사짓던 둘째 큰아버지께서 들판에 나가셨다가 물에 떠내려 온 단소를 주워오셨다. 둘째 큰 아버지는 평소에 버들피리 부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주워 오신 단소도 멋들어지게 연주하셨다. 그 때부터 그는 둘째 큰아버지께 간단한 단소연주법을 배우고 혼자서 무작정 연습했다. 그는 지계를 지고 다니면서도 단소를 불고, 퇴비 준비하면서도 단소를 불고, 어딜 가든 단소를 지니고 다니면서 틈틈이 불고 또 불었다.

형은 국민학교 재학 중에 일찍 혼인 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형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눈이 점점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형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밑으로 동생들이 7명이나 되고 보니 형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군대는 피할 수 없었다. 대가족을 건사하던 책임감 강한 형이 군입대를 피하려고 부여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입학도 했지만, 그것이 군입대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형은 만20세에 신체검사를 받고 21세에 군대에 갔다. 형의 군입대는 그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쳤

다. 그도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당시 중학교 진학률은 20%로 매우 낮았다.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당시 중학교는 입시가 있었고, 수업료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그에 게는 먼 거리도 문제였다. 중산리에서 중학교에 다니려면 부여나 정산으로 가야 한다. 중산리에서 부여까지 거리도 멀지만 학비가 더 큰 걱정이었다. 또한 그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나이 많은 형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가정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15세였던 그는 형의 가족들까지 합쳐서 17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배움에 목말랐던 그는 17세 겨울부터 중미마을에 있는 서당에 다녔다. 학채(학비)는 쌀 2말, 중학교 수업료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었다. 그나마 농번기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한기에나 서당을 다닐 수 있었다. 그 때 익힌 한문실력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농사는 하늘의 일이라 인간이 풍흉을 점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홍수나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드는 해에는 부잣집에서 양곡을 빌려서 먹고 살았다. 빌린 양곡을 갚을 때에는 비싼 곱장계, 즉 빌린 양의 곱절을 줘야 했다. 보리 한 말 빌리면 보리 두 말을 주거나, 쌀 한 말로 갚았다. 그러다가 차차 이자 부담이 낮아졌다. 곱장계(쌀 한 말을 빌리면 쌀 두말로 갚음) => 5할 장계

(쌀 한말 빌리면 쌀 한 말 가웃(반)을 갚음) => 3할 장계 => 2할 장계 이런 비율로 낮아지면서 점차 상환부담이 줄어들었다.

5. 종이단소 만들어 불던 군복무 시절, 맞선보고 혼인까지

6.25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들어오던 태평마을 앞 큰길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55년경 이다. 그 때 나루를 건너 버스에서 내린 사람을 세어보면 어림잡아 200명 정도 되어 보였다. 그 많은 인원이 버스에 탔으니 콩나물시루가 따로 없었다. 그래도 몇 시간씩 걸어서 다니던 길을 버스를 타고 다니니 많은 시간이 단축되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만 했단다.

그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8월에 군에 입대했다. 당시 군복무 기간은 32개월이었다. 강원도 전방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했다. 그는 기나긴 군 복무 생활 중 단소를 불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강원도 전방에는 대나무조차 없어서 단소를 만들 수도 없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 그는 궁리 끝에 종이로 단소를 만들었다. 조심스레 소리를 내봤더니 비슷하게 소리가 났다.

우중실은 군복무 중에 중매로 혼인했다. 2년을 군에서 보낸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가 휴가 나오면 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신부가 될 이순옥씨의 고향은 부여군 부양면 나복리라고 했다. 중매는 부양면 나복리에 장가든 방죽안사람이 섰다. 그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 휴가 나온 첫날에 맞선을 보고 몇 일만



사진 1. 1963년 4월 5일, 약혼기념 사진

에 약혼 사진을 찍고 군대에 복귀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 날짜가 잡혀서 다시 휴가 나와서 혼인을 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24세 였다. 처갓집에서 대례를 한 후 하룻밤 자고 바로 다음날 본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 1년 후에 만기제대 했다. 신혼살림은 본가의 사랑방 뒤 옷방에 차려 장롱 등을 들여놓고 간소하게 시작했다.

그는 혼인 2년 만에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재금 나왔다. 집은 그의 아버지께서 손수 지어 주셨다. 그가 큰 아들을 낳고 분가할 때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당시만 해도 아직 태평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재금나서 살던 집에서 호롱불을 켜고



사진 2. 2018년 7월. 우종실부부의 다정한 모습

2~3년을 더 살다가 전기가 들어왔다. 박정희대통령 때 비로소 전기가 들어와 시골마을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농가에는 통일벼라는 다수확 품종이 보급되어 쌀 생산량이 늘었다. 홍수가 나는 해에는 수해로 독이 무너져 온 논이 물에 잠겼으나, 박정희대통령 덕분에 금강댐을 만들면서부터 수해걱정이 사라지고 해마다 풍년을 맞이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으로 지붕계랑 사업을 하여 온 동네의 초가집이 함석이나 기와집으로 바뀌었다. 그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한 박정희대통령에게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6. 거금을 들여 대금을 사고 부산에 내려가 대금산조를 익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그의 나이 26세. 어머니 회갑을 지낼 때 일이다. 그의 어머니가 을묘생이니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 105세가 될 것이다. 그 때 어머니는 을묘생 남자 동갑과 계를 했는데, 이분들이 면내에 모여서 합동회갑잔치를 했다. 그날 어머니 회갑잔치에 갔더니 회갑을 맞은 동갑이나 손님 중에 시조창하는 어른이 꽤 많았다. 그 때 그는 대금할아버지 강신철을 처음 만났다. 합동 회갑잔치 순서 중에 시조연주가 있었다. 그는 시조 반주를 하는 어르신 강신철이 여러 개의 대금을 놓고 부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연회가 끝난 후 강신철을 찾아가 인사하고 대금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에게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대금할아버지 강신철선생은 대전의 용두동에 살고 있어 직접 가르침을 받기는 힘들었다. 강신철은 얼마 후 부여국악원을 통해 대금을 보내왔다. 그는 부여국악원 박홍남원장을 찾아가서 쌀 다섯 말을 값을 치루고 대금을 받아왔다. 지금 시세로 하면 쌀 열 가마 정도 되는 금액이다. 당시 부여국악원에는 대금이 없고, 단소만 2개 있어서 대금을 구입한 후 혼자 연습했다.

그의 예사롭지 않은 대금실력을 본 마을 어른들이 대금명인 조창훈을 찾아가 배우라고 권했다. 조창훈은 당시 청와대에서

박정희대통령에게 대금과 단소를 가르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악사였다. 조명인은 국악사양성소 1기생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그는 조창훈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농한기를 맞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출가한 그의 여동생이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처는 쉽게 마련되었다. 그런데 그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조창훈은 이미 부산을 떠나고 없었다. 대금명인에게 사사할 기회를 놓친 그는 크게 실망했지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온천장 근처에 사는 젊은 사람이 대금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현재 서울의 한양국악사를 하는 송복새(본명은 부억새)에게 강백천류 대금산조를 배웠다. 그때부터 농한기에는 어김없이 부산에 가 머물면서 대금을 배웠다. 그때 부산에서 강백천류대금산조로 잘 알려진 강백천명인을 직접 뵈기는 했으나 당시 강명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직접 배우지는 못했다고 한다. 강백천은 대금산조 명인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기능보유자다.

7. 쌍골죽을 찾아 전국을 누비다

우중실은 청양에서 이름난 대금장이다. 그는 "대금은 공예품이

아니다."라며 힘주어 말한다. 그는 음감이 좋아야 좋은 대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대 초반 어느 날, 그는 대금을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두동에 찾아가 악기제작법을 배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대금을 만들었다. 대금제작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좋은 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대금은 쌍골죽(왕대)을 써야 한다. 그런데 청양에는 쌍골죽이 나지 않았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전북 금마까지 가서 왕대를 찾았다. 중산리에서 금마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거리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의 나이 40대 초반 겨울에 쌍골죽을 찾기 위해 고창으로 갔다. 그는 산청, 하동까지도 가서 재료를 구해왔다. 그는 지리산 산청에 대밭이 좋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직접 찾아갔다. 그는 트럭을 하루 전세 내어 오토바이를 싣고 산청에 도착해서 트럭은 돌려보내고 여관을 잡아 놓고 혼자 대나무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산청에 대나무는 많은데 쌍골대가 없어서 결국 구하지 못했다. 쌍골대는 원래 귀하다. 그가 빈손으로 산청을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 60령고개에서 잠시 쉬다가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기적처럼 쌍골죽 몇 개가 보여서 구해서 왔다. 이처럼 쌍골죽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단 한 그루라도 발견하는 날이면 심마니가 산삼을 캔 듯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대금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는 추수가 끝난 11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가 적당하다고 한다. 여름엔 대나무에 물기가 많아 무르고 윤기가 없다. 그가 어렵게 구한 쌍골죽을 집에 가져온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을 빼는 일이다. 채취해 온 대나무는 3차에 걸친 건조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본격적인 대금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 1차 건조기간은 3~4개월 걸린다. 2차 건조과정에서는 비뚤거리는 대나무를 반듯하게 펴는 일을 한다. 마지막으로 3차 건조까지 해야 재료 준비가 끝난다. 대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건조과정만 대략 5~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8. 지천명에 이르러 농사를 작파하고 음악에 전념

현재 우종실은 외부활동이 없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대금을 만들거나 대금을 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인회관에 나와 성균관유도회 회원들과 시조창을 하거나 시조반주를 하는 것도 그의 일과 중 하나다. 이렇듯 그가 농사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금제작과 연주에만 매달려 살아온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되었다.

그는 50세 때 농사를 그만 두었다. 부인에게는 폭탄선언과 같았지만 이는 그가 평소에 마음에 품어왔던 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었다. 그때까지는 농사일 하는 틈틈이 대금을 배우고 연주 해왔지만 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터였다. 그들 부부 슬하에 6남매 자녀가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는 없었다. 그는 “6남매 자식들 키우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고, 좋아해도 빠져들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나이 지천명이 되었을 때에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거칠 것이 없었다. 이르자면,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광대놀음을 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가 농사일을 그만 둔 후에는 온 종일 음악에만 몰두하니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그는 자고로 시조반주자는 시조창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시조창하는 어른들하고 인연이 되어 시조반주를 하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조창훈의 시조테이프를 듣고 모방하여 시조반주 연습을 했다고 한다. 어르신들 시조반주를 해주다가 시조창까지 배우게 되었다. 시조의 사설에 담긴 내용이 좋아 더 열심히 배웠단다. 시조창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는 시조창이 그와 가장 잘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마음이 따르는 것은 대금이다. 대금은 그에게 특별한 음악인생을 살게 한 악기로서 그와 땀레야 땀 수 없는 관계다.

하루는 내포제를 정리한 김상우가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전국

대회 반주에 못 오게 됐다. 급히 중앙본부에서 시조전국대회 반주자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반주를 한 후 인정받아 지금까지 계속 초빙되어 나가고 있다. 국악경연대회 반주자로 나가게 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기능보유자 김월하 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월하가 시조연합회 단체장 시절에 만났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것처럼 매우 검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그는 전주대사습대회를 비롯한 전국의 굵직한 대회에 반주자로 초빙되어 연주하고 있다. 시조창 반주자로서 누구와도 겨룰 자신이 있다. 대회 반주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을부’와 ‘갑부’는 반주 없이 독창으로 하고, ‘특부’, ‘명창’, ‘대상’부 경연에 반주가 들어간다.

그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내포제 시조가 원형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동규선생이 부른 내포제 시조는 석암 정경태 시조를 정리한 것이다. 박기옥, 유종구, 고민순 등이 석암의 1호 제자다. 시조음악을 정리 할 때, 서동규선생이 인천의 김상우에게 채보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전이란 것이 매년 부를 때마다 소리가 다르니 채보할 때 애먹었다고 한다. 연주할 때 마다 가락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채보과정에서 원형과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석암제 시조를 배웠다. 현재 태평마을 노인회관에서 몇몇

노인에게 시조창을 가르쳐 함께 부르고 있다. 2018년 8월 1일, 무더위가 한창인 그날. 그는 친구이자 성균관유도회 정산지부청남지회 회장인 윤길선을 청하여 평시조 ‘청산이 불로하니’와 사설시조 ‘세상공명 부운이라’를 선보였다.



사진 3. 2004년 산 정상에서 노스님과 함께



사진 4. 2018년 7월 성균관유도회 회장 윤길성과 함께

〈평시조〉

청산이 불로하니

청산(靑山)이 불로(不老)하니 미록(麋鹿)이 장생(長生)하고
강한(江漢)이 무궁(無窮)하니 백구(白鷗)의 부귀(富貴)로다
우리는 이 강산풍경(江山風景)에 분별(分別)없이 늙으리라

〈사설시조〉

세상공명 부운이라

세상공명(世上功名) 부운(浮雲)이라 강호어옹(江湖漁翁) 되오리다
일엽편주(一葉片舟) 흘러저어 임기소지(任期所之)하울적에
만경창파(萬頃蒼波) 넓은물에 호호탕탕(浩浩蕩蕩)떠나간다
주경(舟輕)하니 산사주(山似走)요 파급(波急)하니 야여주(野如走)라

〈축혼가〉

하늘이 정한 배필

하늘이 정한 배필(配匹) 백년가약(百年佳約) 오늘이라
생민(生民)의 예절이요 만복(萬福)의 근원이라
비나니 부귀영화(富貴榮華)를 길이길이 누리소서

* 어느덧 80고개에 다다른 대금 연주자 우종실은 사랑하는 손자손녀의 결혼식 때 축하 연주를 도맡아하고 있다. 축주곡은 석암의 창작시조 ‘하늘이 정한 배필’이다. 가정을 이루어 새롭게 출발하는 손자손녀에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축복의 메시지로써 이만한 곡이 없을 듯하다.

[민속학에서 본 우종실의 생애사적 의미]

민속학은 예로부터 전승된 민중들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민간에 전승된 전통문화를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개 한 민족의 역사적 기록은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인식될 만큼 피 지배계급의 생활상이나 철학, 관습, 예술 등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충분한 문헌자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작업으로 민속학자들은 현지조사(field-work) 방식을 선택한다. 현지조사는 매우 역동적인 연구방법으로 제보자 면담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나 정보의 내용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우종실의 사례가 그러하다. 우종실은 청양군 내에서 뛰어난 대금연주자로 소문이 자자했고 이미 언론에도 몇 차례 조명되었기에 기록된 자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보자 우종실의 연주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의 전 생애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향토음악가 우종실의 생애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종실은 청양의 토박이 대금연주자로서 대금연주와 대금 제작까지 겸하는 청양 유일의 대금장이다.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 된다. 그는 우연을 필연으로, 나아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

여 대금연주자가 된 사람이다. 첫 번째 우연은 여섯 살에 들었던 통소소리와 관련된다. 난생 처음으로 접한 그 통소소리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소리(음악)였다고 한다. 통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감흥을 기억한 그의 예술적 감수성은 그가 청양의 대표적인 향토음악가로서, 대금제작자로 자리 잡게 한 핵심요인이다.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열 살 때 일로, 폭우로 금강이 범람했을 때 황톳물에 함께 떠내려 온 단소로 둘째 큰아버지께 배우게 된 일이다. 세 번째 사건은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 어머니 회갑잔치에서 시조반주를 한 대금할아버지 강신철과의 만남이다. 그는 대금연주자 강신철에게 대금을 구입하고 단소를 불던 실력으로 독학으로 대금연주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는 농사에 전념하며 농한기에 틈틈이 대금을 배우고, 쌍골죽을 찾아 지리산까지 다녀오는 등 음악을 향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청양에 석암제 및 내포제시조를 전승한 가객들이 많았던 점이 그가 시조반주와 시조창을 익히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중실의 생애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학교 취학연령의 다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이유로 취학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 동급생 중에는 그보다 7~8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도 중미마을에 서당이 남아있어 보조적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다. 그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덕분에 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조창을 배우고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현재 그는 청양군의 대표적인 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대되는 유명 연주자다. 또한 국악계의 대표적 행사인 전주대사습대회를 비롯한 전국의 굵직한 대회에 시조반주자로 초빙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종실의 생애사적 의미는 그가 시조창을 대중적으로 즐겨 부르는 청양지역에서 성장하여 시조반주와 시조창을 배우게 되었고,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하여 벌써 30년째 향토음악가로서 활약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그는 청양군 향토유적 10호 대금장의 기능보유자로서 전통적인 제작방식으로 제작한 대금을 연주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이룩한 대금연주 및 대금제작 기법을 전수할 후계자를 발굴하여 청양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 하면 뭇 혀, 밤낮 울어서 반평생을 살아씨유”

1. 걸어서 청양까지, 경상도에서 청양으로 이주한 부모님

모진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처럼 구순이 넘도록 태어나고 자란 중산리를 떠난 적이 없다. 90년이 넘도록 말없이 한 곳을 지키며 살아온 중산리의 산 역사가 여기 있다.

주기에의 부모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경상도를 떠나 청양으로 이주했다. 전 재산인 땅 한 섬지기 갖고는 살기 힘들어서 그 땅을 팔아서 먼 길을 걸어와 이 곳 중산리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경상도에서 충남 청양까지 걸어서 온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니 막연히 짐작해 볼 뿐이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그 여정에서 그의 부모는 홍역으로 아들 삼형제를 모두 잃었다. “아들 삼형제하고 부모하고, 내외하고 오는디. 오다 자고 오다 일하는디 있으면 해주고 해서나 맨 날 메칠 걸어서 몇 년 왔데여 여기를. 그리서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의 부모는 노중에서 아들 삼 형제를 잃고 단 둘이 중산리까지 왔다.

부모님이 중산리에 정착했다고는 하나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 산 속에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의 부모는 천성이 부지런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궂은일을 당하면 성심껏 뒤를 봐주었다. 그 당시에는 홍역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다. 병원도, 변변한 약도 없어 “모다 홍역 들어오면 한 집에서 둘도 죽고”했던 시절이다. 그의 부모도 노중에서 아들 삼형제를 홍역으로 잃었기 때문일까. 인물 좋고 사람 좋은 그의 아버지는 주민들이 홍역으로 죽은 어린아이들을 장사지낼 때 쫓아가서 함께 도와주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옆에서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궂은일에 앞장섰다고 한다. 그래서 청남면에서는 “맘씨 좋은 것은 주세환”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의 어머니는 손끝이 야물고 솜씨가 좋아서 남의 집 베를 메주고 베도 짜주면서 품을 팔았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목표였던 시절, 그의 부모님은 중산리에서 딸 셋을 얻었다. 주기에는 그 중 차녀로 태어났다.

주기에는 1927년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먼저 돌아간 세 명의 오빠까지 합하면 6남매 중 다섯째다. 위로는 어린 시절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세 명의 오빠가 있고, 중산리에서 태어난 언니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년시절의 기억은 ‘배고픔’이었다. 가진 것이라고

산 속에 지은 움막이 전부였던 그의 부모님은 품 팔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 부모님은 먼저 낳은 아들 삼 형제를 잃었던 터라 다시 낳은 딸 셋을 지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한다. 아버지가 품을 팔아서 가족을 먹이려면 이레를 일해야 겨우 쌀 한 말을 팔았다. 품 파는 것도 여름 한 철이지, 겨울에는 그 일조차 없어 온 가족이 굶는 것이 예사였다. 배고픈 유년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세상천지. 시국 잘 못 만나서 그렇게 고상을 했어”라고 시대를 탓할 뿐이었다.

온 가족이 굶거나 멀건 죽을 먹으면서 빈궁하게 살았지만 부모님은 자녀교육에 엄격하셨다. 그의 어머니는 얌전하고 말이 적은 분이셨다. 하루는 기예씨를 크게 나무라신 일이 있다. 어린 그가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받은 음식을 가져다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네가 달라고 해서 가져왔냐, 줘서 가져왔냐? 당체 어머니 갖다 준다고 달라골랑 하지 말어.”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빌어먹지는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2. 14세 소녀, 야학당에 가다

그는 야학당에서 글을 배웠다. 그때가 14세였다. 2년 넘게 야학당에 다녔다. 수업료는 무료였다. 불을 찾아 날아오르는 불나비처럼 야학당에는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야학당을 공회당이라고도 했다. 바쁜 농사철에는 어린 아이들도 농삿일을 거들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했다. 두 칸짜리 한 옥이 전부인 야학당이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학생들이 이 곳에서 공부했다. 선생님은 단 한 분이였다. 이 마을 기와집 셋째아들로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국문을 가르쳐주셨다. 먼저 ‘ㄱ, ㄴ, ㄷ, ㄹ…’부터 배우고 ‘가, 갸, 거, 겨…’를 배웠다. 그는 공부를 썩 잘 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 때 야학당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서로 이름과 얼굴만 알 뿐, 말 한 번 해 건네지 않은 사이였다.

“함께 야학 땡겼어. 이~ 야학 땡겼는디. 청년들 중에 번듯하니 넓적스럽더니 인물이 좋았어. 나보담 허삼 낫더라고. 같이 땡겼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시방은 인물이 좋으니게 말이 가기도 허고 헛을 테지. 그때는 그런 것도 허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러서 쳐다볼 때 함께 얘기도 못했지. 그런 거 하나 없어. 가르키는 거 듣고서만. 가고, 오고 그러

지. 하~나! 말도 안 해봤어. 여자 남자 함께는 못 앉지. 내가 공부를 잘했거든. 이~ 내가 공부를 잘해서나. 국문 배우는 거. 국문 배우는 디. 난중에 ‘가’야 ‘오, 이’야 배가지고서 붙이잖여? 붙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붙혀도 나는 붙혀지데? 그리서 참 기분이 좋데.”



사진 1. 야학당 단체사진 : 1941(2)년 야학당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이다. 왼쪽 원안의 얼굴이 주기에, 오른쪽 원 안의 학생모를 쓴 남자가 그의 남편 임운택씨다. 가운데 갓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야학당의 유일한 선생님이다. 학생들 뒤로 ‘청장면중산리야학당’이라고 써있다. <사진: 중산리 태평마을회관 액자>



사진 2. 2018년 현재 야학당 건물 : 위 사진과 비교해 볼 때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초가지붕이 스테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왼쪽 기둥에 ‘국가유공자의집’이라는 하얀 팻말이 붙어있다. 주기에씨가 살 때 면에서 붙여준 팻말을 지금도 떼지 않고 있

그의 인생에서 야학당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야학당에서 공부를 했고, 그 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당시 비어있던 야학당에 꽤 오랫동안 세 들어 살았다. 현재 그는 야학당 바로 밑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마치 야학당 지킴이처럼.

3. 방년 17세에 위안부 피하러 혼인, “며느리 삼게 나를 달라”

1944년 태평양전쟁이 끝 무렵. 나이 어린 처녀들을 일본군위

안부로 모집해 데려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다. 어머니는 처녀티가 나는 열일곱 살의 기예씨를 보면서 “일본 가면 저건 죽어서 오지.”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린 딸이 위안부로 끌려갈까봐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던 중에 동네 사는 한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럼 우리 며느리 삼게 달라”고 했다. 그게 혼담의 시작이었고 끝이었다.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혼인을 허락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외아들과 함께 단출하게 살고 있었다. 양가의 살림이 뻥하고 서로 가진 것이 없기에 간소한 상차림으로 혼인식을 했다. “죽두리? 썼나 안 썼나 그것도 몰라. 짬새기 신고 온 것만 알아.” 17세 처녀 주기예는 이웃 총각 임운택과 그렇게 ‘동네혼인’을 했다.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급히 혼인은 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신혼부부가 살 집이 없었다. 남편이 나무 밑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마련하여 가난한 신혼살림을 차렸다. 서로가 야학당에서 안면을 익혔음에도, 그들 부부는 혼인 후에도 얼마간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 붙였다. 그는 곧 삼남매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들 둘을 낳고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없는 사람이 자식만 들고 낳는다”며 타박하셨다. 마침 입덧하느라 밥도 못 먹고 힘든 상황에서 그 말쑼을 듣고 많이 서운했단다. 그는 없는 살림에 ‘애만 만든다’고 할까봐 남편과 자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 함께 살아도 “사랑 한다 소리도 못 하고, 그런 소리도 못 하고” 살았다.

3. 남편이 군대 가던 날, “언제 제대 헐디야”

입대 당시 그들 부부는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큰 아들은 여덟 살, 작은 아들 다섯 살, 막내는 겨우 한 살 이었다. 재산이라고는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부잣집에서 본인의 친정아버지 제사를 지내달라는 조건으로 밭 여섯 고랑을 주면서, 농사를 지어서 타작한 후 소출의 반을 가지라고 했다. 군대 가는 날, 남편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밭의 풀을 매놓고 가겠다며 호미를 들고 나섰다. 남편은 호미를 들고 저만치 앞서가면서 “나 없걸랑 나 먹는 양식으로 품사서 곧당없는다. 병나서 죽으면 어떡허겠어”라고 한 마디 했다. 그 소리 한 마디 남겨 놓고 갔다. 가족들을 남겨 두고 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터이다. 주기에는 그렇게 떠나는 남편의 뒷꼭지에 대고 “언제 제대 헐디야, 언제 제대 헐디야.”하고 한탄할 뿐이었다.

남편은 입대 후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 후 채 1년도 못되어 집에 전사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남편이 무사

히 제대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전사자 유골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갔더니, 전쟁 중에 죽은 유골을 지하에 모아 났으니 각자 찾으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유골이 쌓여있는 지하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것이 남편의 유골인지 분별하여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아이구, 나 못 들어가요”라고 외마디 말을 내뱉고 돌아왔다. 지하에 쌓여 있는 유골더미를 상상만 해도 무섭고 끔찍했기 때문이다. 끝내 남편의 유골은 찾지 못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과 영영 이별을 하고 나니 나오는 것이 한숨 밖에 없다. 그럴 때 그가 속으로 읊조리던 노래가 있다. 바로 민요 ‘한오백년’이다.

〈한오백년〉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 오백년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이 노래는 메나리토리의 강원도지방 민요로서 ‘정선아리랑’과

함께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다. 그가 언제, 어떤 경로로 이 노래를 배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도 살기가 원통허니게 넘 허는 소리 듣고 그냥 좇아서 끼었지.”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이처럼 노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저절로 익혔을 것이다.

4. 비싼 장내쌀 마저 빌려주지 않아 “살 수가 없어”

그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다. 베 짜는 일은 죽 먹듯이 했다. 어느날 이웃사람이 그에게 짹베를 짜달라고 했다. 베 두필을 짜면 쌀 한말을 주겠다고 해서 선뜻 받아들였다. 그 때 친정어머니가 나서서 베를 짜는 동안 먹을 것이 없으니 아이들과 먹을 쌀을 미리 조금이라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쌀 한 말에 두 되를 더 얹어 주었다. 그렇게 한 말 두되를 받고 베를 짜기 시작했다. 그런데 베를 한 필 짜고 나니 그 쌀을 다 먹어 버렸다. 베 한 필이 40자니까, 아직 40자를 더 짜야 하는데 식량이 벌써 떨어진 것이다. 베를 짜려면 잘 먹어야 허릿심이 있는데, 나머지 한 필을 짤 때는 밥을 제대

로 못 먹으니 베 짜는 일이 힘이 부쳤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도 없이 자라는 불쌍한 어린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버텼다. 하지만 때로는 그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부부의 연을 맺고 몇 년 못 살았고 살가운 애정표현도 못 해본 그였지만, 과부의 설움이 짙어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한없이 커져만 갔다. 그럴 때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오느니 경기민요 ‘노랫가락’이다.

〈노랫가락〉

가고 못 올 임이면 정이나 마저 가져를 가제
 임은 가고 정만 남으니 밤은 깊어서 야삼경인데
 사람의 심리로서야 병 아니 들 리가 만무로구다

이 노래의 1절 가사는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녀는 가가 재라. 화형제 낙처자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이다. 아무리 가사가 긴 민요라 해도 누구나 1절 가사를 가장 먼저 부르는 까닭에 ‘노랫가락’ 하면 “충신은 만조정이요”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의 ‘노랫가락’은 다르다. 남편이 충신이나 애국자가 아니어도 좋으니 남들처럼 살아서 옆에 있기라도 좋겠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

서 그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가고 못 올 임”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한다.

그는 혼자 몸으로 남의 집 품을 팔아서 겨우 죽만 끓여먹고 살았다.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이 살던 차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이 고통이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 “살 수가 없어. 뭐 끓여먹을 것만 있어도 살것어. 애들 허고, 이~ 입을 것이 있어, 땀 것이 있어? 입을 것도 없응게 방은 또 얼마나 추워.” 그의 가족들은 입을 것이 변변찮아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고, 매일 밥은커녕 죽도 제대로 못 먹어서 늘 힘이 없었다. 당시에는 장내쌀 한 가마 얻어먹고 되값을 때는 두 가마니를 쥐야 했다. 그는 자식들을 마냥 굶길 수 없어 비싼 장내쌀이라도 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형편을 볼 때 쌀을 빌려줘도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부잣집에서 그마저도 내주지 않았다. 그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다. 반쯤 낫이 나간 채 지내던 그 때, 행여나 판 마음을 먹을까 싶었던지 시어머니는 그를 절에 데리고 가셨다. 마음 붙일 데 없으니 부처님의 좋은 말씀 듣고 마음잡고 살라 하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린자식 셋을 키워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한동안 절에 다녔다.

5. 왕진 뒷굽이에서 “풍당 빠져서 죽어야지. 이 세상 못살아나.”

하루는 그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연필과 ‘작기장’을 사주려고 배급으로 탄 보리쌀을 이고 부여장에 갔다. 그는 보리쌀 한 말을 머리에 이고 부여까지 20리를 걸어서 갔다. 아침에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 저녁에도 장에서 죽을 먹었다. 그는 부여장에서 다시 20리 길을 걸어서 오다가 왕진 백사장에 이르렀을 때 기력도 없고 슬픔에 복받힌 나머지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장에 다녀오는데 종일 죽 두 그릇 밖에 못 먹었으니 기운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는 수심이 깊은 왕진 뒷굽이에 가서 “풍당 빠져서 죽어야지. 이 세상 못살아나. 죽어서 아무것도 안 보야지”하고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 물이 거의 배까지 차올랐을 때, 울고 있는 어린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죽으면 늙으신 시어머니와 어린 삼남매가 얼마나 울 것인가. 그 어린 자식들이 동네 밥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행여 두들겨 맞을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죽으려고 자진해서 들어간 왕진 뒷굽이에서 정신없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강가에 주저앉아서 무심한 듯 흘러가는 강물에 이 노래를 띄워 보냈다.

〈노들강변〉

노들강변에 봄버들 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어나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이 노래는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의 신민요 ‘노들강변’이다. 1934년 오케레크드에서 박부용의 노래로 취입한 이 노래는 시대를 대변하는 듯한 애상적인 가락과 대중적인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노래의 선율이 경기민요의 ‘술선법’을 써서 작곡한 까닭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기민요로 알고 있다. 그는 이 노래가 경기민요인지, 신민요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동네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곡조가 그의 마음에 땃혀 절로 익혔을 뿐이다. 같은 노래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른 법이다. 어찌 보면 흥겨운 이 노래가 그가 부르면 모두 쓸쓸하고 애끓는 노래가 된다. 그는 이후에도 한 번 더 왕진 뒷굽이에 가서 깊은 물에 몸을 담갔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또 다시 삶을 선택했다.

그의 큰아들은 공부를 잘 했다. 큰아들이 6학년 졸업반이 되자 그에게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했다. 큰아들은 매일 그를 따라

다니며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울었다. 당시 상황에서 큰아들을 중학교에 보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결국 큰아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시켰다. 몇 년 후 이삿짐을 싸는데 큰아들 학교성적표가 나왔다. “방썰다 보닝께. 성적표가 나와. 성적표를 보니께 ‘상(上)’이라고 해놔어. 큰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 하는 아들을 중학교에 못 보낸 것이 여간 속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놈으걸. 중학교 못가서 울어쑤는 놈으걸. 중학교를 갔다가는 굶어죽게 생겼는디. 못 살겠어서 안 보냈더니” 그것이 두고두고 그에게 한이 될 줄 몰랐다. 그때 공부 잘 하는 아들을 중학교에 보냈으면 잘 됐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아들이 받아 놓은 누린 성적표에 써 있던 글자 ‘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큰아들은 면사무소 소사로 취직했다. 소사는 면사무소 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당시에는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한문을 많이 썼다. 큰아들은 한자를 많이 알고 있어서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도움을 청하면 척척 한자를 써주었다. 그래서 모두 소사인 큰아들을 잘 대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 전 직원이 ‘구경’을 가는데 소사는 사무소를 지키라면서 남겨두고 갔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서서 소사도 함께 ‘구경’을 가야한다고 했으나 면장이 한 명은

남아서 면사무소를 지켜야 하다면서 그의 아들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그게 외갓집이여. 면장네가.” 남도 아닌 조카에게 그리했으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지금도 그 집하고 왕래를 안 하고 있다. 그는 외갓집이 덕이 없어서, 큰아들을 중학교에 못 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6.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아주니 고마워

큰아들은 면사무소 소사를 하다가 얼마 전 정년퇴직 했다. 근면하고 알뜰한 큰아들은 그동안 적은 봉급을 받아서 안 먹고, 안 쓰고 지독하게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고 한다. 현재 큰아들 내외가 주기에씨 집 아래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구순이 넘은 그는 현재 아무런 일도 못한다. 그래서 아랫집에 사는 큰며느리가 와서 청소, 빨래, 음식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며 살뜰하게 보살펴주고 있다. “나 밥 못 해 먹어. 오늘 아침에도 메느리가 방 썰데. 방 쓸고 닦고 허데.”라며 며느리 자랑을 했다. 둘째아들은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현재 논산에서 잘 살고 있다. 그의 친정어머니가 논을 조금 팔아서 둘째아들에게 자본금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토마토 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중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토마토 농사법을 가르쳐주어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농사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둘째아들 내외는 어머니가 종일 마을회관에 내려와 생활하시는 것을 알고 장판, 화장지, 설거지 도구, 음료수, 과자 등등 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사가지고 온다. 막내딸은 오빠들과 다르게 연애결혼을 했다. 남편이 조합에 다니다가 퇴직해서 요즘은 집을 고치느라 바쁘다고 한다. 막내딸은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가서 보살펴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라! 언니가 내게다 얼마나 잘 허는지 아니?”하고 거절했다고 한다.

이렇듯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단다.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자식들이 새 옷을 사다주는 통에 걱정이다. 그럴때마다 그는 이제 그만 사오라고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사오지마. 입을 것 떨어지지도 않고, 그전에 고상했던 걸 생각하면 그것 다 입어야 해. 있는 거”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가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던 시절에 비추어보면 지금 있는 옷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당장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이 궁핍하게 살았던 지난날들이 마치 꿈만 같다. 그는 장자의 호접몽처럼 고통스럽게 살았던 세월이 꿈인지, 지금 이렇듯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꿈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럴 때 마다 손등을 꼬집어보고 아픔을 느끼면서 가난에 치여



사진 3. 구순이 넘도록 살면서 그가 겪은 망고생, 몸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말하면 뒤틀혀.” 짧은 한 마디에 한스런 그의 삶이 보인다. 그는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별 얘기를 다 허네”라고 말하면서 마치 물어봐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 둔 지난 이야기들을 하나 둘 꺼내놓



사진 4. 남편의 생명과 맞바꾼 ‘국가 유공자의 집’ 패. 20대 청년의 몸으로 떠나간 남편은 이렇듯 작은 패로 돌아와 구순노인이 된 그의 곁을 지키

7.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해

주기에는 부모슬하의 6남매 중 유일한 생존자다. 언니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언니가 일찍 떠난 후 그 에겐 유일한 혈육이었던 여동생도 지난 6월에 돌아갔다. 그는

모두가 가기 길을 떠났고, 이젠 그도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시방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겨워. 얼른 죽어야지. 이 달에 죽을지, 세 달에 죽을지 알도 못혀.”라며 한탄 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여기 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겹다고 한다. 깔끔한 성격의 그는 혼자 힘으로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걷기 힘들어도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걸어내려 오고, 이어서 마을회관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걸어서 갔다 온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고~ 오줌 똥 못 똥다가는 바로 여기 실어 간데야. 암만 부자래도 소용없다고 혀.”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노인들이 치매가 걸리거나 운신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요양원으로 모신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그가 전통상례에서 행하는 꽃상여를 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살던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싶을 뿐이다.

주기예는 요즘 부쩍 친정어머니 생각이 난다. 친정어머니는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다. 그가 햇볕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친정어머니는 양지바른 본인의 집과 맞바꾸어 주

었다. 그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인 논 다섯 마지기를 팔아서 고생하는 딸에게 다 주고 떠나셨다. 친정어머니는 그에게 ‘아낌 없이 주는 나무’였다. 그 때 친정어머니께서 “너 나 때문에 호강하는 줄 아니?” 하며 물었을 때 “어머니 때문에 내가 호강해서 잘 살어!”라고 그 말 한마디 해드리지 못한 것이 가슴에 맺혀있다. 그는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세상 보고 살라고 하느님이 봐주신 것 같아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의 하느님은 ‘하늘님’ 곧 하늘(天) 이다.

그가 아는 노래 중 비교적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경기 민요 ‘청춘가’다. 다른 노래도 그랬듯 이웃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귀동냥하여 배웠다. 그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나, 음정이나 박자가 매우 정확하다. 특히 민요장단의 맺고 끊음과 가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흥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청춘가〉

일본 대판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날두고 (쥬~~다) 연락선 타나요
 아서라 말어라 내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곡새를 (쥬~~다) 내그리를 말어라.

그는 이 노래 또한 “이팔청순에 소년몸 되어서”로 시작하는 다소 발랄하고 희망적인 가사를 뒤로 하고,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 “일본대판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날두고 연락선 타나요”를 선택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만큼 그는 노래를 자기표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는 오늘도 마을회관의 단짝친구 전예근과 함께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이 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를 선창할 것이다.

여전히 그의 기억의 대부분은 결혼 이후에 겪은 남편과의 사별과 홀로 자식을 양육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런 시간들로 가득차 있다. 중산리 토박이로 91년을 살면서 그의 기억에 지배적으로 각인된 것은 ‘가난’이다. 경제력을 잃고 경상도를 떠나와 중산리에 정착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가난은 그의 결혼생활과 자녀양육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전 생애가 가난으로 점철된 것은 비단 그의 가정환경 뿐 아니라 시댁의 빈곤과 남편의 죽음 또한 큰 몫을 차지했다. 남편이 6.25한국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시댁이 미약한 정도라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의 삶이 것처럼 곤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느덧 지나온 90년의 세월 따라 희미해지는 기억만큼이나 그의 가슴에 맺힌 아픈 기억도 이제는 조금씩 잊혀지기를 바란다.

주기에는 구순을 넘긴 노인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특히 시력이나 청력 등의 지각능력에 문제가 없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는 타고난 깔끔한 성격으로 작은 휴지조각도 방바닥에 버려두지 않으며 옷매무새도 항상 단정하다. 올곧은 성품의 그는 평생 가난과 싸우면서도 결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베짜기, 삶바느질, 밭일 등을 하며 떳떳하게 떳떳하게 생계를 해결해왔다. 그는 현재 마을회관에 나오는 사람 중 최고령자로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타인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감정을 돌보고 스스로 부정적인 말은 삼가고 있다. 그는 ‘어느덧 눈은 부지런하고 입은 게으른’ 지혜로운 대방 노인이 되어 태평마을의 영원한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다.

“딸은 사람도 아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혀”

1. 여섯 살에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살이 시작

전예근은 1932년 7월 27일에 청남면 동강리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위로 언니가 한 명, 아래로 남동생이 두 명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서울에 올라가 돈을 벌어 기반을 잡은 후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불러들였다. 1937년에 온 가족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 그의 부모님은 서울 홍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다. 식당은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어서 얼마 안가서 식당건물도 새로 짓고, 그 옆에 가옥도 신축하여 살림집으로 썼다. 덕이 많은 아버지는 고향에서 올라온 동향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그 때문인지 고향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장사를 나갔다. 그는 6세 이전 고향에서 살던 기억은 전혀 없다. 대신 그가 6살에 서울로 이주한 후 홍제천이나 주변 공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기억이 선하다.

그는 평생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어머니가 국민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여러 번 그를 데리고 학교에 갔지만 그 때마다 학교에

서 도망쳐 나왔다. 칼 차고 있는 일본인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오빠들이 공부 못 하면 시집을 못 간다고 하여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촌 오빠들이 ‘국문’을 적어서 그에게 한 글자씩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그는 오빠에게 틈틈이 글을 배워 자신의 이름은 물론 간단한 책읽기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두 명의 남동생들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6.25한국전쟁이 나서 학업을 그만두었다.

그는 10대의 대부분 시간을 양말공장에서 보냈다. 그의 집에서 걸어서 갈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양말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애들이 많았다. 그의 언니도 같이 그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다. 점심은 집에서 싸가지고 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점심 먹고 난 후 남은 시간에는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는 공장에서 사귀 친구와 언니들에게 노래를 많이 배워서 불렀다. 그는 노래를 구전으로 배웠다. 특별하게 마음먹고 배운 노래가 아니라 “넘 허는 거 보고 그냥, 허는 대로” 따라서 부르다 보니 꽤 많은 곡들을 익힐 수 있었다. 그 때 익힌 노래가 그의 인생의 노래의 전부였다.

〈노랫가락〉

노자 젊어서 놀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며는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청춘가〉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좋~다) 다 늙어 가누나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 살어나~~
살어 생전에 (좋~다) 맘대로만 놀어 보자

〈태평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허나 성화를 나서서 무엇허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노지는 못하리라.
니나노 놀리리야 놀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훨훨 꽃을 찾아서 날어든다.

〈노들강변〉

노들강변에 봄버들 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 칭 동여서 매어나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이렇듯 그가 처녀 적에 양말공장에서 배운 노래는 대부분 경기민요다. 당시만 해도 경기민요는 서울·경기지역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는 노래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양말공장식구들하고 꽃놀이라도 가는 날이면 그는 신나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종일 놀고 즐기며 노래 실력을 한껏 뽐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노래하면 사람들은 “목소리 청이 좋다”고 칭찬을 했다. 그가 이런 노래들을 배워서 시집을 왔는데, 중산리에 와보니 이곳 사람들은 이 노래를 전혀 알지 못했단다. 그 당시만 해도 중산리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서울에서 부르는 경기민요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명절 때만 되면 그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노래를 시켰다고 한다.

2. 하늘이 맺어준 인연, 전쟁을 피해 중산리에 내려와 혼인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온 가족이 피난집을 싸서 중산리로 내려왔다. 그가 피난 와서 보니 서울 식당에서 보아온 얼굴이 많았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산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다. 난리가 나자 그 사람들은 먼저 고향에 내려왔고, 그들은 객이 되어 돌아온 예근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동네사람들은 서울에 있을 때 신세졌다면서 예근씨 가족에게 쌀, 된장, 잡곡 등을 가져다주었다. 난리가 가라앉은 뒤 예근씨 아버지가 서울에 가보니 식당이 폭격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다. 살림집은 그들이 피난 오기 전에 건물 벽 한쪽이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나마 서울땅을 팔아서 중산리에서 논 네 마지기와 집을 샀다. 덕분에 그의 가족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사이였다. 작은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예근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침과 저녁식사를 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 장사를 하던 그는 심난한 얼굴로 식당문 밖에 서 있던 날이 많았다. 남자의 사정을 모르는 그로써는 장승처럼 서 있는 남자를 보며 “저 니는 왜 저렇게 섰나.” 생각했다. 그 때 예근씨 나이는 14세, 남자의 나이는 18세였다.

“그 시대에는 여자 남자 말만 해도 총각 처녀가 말만 해도 큰일나는 줄 알았어. 얼마나 그랬는디. 지금이니게 연애도 허고.. 그때는 총각하고 말 허면 큰일 나지. 아휴. 옛날에는 큰일나지”

그로부터 6년이 흘러 그의 나이 20세, 남자의 나이 24세에 결혼상대자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예근씨네 가족이 중산리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 혼담이 오갔다. 아버지가 신랑의 사주를 갖고 와서 보니 서울 대문 앞에서 매일 서 있던 그 사람이었다. 혼담이 오가기 전 그의 남편은 희한한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쭉쭉 뺏아서 빨간 댕기를 하고 있는 예근씨가 나타났다. 소복차림의 한 처녀가 남편 앞으로 와 절을하는데 얼굴을 보니 서울 식당에서 많이 보던 처녀였다. 남자는 꿈에서 깨어난 후 “꿈도 참 이상하다. 그 여자가 연대까지 시집을 안 갈 리도 없고, 여기도 올 리가 없는데... 그 여자가 내한테 와서 이렇게 절을 허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아침 중신애비가 사위자리를 보러 왔다. 중신애비는 예근씨의 집안 어른이었다. 그 분은 한 때 서울에서 장사를 했고, 예근씨네 식당에 자주 와서 밥을 먹곤 했다. 집안어른이 사주를 해가지고 가서 남자에게 주니 신부될 사람이 바로 그 꿈속의 여인, 예근씨였다.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남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알고 당장 혼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예근씨는 혼담이 오간지 며칠 만에 사주단지를 받고 혼인을 했다. 혼수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었다. 예근씨 나이가 20세였

으니 당시로서는 혼기가 꼭 찬 나이인지라 혼사를 대비하여 서울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었다. 치마, 저고리, 이불감 등등을 피난길에 다 싸 짊어지고 왔단다. 그의 혼인날, 가마도 못 타고 걸어서 신랑집으로 갔다. 신랑집까지는 냇물 하나만 건너면 되었다. 큰 아버지가 후행을 서고, 산지기가 옷 보따리와 이불 보따리마저 등에 짊어지고 왔다. 그는 혼인 전에 신랑 얼굴도 못 봤다. 그는 대례를 치를 때도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었다. 신방에서 신랑 얼굴을 보니 서울 살 때 “만날 대문이가 섰던 사람”이었다. 중매로 결혼을 하면 보통 신랑 얼굴도 모른 채 대례를 치뤘다. 그 때는 모르는 남녀가 말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는 “지금이니게 연애도 혀고.. 그때는 총각하고 말 혀면 큰일 나지. 아휴. 옛날에는 큰 일 나지”라며 말 그대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속담이 통하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결혼을 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신랑하고는 어렵기만 혀지. 좋은가, 어쩐가, 사랑헿가. 그런 거 없이 살 혀어. 내외간에도 얼마나 쑥스럽고, 넘 부끄럽고. 어렵다고 혀다.” 그 때는 부부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신랑과 함께 근친을 갔다. 그가 근친갈 때 시댁에서는 떡과 술을 준비해주셨다.

3. 시집살이, “니째냈는디 이번에 또 딸 나면 죽어번질라고.”

그가 스물세 살 된 해부터 베를 짰다. 시집온 지 3년이 지난 때였다. 신혼기간에는 시어머니와 큰동서가 길쌈을 담당하고 예근씨는 바느질을 맡아 했다. 그가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이다. 친정어머니는 “시집가면 바느질해야 산다”며 일찍부터 바느질을 가르쳤다. 그의 시부모와 큰동서네 가족까지 합하니 바느질 분량이 항상 많았다. 그는 가족들 버선도 만들고, 치마와 저고리도 꼬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너 재급나면 어떻게 살을래? 길쌈을 해야 입고 살지. 너 그것만 허지 말고 질쌈 배여”라고 명하셨다. 그는 무명길쌈을 위해 목화를 재배하고, 솜을 타서 미영 잡는 법, 모시 짜서 삼는 법, 베틀에 앉아 베 짜는 법 등 베짜기 전 과정을 배웠다. 이후 그는 베를 짜서 식구들 옷을 만들고 양말도 떠서 신었다. 여성노동의 대명사로 불리는 길쌈은 많은 노동이 필요한 일이었다. 베를 짜기 시작한 날부터 예근씨는 길쌈과 바느질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당시 그의 시대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다. 항상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쭉을 뜯어다가 밥을 해먹었다. 매일 밥상에 오르는 것은 쭉과 시레기 같은 나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배고픔 보다 힘든 것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였다. 신혼 시절 남편은 그에게 공

부를 가르쳐주었다. 남편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터였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고 못마땅해 하셨다. 시어머니는 “연대 안 배운 놈의 공부를 시집와서 공부할리냐”며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었다. 시어머니 등쌀에 그는 결국 저녁공부를 그만 두었다. 그의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마음껏 책을 읽었다. 책은 그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것이었다. 그는 “그 책을 자꾸 읽고 보고 허니께 늘더라고. 그래갖고서 허는디. 바빠 갖고. 밤이나 낮이나 일허느라고 그거 허는 새가 없어서 완전히 못 뻐어” 라고 그 때를 회상했다.

집 농사는 남편이 짓고 예근씨가 남의 집 품을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아침부터 해가 저물도록 일하면 5,000원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쉬지 못하고 다시 가사노동을 해야 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분부대로 ‘등거리 점뱅이’를 손으로 꼬매 놓고 자야 했다. 너무 졸려서 일을 못 마치고 잠 드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그는 아이들 일곱을 낳아 기르면서 애설 때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어봤다. 그것이 한이 되었다. 그는 “그냥, 보리밥, 죽 그런 거 먹고 ”그렇게 애들을 낳았다. 그는 요즘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면 임신부가 입덧 한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히 누워있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는 “세상에 부럽고 말고, 애선다고 드러누워 있고, 나는 그냥 토약질 해가지고, 그냥 굶어가매 일만 허고.” 그렇게 살게 했다면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임신 당시 못 먹고 고생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가 첫 딸을 낳은 후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강도가 세졌다. 그가 첫째 딸을 낳고 둘째도 딸, 셋째도 딸! 이렇게 내리 셋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낳을 먼저 낳어. 거듭 딸을 낳을 낳고 나 눈물 마르지 않고 울었어. 구박해서, 기집애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을 못 낳은 죄로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살았다. 그는 아이를 낳은 후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고 출산한 지 삼일 만에 목욕하고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을 해야 했다. 그는 산후 삼일 째 되는 날부터 도리깨질도 하고, 벼도 훑고, 방아도 찼었다. 하지만 첫째부터 아들을 낳은 큰 동서는 대우를 받고 살았다. 한 집에 사는 며느리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 그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딸은 사람도 아녀. 사람으로 취급도 안혀. 지지배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혀” 라면서 억울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그 때에 딸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했다.

“큰 동세는 아들만 낳고, 나는 딸만 나. 그렇게 성님은 막 일도 안 시키고 애 데리고 놀다오라고 허고, 나는 막 집이서 일만 시키고. 일 허고 나면 빨래, 그 많은걸 혼자 빨을래면.. 다 빨도록 울고 와. 시암에서. 성은 좋은 방에 가서 애기 델고 놀다 오니라 하고, 나는 딸 낳다고 집이서 일만 시키고. 보리밥 주래야! 지집애 낫다고! 그 소리를 날 듣는디 허는디. 시어머가. 큰 동세는 밥해주잖어. “지집애 낳응게 보리밥 줘!” 아! 아들을 나면 쌀밥해 준다고 쌀을 뒀어, 한 말. 그랬는디 지집애 낳응게 보리밥 주래야. 얼마나 울었었어. 나~~ 딸 싯 낳고 무~~진장 울었어. 세상에 니째 아들을 뻘어. 니째 뻘는디 이번에 또 딸 나면 죽어번질라고! 못 살어! 못 살어! 신랑도 그렇게 구박허더라고. 똑같어! 식구가 다~! 사람으로 취급들을 안혀. 나를. 그렇게 허고서는... 벼게가 흠뻑흠뻑 젖도록 울었어.”

아들을 낳은 큰 동서는 집안일도 안 시켰다. 시어머니는 큰 동서에게는 아들 낳느라고 고생했다며 기운 나는 음식을 해서 먹였다. 하지만 딸만 낳은 그에게는 보리죽이나 줄 뿐이었다. 그는 산후 삼일 째 되는 날부터 힘든 일을 하고 다녀서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호락질로 모를 심고 나니 죽을 것처럼 아팠다. 그는 “세상에 물이 단테 마다 아퍼 갖고, 밤~새 잠을 못자고, 그렇게 사는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면 그의 얼굴과 온몸이 터질 듯 부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줄 방법은 그가 아들을 낳는 것뿐이었다.

4. 아들 낳고 찾은 광명, “우리 큰 아들 낳고서 좋아갖고 이레를 잠이 안와.”

10월 12일 새벽, 전예근은 넷째 아이를 낳기 위해 강강언 짚을 깔고 누웠다. 딸을 셋이나 낳은 그를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 차가운 짚 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넷째 아이를 기다렸다. 넷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했다.

“세상에 넷째 낳는다. 시월 열 이튿날 낳어. 큰아들, 그때는 짚 깔고 낫잖여. 강강얼은 놈의 짚을 방에다 갖다 던져주더라고. 그놈을 깔고 앉으니께 추워서 막 떨려. 그러더니 애기 낳라고 힘을 주니께 떨리는게 가라앉어. 이렇게 앉아서나. 앉아서 쑥 빠진 게, 부랄잡이가 달렸어. “울 애기 자지 달렸어~~”하고 소리를 지르니께 웃방에서 셋이 자다가 다 넘어오고, 지 아버지는 놀란 토끼마냥 앉았어.”

그는 만일 네 번째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그만 죽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쑥 빠진 게” 보니 아들이었다. 그는 개신장군이냐 된 듯 새벽에 동네가 떠내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는 “울 애기, 자지 달렸어!”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딸 낳은 죄인이 되어 설움 받으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

처럼 지나갔으리라. 하지만 그의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미역을 사다 놓지 않았다. 그 날 그는 귀한 아들을 낳고도 흰쌀밥에 미역국을 먹지 못해 몹시 원통했단다. 그는 큰아들(넷째)을 낳고 날이 새도록 그냥 앉아있었다. 날이 샌 후에야 시어머니가 흰 쌀 밥과 미역국을 주었다. 그가 너무나 먹고 싶던 흰 쌀밥과 미역국이였다. 그가 딸을 셋 낳는 동안 보리죽만 먹었던 지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단다. 그는 “우리 큰 아들 낳고서 좋아갖고 이레를 잠이 안와. 하도 좋아 갖고, 너무 좋아도 잠이 안 오데.”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사진 1.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57년 전 예근씨 부부가 분가할 때 남편이 직접 지었



사진 2. 이사 올 때 들여놓은 돌절구. 이 절구로 그가 50세가 될 때까지 숫하게 방아를 찧고 살았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나서 그도 대우를 받게 되었단다. 그 날 이 후부터 신랑한테 대우 받고, 시부모님한테 아들 낳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는 큰아들을 낳은 후에는 아들 삼 형제를 내리 낳았다. 이로써 그의 아들 한이 풀렸다. 그에게 아들이 생긴 후부터 좋은 날만 계속되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그저 좋았다. 그날 이후 그에

게는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으니 노래하고 춤추며 살았다.

그의 나이 서른에 시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 재금났다. 집은 남편이 등짐을 날라와 흙을 개서 직접 지었으며, 조금씩 보수하여 57년을 이 집에서 살고 있다. 그가 재금날 때 들여놓은 돌절구로 보리방아, 쌀방아, 떡방아를 숫하게 찧었다. 그가 50세가 될 때 까지 그 절구로 방아를 찧어 밥을 해 먹었으니

20년이나 그의 밥상을 책임졌던 귀한 물건이기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분가한 후에도 시부모님 빨래 수발을 도맡아 했다. 맞이인 시숙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큰동서가 시부모님 빨래수발을 하지 않아 그 일이 둘째인 예근씨의 몫이 되었던 것이다. 매일 바지저고리를 빨아서 꼬매 드리고, 지어서 갖다 드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는 한 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바지, 저고리, 버선, 양말 등등의 빨래 수발을 들었다. 그가 항상 웃는 낯으로 시부모님을 대하며 성심껏 봉양했기에 부모님도 좋아하셨을 뿐 아니라 집안이 평안했다. 그의 말없는 봉사와 희생에 보답하듯 부잣집으로 시집간 둘째 시누가 땅 열 마지기를 사주어서 그 때부터 배부르게 밥 먹고 살게 되었다.

5. 길쌈 대신 ‘수건 뜨기’ 부업으로 소득 올려

1960년대 후반 무렵 중산리에 길쌈노동이 점차 사라지고 ‘수건 뜨기’부업이 부상했다. 올해로 53세가 된 셋째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동네에 길쌈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의 셋째 아들의 나

이로 환산해 보면 1968년경으로 추정된다. 그의 큰동서는 이미 ‘수건 뜨기’를 배워서 잘 떴지만, 그를 비롯한 동네 아낙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새로 배워야 했다. 베를 짜는 것보다 ‘수건 뜨기’가 더 수익이 크다는 말을 듣고 그도 베틀에서 내려왔다. ‘수건 짜기’는 매우 생소한데, 비단 천에다가 점을 찍고 수건에 옮아매는 식이다.

“이런 비단 천이여.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 갖고서. 그렇게 이게 그냥 고급으로다가. 이게 이렇게 점을 다 찍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옷을 망글어 입는디여. 이렇게 생긴 거 다 옮겨서. 팔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그 구녕을 바늘에다 꿰서 이것을 옮겨서. 기계가 다 있어. 옮겨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놈을 물을 들어 갖고. 끌러갖고 이렇게 옷을 맨드 디야.” <중략> 아~ 한 필이 두말이 하면 크게 허먼 돈을 더 많이 줘서 낮이는 농사짓고, 밤이로 밤을 반짝반짝 세가면서 돈버느라고 잠을 못자고 일했어. 아이고! 세상이. 그거 떠주면 돈 주는 재미로. 받자마자 떼어. 이 손이 뵈들 안했어. 그럼! 이건 돈을 받잖어. 돈을. 우리도 그 수건 떼가지고 살기가 나서져갖고 밥 먹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언제나 잠이나 실컷 자냐고. 원없이 잠을. 그거 수건 뜨는 거 없어지고 질쌔 없어징게로 잠을 실컷 자.”

그가 세 딸들과 함께 수건을 떼서 번 돈은 집안 살림에 보탬다. 그 돈으로 벼 훑는 홀테도 사고, 예쁜 그릇도 장만했다. 그

는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다. 몇 년 후 ‘수건 뜨기’부업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돈 버는 재미에 희생한 것은 잠뿐만 아니다. 그가 그 일을 배울 때 간난 아기였던 셋째 아들이 수시로 울어대고 칭얼대어 그는 아들을 심하게 타박했단다. 그 때 아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50이 넘도록 아직까지 혼인을 못한 것 같아 죄책감까지 든다고 한다.

그 아들이 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 아들은 젊은 시절에 가슴 아픈 사랑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 예근 씨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마다 가슴이 아프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수건 뜨기’에 전념하느라 잘 돌봐주지 못했고, 공부 잘한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이 맘에 걸린다. 무엇보다 그 아들이 열렬히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아들을 억지로 집으로 데려온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아들이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는 “죽었나, 살었나.. 그냥 둘 걸..” 아들결혼을 반대한 걸 후회하며 무진장 울었단다. 옛날에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지 못하던 시절에 중매로 결혼한 그는 남녀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건지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집 나가서 그냥 혼자 돌아 댕겼디야. 그게 사랑이란 게 그렇디야? 나는 그거를 몰라서. 몰라. 사랑을 해가지고 해봤으면 그냥 헐턴디. 그 장가갈 쿠정만 생각하고 데려왔더니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 사는디... 다 큰 아가씨를 보몬. 즈이 누나들이고 누구고 선을 보라고, 중신을 허고 허는디 세상 없어도 안 나와. 장가 안 간디야. 상처가 커 갔고, 그래가지고 연대 장가를 안가. 근디 인저, 장가 애기를 내놓덜 못허게 허. 중신 애기도 내놓덜 못허게 허고, 장가 애기를 허덜 못허게 하고, 즈~ 그럴 때 논 죄로 사는디. 작년에는 명일 쇠러 와갖고 그러더라고. 세배를 허고서 “엄니 아버지, 걱정 하시지 마요. 쪼금 더 있다가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애를 낳겟씨요. 착실한 여자 얻어서 서로 의지나 허게 얻어가지고 살을 테니게 엄마 아버지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허더라고. <중략> 인자, 항상 개 짹을 못 맞춰서 그게 걱정이여. 밤이나 낮이나. 지금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걱정 하나도 없어. 어디가 착한 여자 좀 나가 구하러 교회를 댕기자녀. 항상 우리 하나님더러 우리 아들 장가 좀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무진장 해여, 시방. 기도혀.”

그는 아들이 이제라도 결혼할 맘을 먹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한다. 미혼인 아들은 돈을 잘 벌어서 자식 중에 용돈을 가장 많이 준다. 사실 그에겐 많은 용돈을 받는 것보다 아들이 장가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교회에 가서 아들에게 알맞은 며느리 감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단다.

6. 아픈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

그는 슬하에 일곱 남매 둔 다복한 사람이다. 그의 자녀들은 서로 우애가 좋고 부모에게 극진하게 효도하기 때문이다. 아들 못 낳았다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한 지난날을 돌아보면 징그럽기도 하지만, 큰아들을 낳은 후부터 대우받았으니 서러웠던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려 한다. 그는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가 구박당하며 산 세월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자란 탓인지 자식들이 그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하다. 몇 해 전 무릎이 아파서 잠도 못 잘 만큼 고생했는데 큰아들이 오리뼈가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해 와서 그것을 우려먹은 후부터 무릎통증이 사라졌다. 지금도 아들은 일 년에 두 번씩 꼭 오리뼈를 사가지고 온단다. 그의 단짝친구인 주기에씨는 이를 두고 “아픈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매우 적절한 비유이다. 2016년에는 그의 7남매 자녀들이 전예근 씨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패를 드렸다.



사진 3. 이 패는 2016년에 그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감사패〉

아버지 윤중호, 어머니 전예근

어떠한 고통도 견디어주신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작은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6년 6월 5일

자랑스러운 칠남매 아들 딸 드림



사진 4. 2004년 전예근씨의 칠순때 자녀들과 함께

7. 마지막 순간까지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을 노래하리라

그는 이제 근심이 없다. 마음이 한가로우니 흥이 절로 난다. 매일 그는 마을회관에 나와서 동네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노래하며 지낸다. 지금도 어디라도 놀러 가면 그가 마을 대표가수로 호명되어 빠지지 않고 노래한다. 올 봄에는 청남 노인잔치에 가서 ‘태평가’를 불러 상도 탔다.

그는 집에서 구순이 넘은 남편과 함께 매일 노래를 부른다. ‘태평가’, ‘한오백년’ 등과 같은 옛날노래도 부르고, ‘내 마음 별과 같이’, ‘찔레꽃’, ‘개나리처녀’, ‘울고 넘는 박달재’, 등 신식노래도 부른다. 특히 ‘내 마음 별과 같이’는 그가 중산리에 시집온 후에 배운 노래로서, 딸이 가사를 큰 글씨로 적어 주어서 부부가 함께 보고 배웠다.

〈 내 마음 별과 같이 〉

산 너울에 두둥실 흘러가는 저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
한송이 지는꽃이 피우기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마음 별과같이 저하늘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네

〈 찔레꽃 〉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언덕우에 초가삼간 그리습니다
자주고름 입에 물고 눈물 흘리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잊을 사람아

〈 개나리처녀 〉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처녀
종달새가 울어울어 이팔청춘 봄이 왔다네
어허야 얼씨구 타는 가슴 요놈에 봄바람아
늘어진 버들가지 잡고서 탄식해도
낭군님 아니오고 서산에 해지네

〈 울고 넘는 박달제 〉

천둥산 박달제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물항라 저고리가 굶은비에 젖는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가슴이 터지도록

그가 한창 때는 노래를 한 번 시작하면 지치는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노래를 몇 곡만 불려도 ‘여그’(가슴)가 받혀 하기가 힘들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그의 유일한 취미인 노래 부르기조차도 힘이 딸리니 나이 먹은 것이 서러울 때도 있다.

이제 팔순을 넘어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 전예근씨는 사실 아직도 남은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 즐거운 시집살이, 이는 너무 역설적인 말이다. 하지만 그는 91세 남편 윤종호씨와 함께 해로하며 마지막 남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순을 넘긴 남편이 천식이 있어 위급할 때는 숨을 못 쉴 만큼 힘들어 하기 때문에 늘 그를 살펴야 한다. 그는 성격이 짱짱한 남편과 사느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보고 비유 맞추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성실하고 흥이 많은 남편이 있어 잘 살았다고 말한다. 귀동냥으로 부른

노래를 남편의 손바닥 장단에 맞춰 부르는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는 모른다. 다만, 6.25한국전쟁과 가난이라는 큰 난리를 함께 이겨내고 7남매 자식 농사까지 손잡고 잘 해낸 인생의 동



사진 5. 이제 그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

지인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마을회관에서 매일 만나는 이들과 함께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부르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

“옛날노래? 시방은 여간해서 있지를 안 해요”

1. 유년기, 밥은 굶지 않을 만큼 비교적 넉넉했던 가정형편

정용옥은 1934년 충남 공주군 탄천면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를 낳아 주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 3남매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흔 즈음에 그의 어머니는 외삼촌의 중매로 3남매를 데리고 재가했다. 그 때 그의 나이 11세였다. 당시 새아버지의 연세는 시흔이 넘었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재혼 후 어머니는 딸 둘을 더 낳아서 모두 5남매가 함께 살았다. 새 가정을 이룬 후 집안 살림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먹을 것이 귀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그 시절에도 온 가족이 그럭저럭 밥은 굶지 않고 살았다.

그의 친정어머니는 평소에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는 엄마가 바느질 하실 때나, 동생을 재우면서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따라 불렀다. 그가 엄마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다가 “그게 뭘 소리여요?”라고 여쭙보면 “그냥 배워라!” 한 마디 하셨다. 엄마는 그 노래를 할머니나 ‘옛날양반들’한테 배웠을 것이다. 그는 엄마에게 노래를 배워서 친구들과 놀 때 같이 부르곤 했다.

〈연모가〉

홀라당 팔라당 홍갑사댕기
 곤때도 안물어 사주가 왔네
 사줄랑 받아서 농속에 넣고
 날택일랑 받아서 개춤에 넣고
 오동나무 농을 짜서
 내옷 넣고, 네옷 넣고
 잠잘때나 되면은 일러주지

위의 〈연모가〉는 부녀요에 속한다. 사주단자는 정혼한 후에 신랑이 신부집에 본인의 사주를 보내는 것이다. 노래 속 주인공은 양가에 혼담이 오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홍갑사댕기를 두른 이웃집 처녀에게 반한 총각이 연모의 마음을 비추니, 처녀가 천천히 사주를 맞추어 보고 택일을 한 후에 오동나무로 농을 짜서 혼인할 때 까지 총각에게 기다리라는 말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는 국민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다.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에 가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되어 마냥 좋았다고 한다. 그의 유년기의 기억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혼사가 줄줄이 벌어졌던 일이다. 일본군이 혼기에 이르지 않은 처녀조차 일본군위안부로 잡아간다는 소문이 온 동네

에 퍼지자 딸 가진 부모들은 서둘러 혼인을 시켰다. 위안부 징발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혼처를 찾다가 동네혼인을 하기도 했다. 그때 그는 일곱 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잡혀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 일제는 일찍이 조선여성들을 강제징집하여 일본의 군수공장이나 매춘굴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1938년 초부터는 전쟁확대로 일본군병사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조선여성을 위안부로 강제징발 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간 조선여성들은 태평양 일대의 섬이나 중국으로 보내져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위안부로 성착취를 당했다,

2. 열다섯살 새색시 “시집 간다는디, 시집간다는 것이 뭐인지 몰랐지”

예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라 하였다. 유교사상에 입각한 혼인은 음양의 조화로서 남녀가 결합하여 아들은 낳아 대를 잇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그 의미가 달라졌을지라도 혼인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평생의 지기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니만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다.

정용옥은 15세가 되던 1949년에 큰어머니 중매로 중산리 총

각 이봉식씨와 혼인을 했다. 중매를 선 큰어머니는 “신랑집이 밥은 먹고 살고” 무엇보다 신랑 성품이 좋아 놓치면 후회할 가까운 자리이니 꼭 사위로 얻어야 한다고 했다.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곧 신랑집에서 함이 왔다. 그는 “비단으로 날 태기 받은 거 넣고 함이라고 왔어. 요만한 기와짜 같은데 각데기 같은 거. 예전에는 싸리로 맨들었는디. 학고짜 같은데 함에다 보내고...”라며 그 날을 회상했다. 그가 시집가는 날 어른들이 명지를 두드려서 파랑물, 분홍물을 들어서 다듬이질들을 하는데 그저 기분이 좋았다. 그는 “다듬이질들을 허는디~ 세상에! 저놈을 꼬메 입고 내가 어디를 간다는 디” 그냥 좋았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시집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쁜 옷을 해주고 어디를 간다니께” 마냥 좋았다. 대례는 신랑집에서 했다. 친정에서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가서 대례를 지냈다. 신행에는 친정아버지가 따라오셨다. 그의 집 건너 방 사람하고 산지기가 양쪽에서 가마를 메고 사령을 했다. 난생 처음 가마를 타고 가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혼인날에는 연지곤지 화장을 하고 새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예쁜 노리개도 차고,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오르니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그는 혼인이 가져올 삶의 변화나 의미를 모른 채 헤헤 웃으면서 시집을 갔다.

나 어린 새색시는 혼인 첫날 저녁 신방에서 신랑얼굴을 처음 봤다. 어른들이 사주해서 혼인을 진행했고, 초례청에서도 고개를 들어 신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날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주안상을 물린 후 신랑이 자꾸만 신부 옆으로 다가왔다. 겁을 먹은 그는 무서워서 계속 뒤로 물러났다. 그는 소매로 몸을 막고 앉아서 울었다. 신랑은 울지 말라고 그를 조용히 달랬다. 신랑은 “이제부터 이게 당신 집이고, 나랑 인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다. 신랑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는 디 여기가 우리집이라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엄마 생각, 집 생각, 동생들 생각만 났다. 그는 어려서 밥도 해먹을 줄 몰랐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엄마생각만 하며 몇 날 몇 일을 울며 지냈다. 특히 달 밝은 밤에는 시집오기 전에 엄마에게 배운 노래 ‘달아달아’를 부르며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다.

〈달아달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든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이
 계수나무 박혔으니
 계수나무 한나무를
 옥도끼로 찍어낼까
 금도끼로 찍어낼까
 금도끼로 찍어내여
 초가삼간 집을지어
 부모님을 모시고
 열그렁 덜그렁
 살어보세~~

그가 열다섯살에 시집 와서 친정집이 그리울 때마다 이 노래를 “어지간히” 불렀다. 그는 “달은 무지하게 밝은디. 어찌다 본게 우리집이 아니여. 저 달은 참 밝기도 한데, 나는 왜 엉뚱한디가 드러누웠는가. 남의 집에 시집와서, 그때 속으로” 한숨지었다. 친정생각, 엄마생각에 노래를 부르다 보면 목이 메었다. 어느 날은 혼자 엄마한테 간다고 집 밖으로 나가 보니 살던 동네가 아니었다. 엄마가 있는 동네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혼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제대로 듣고 왔더라면 견디기가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듯 그리워하던 친정집을 혼인 후 첫돌이 된 다음에야 근친을 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동상례를 제대로 하겠다면서 신랑을 업고 사랑방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신랑이 노래를 잘하여 노래를 듣는다고 더 심하게 굴었다. 친정어머니는 사위를 덜 맞게 하려고 음식상을 푸짐하게 차려 내놓았다. 그렇게 소란스런 하룻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시댁으로 돌아왔다.

그의 남편은 유순한 편이었으나 그를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살가운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밥만 먹고 살았다. 그는 “그래도 신랑이라고 집 뒤가티가 감나무가 있는디. 물렁감 떨어지는 것은 나 주워서 가져다주테”라며 웃었다. 남편은 집 뒤뜰에 있는 감나무에서 홍시감이 떨어지면 먹지 않고 어린 신부에게 가져다주곤 했다. 부부사이에서도 애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그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3. 열여섯 살 먹던 해 “인공난리가 났는다”

시집살이를 모르고 살았던 그는 신혼초에 시댁 이웃집에 사

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다. 옆집에 사는 미혼의 여자아이 두 명과 같은 해에 시집온 새댁을 합하면 4명이 되니 편 갈라서 놀기에 딱 알맞았다. 한동안 넷이 모여서 공기놀이, 꼬무줄놀이, 숨기장난(숨바꼭질) 등을 하며 놀았다. 그는 “시집와 가지고 별 짓 다하고” 놀았다. 넷이서 공기놀이를 하면 그가 제법 많이 땀다. 저녁에는 꼬무줄, 숨기장난을 주로 했다. 꼬무줄을 뛰면서 하던 노래는 잊어버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는 “이찌니 산신가 뭐 했는디”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그가 중산리로 시집와서 배운 노래는 단 하나 ‘강강술래’ 놀이노래다. 진정마을에서는 강강술래를 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했다. 그는 “시집오기 전에는 안했는디 여기 오니까 동네에서 모여서 다 하데. 여기는 여자들만, 명절때만 했어. 내나 동네 남의 집 마실가면 마당에서 했지. 추석, 설날에만. 그때만 해도 놀이패가 많았어. 열댓명은 됐지. 앞소리는 안했지. 그냥 손 붙들고 강강술래 이런거만 했지”라고 회상했다. 그렇게 철없이 시집와서 동년배들과 놀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그가 시집온 다음 해에 ‘인공난리(6.25한국전쟁)’가 났으니 ‘왜정난리(일제강점기)’와 함께 평생 살면서 큰 난리를 두 번 치렀다.

“열여섯 살 먹던 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는다. 인공난리가 났는다. 인자 올해 결혼했는디 내년에 난리가 났어. 인자 인공난리가 났는다. 저녁때가 되얏는다. 아~ 보리쌀 묻혀서 씻쳐다 밥을 해알 것 아녀? 근디 인민군이 말을 타고 우리집에 들어오더니. 우리집이 질까 집이었어. 그러더니 물을 달래야. 아~ 탈바가지 쓰고. 말투는 우리도 알아듣게 생겼더라고. 그러디 어린 것이 물을 떠가지고 그런 사람한티 막 바가지 갖고 가는디 얼마나 떨어졌어. 막 쌍바가지 떨어 듯이 떨어.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면서 가니께는 물사발을 이렇게 꼭 손 채 붙들더니 “이렇게 허시지 마세요. 우리들이 아줌마를 살릴라고 이렇게 땡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허시지 말고 맘놓으세요”라고 허데.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니께 겁낼 것 없다고. 그러면서 물을 받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나보고 떨어 말라고, 나를 이렇게 다독다독 허고 가더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고 갔거든? 근디 그놈의 보리쌀을 씻쳐서 여기다 밥을 해먹어도 여기가 떨어가지고. 덜렁덜렁허니 떨어지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보리쌀 씻어가 저녁을 해먹어도 아이떨리는게 안 가라앉어. 어떻게 떨어던가.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네가 그런 사람을 봤응게 그렇구나. 네가 어린 것이 욱봤다. 얼마나 떨어졌니. 떨어 말어라. 괜찮다. 괜찮다”하시더라고. 그렇게 인자 혼자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혼자 이제 당체 가지 말라고 잉. 아~ 그런 사람이 말을 타고 마소마차 끄리고 들어왔응게 무섭지. 말을 타고. 우리집은 질가 집이라 찌그만한디 글썽! 인민군이 말을 타고 들어왔더랑게. 인민군은 다 말구루마, 소구루마 이런거 타고 와. 그때는 여그 사람들은 인자 나가는 판국이었어. 군인들이 아랫녘으로. 인자 나가는 판국인디 그놈들이 인자 이리로 쳐내려왔어. 쳐내려와서 우리들이 피난도 가고 막 그렸었어.”

다음에 또 인민군을 만났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날 인민군이 몰려온다고 해서 윗동네에 있는 큰 굴(금광굴)로 몸을 피했다. 피난민 중에는 머리가 온통 하얀 구순의 노인도 끼어 있었다. 그날 마을사람들 모두 굴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굴속에서 나와 보니 굴 입구에 인민군이 서 있었다. 인민군은 허리춤에 총알을 잔뜩 달고 있었다. 인민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굴속에서 나와서 모이라고 했다. 모두 모여 있는데 구순의 노인이 “언어다 놓은 강아지 떨 듯” 몹시 떨었다. 그 모습을 본 인민군은 “노인네가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될 텐데” 피난을 갔냐고 핀잔했다. 그 때 구순 노인 뿐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떨었다.

인민군은 굴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머릿수를 모두 셸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 탄알을 잡아당기려 하는 찰나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 왔다. 마을사람들이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조용해서 눈을 떠 보니 인민군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때 비행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인민군에 대해 “어제 저녁에 간 사람은. 말 타고 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 나쁜 놈이 총알을 가지고 와서” 죽을 뻔 했다

고 했다. 이렇듯 그가 결혼한 이듬해에 6.25전쟁이 났지만 따로 피난을 가지 않고 계속 중산리에서 살았다. 6.25전쟁 때 중산리는 “힘한 꼴 안 보고” 큰 피해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4. 시집살이? “나는 시집살이를 했다고는 안 해”

그는 평생 시집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시어머니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열다섯에 시집 온 어린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예뻐하며 키웠다. 시어머니는 행여 며느리 밥이 적은가 싶어 당신 밥을 덜어서 더 얹어주는 자상한 분이셨다. 갓 시집왔을 때 그는 밥 짓는 일이며, 바느질, 베 짜기 등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옷을 꼬메고, 명을 잡아 길쌈을 할 때 그는 옷방에서 편히 잠을 잤다. 시어머니는 철없는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고 “분홍물 들여서 치마 만들고, 노랑물 들여서 저고리 만들어” 곱게 차려 입혔다. 그렇게 그는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호강을 하며 살았다. 그는 “나는 시집살이를 했다고는 안 해. 그래서 시집살이 이런 거를 몰라”라고 말하며 웃음지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운 일화가 있다. 어느날 시어머니께서

그에게 바느질 방법을 알려주시고는 “네가 저고리를 꼬메봐라” 하셨다. 그렇게 한 말씀 남긴 시어머니는 마실을 가셨다. 시어머니는 어린 며느리가 제대로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였다. 그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시킨 바느질이니 만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했다. 하지만 한 쪽 소매는 바느질이 제대로 되었는데 다른 쪽 계속 뒤집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지쳐서 그만 포기하려는데 때마침 이웃집 상희고모가 애를 업고 왔다. 상희고모는 그 모양을 보더니 “이 친구야, 이놈을 빼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소매팍을 맞춰서 해야 뒤집어서 제대로 나오지. 이놈을 뒤집지 않고 만날 그대로 하면 만날 소매로 나오지 어디로 나오겠냐”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저고리를 ‘어릿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뒤로 그는 저고리를 “육두문자로 꼬메 입고” 살았다. 그는 지금처럼 숨씨 있는 시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다고 한다. 그가 워낙에 바느질 숨씨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다가 답답하면 당신이 직접 해놓았다. 그럴 때 마다 그는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왜 우리 엄마는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어린 것을 시집을 보냈나”하며 친정어머니를 원망 하기도 했다.

그가 갓 혼인했을 때에는 집에서 직접 보리방아를 찧어서 밥을 하고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가 혼인 후 처음으로

방아를 찰 때 일이다. 그가 “도구질(절구)을 헐라니게 머리카락이 여그 잔뜩 묻어 나와요. 그라믄 머리가 아파서 죽겠는겨”. 그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부지런히 배야는겨. 여자라는 것은 도구질 하고, 밥해 먹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자가 아니여. 도구질 하고 밥해 먹고, 베 짜고, 명베 날고 내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게 여자라는겨.”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집안에서 여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시어머니께 하나 둘씩 살림을 익혀나갔다.

그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다. 혼인 후 두 해 정도 지난 어느 날, 그가 스스로 베를 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베 짜는 전 과정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실 가신 틈을 타서 베틀에 앉아보았다. 그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기억을 되살려 베 짜기를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베짜기가 보기에는 쉬웠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베틀에 올라 가가지고 찼라니게 짜져? 끊어지고, 끊어지고. 인자 이렇게 되지”라며 웃었다. 그 때 마실 다녀오신 시어머니는 끊어져 있는 베를 보고 웃으시며 “너는 이거 헐 줄도 모르는데 베만 다 끊어놨냐”고 한 마디 하셨다. 그는 이튿날에도 시어머니가 마실 가신 틈에 다시 베틀에 올라갔다. 베 짜는 방법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틈만 나면 베틀에 앉았다. 그렇게 대 여섯 번 올라가서 연습했더니 그럭저럭 시늉은 되었다. 그는 혼자서 틈틈이 연습한 끝에 베 짜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다. 막상 베를 짜게 되니 솜씨 좋게 잘 짰다. 그가 봄 내내 베를 짜는데 스물 다섯쪽 까지 짰다. 그는 시댁 베는 물론 친정 베도 짜고, 이웃집 베도 맡아서 짰다. 그런 그를 보고 시어머니는 “눈은 둔혀도 베 짜는 거는 너 일찍 배다”면서 칭찬하셨다. 그렇게 베를 짰 이후로 그는 잠뱅이, 바지, 저고리 등 가족들이 입는 옷은 직접 만들어서 입혔다. 그는 무명, 명주, 모시 등 갖은 베를 짜서 계절별로 옷을 지었다.

그는 열여덟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그 시절엔 임신하면 남자들 앞에 걸어가지도 못했다. 길을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팔을 앞으로 모아 팔짱을 끼서 배를 가리고 길을 걸어갔다. 그는 “시방은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솟은 배를 내밀고 땡기는데 내가 볼 때는 쪼배여. 옛날에는 남자들 앞에서 이려고. 배 오그리느라고 이렇게. 배 표날까봐. 이렇게 했는디”라며 달라진 문화를 이야기 했다. 그때는 여자가 임신하면 행여 부른 배가 표시 날까봐 행동을 삼갔는데, 지금은 보란 듯이 배를 드러내 놓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는 시집와서 3년이 지나 첫 아이를 낳았다. 그는 첫째, 둘째는 연이어 딸을 낳았고, 셋째, 넷째는 아들을 낳은 후 막내딸을 얻어 슬하에 5남매를 두었다. 그렇게 5남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어른들 앞에서는 마음껏 예뻐하지도 못했다. 특히 남자들은 웃어른이 보는 앞에서 맘대로 아기를 어르며 웃지도 못했다. 남편은 애를 업고 있다가도 어른이 오시면 부끄러워 얼른 내려놓았다. 그는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친정엄마에게 배운 <자장가>며 <아이 어르는 노래>를 불러주며 놀아주었다.

<자장가>

자장자장 자장구야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 깬다
앞뜰이다 논을 사고
뒤뜰이다 밭을 사고
그랑 저랑 잘 살아보자

<아이 어르는 노래>

불어라 딱딱 불무야
우리애기 잘도 논다
앞뜰이다 논을 사고
뒤뜰이다 밭을 사고
우리애기 쳐다보자

아이 어르는 노래는 엄마가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잡고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하면 “애기가 좋아가지고 곧~실 곧~실 춤을 춰. 이렇게. 그게 애 뛰는 거 보면서 더 허는 거여”라며 몸짓으로 보여주었다. 놀이의 처음 시작은 엄마가 움직여 주지만 나중엔 아기가 더 신이 나서 더 구른다. 어린애를 데리고 놀다가 아이가 이쁜짓을 할 때 또는 아기 떼어 놓고 놀러가고 싶는데 안 잘 때 주로 했다. 그는 “우리 애기 데리고 불무해줘야지~”하고 놀아주면 아기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놀다가 노곤해지면 잠을 자게 된다고 한다. 옛날에 친정엄마도 시어머니 안 계실 때 노래를 불렀다. 그는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아~ 저게 저 소리구나”하며 어깨 너머로 듣고 배워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자녀를 낳은 후에는 아기를 재울때나 놀아줄 때 노래를 불렀다.

5.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엄마는 이 세상 그만두러 간다”

그는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살림하는 법을 배우고 “짹짹하게 살림을 해서” 재산을 조금씩 늘렸다. 그 때만 해도 장내쌀을 한 가마니 내놓으면 두 가마니씩 갚았다. 분명 엄청난 고리대임에

틀림없으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내쌀을 빌렸다. 그나마 살림이 넉넉했던 그는 장내쌀을 놓아 재산을 조금씩 늘려나갔다. 그가 갓 시집왔을 때에는 논 세마지가 전부였지만 그가 장내쌀을 놓고 받아들여 땅을 늘려서 논 열한마지기 넘게 사들였다. 이웃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야무진 살림 솜씨를 칭찬했다. 한 마을에 사는 용득이아버지는 “왜 이 아래는 땅도 사고 허는디 **이네는 땅도 못 사고 그카고 있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어려도 “풍얼거리면서 풍설 풍설 살지를 안 허서” 그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땅을 불린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았다. 곧 그 많은 땅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했다. 그의 남편 노름빚으로 그 땅을 다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수수비꾸름허니” 미끈하게 생긴 그의 남편은 어쨌거나 사람은 좋았다. 남편은 한 번도 그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다.

그의 남편은 마음이 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화투였다. 남편은 서른 넘으면서 노름을 시작했다. 어느날 동네에 온 돼지장사한테 붙들려서 노름을 시작했다. 그는 “이~ 같이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야 돼”라며 남편이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 그가 그로 인해 속 썩은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미

울 때도 많지. 말 하면 뭣 혀. 할아버지, 할아버지 선달 그믐날 나가서 일주일 댜도 안 들어오셔. 선달 그믐날인디 노름하러 가서”라며 크게 한숨 지었다. 그는 설을 앞두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신세타령을 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속 썩는 사람은 하늘 밑에 나 하날겨, 나 하날겨~”라고 한탄하면서 남편의 소재를 찾아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의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때는 모심으려면 물을 사야 했다. 중산리 앞에 제방시설이 안 된 때여서 물을 사서 모내기를 했다. 어느 해인가 남편은 논에 물을 대어 사 놓고 집을 나가서 껌껌 무소식이었다. 모심으려고 물을 퍼러 간 남편이 사흘이 지나도 안 들어왔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논이 말라 버려서 다시 또 물을 사서 모를 심어야 했다. 그가 노름하는 곳을 찾아가서 남편을 집에 데려오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벽을 보고 잤다. 그런 남편하고 싸움도 할 수 없고, 혼자서 궁상맞게 울면서 말해도 아무 소용없었다. 어느 날 그는 모진 마음을 먹었다. 깨끗이 옷을 갈아입은 그는 어린 막내딸에게 젖을 먹인 후 다독다독 해서 누여 놓고 말했다. “잘 있어라 아가. 엄마는 이 세상 그만두려 간다.”

“그러고서는 인자 돌아다 보도 않고 나가는다. 여그 물난리

가 나서 저기 독섬예를 간 게 구렁이가 이~~ 만한 놈이 가로막는 거여. 히? 하이고~ 무슨 구렁이가 뭘 놈이 저렇게 큰 놈이 있어! 그래서 뒤돌아서서 오는데 구렁이가 여기 뒷굽을 잡아 먹는 거 같어. 그래서 정신없이 와가지고서는 싹둑 무너진데가 있어서 거기가 실~~~~컨 울었어. 서러워서. 세상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왜 생겨났나! 기왕에 생겨났으면 이런 속이랑 썩지 말고 술이나 안 먹는 사내나 얻든지. 노름을 앓고 사는 사내를 얻든지. 내 술을 다 하는 사람을 만네가지고 내가 이속을 왜 썩나. 그 좋은 놈 다 팔아먹고... 이제 혼자 그놈을 생각을 해가며 우는 거여. 그러다 봉게 날이 부엌하고 저 아랫동네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툭툭 털고서 집에 와보니 안왔어 영감이. 그렇게 먼동이 트닌게는 툭툭 털고 들어오더라고.”

그는 남편 마음을 잡으려고 밭 팔고, 논 팔고, 명배를 짜서 노름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는 “서방하고 속 썩는 년은 이 하늘 밑에는 나 하날겨”라며 한탄하며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작정하고 3년 동안 남의 빚을 다 갚았다. 남편이 속 썩일 때면 그는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나 좀 잡어가십소사~ 하나님! 나 좀 잡어가십시오~”하며 울었다. 제 설움에 겨워 모진 맘을 먹었다가도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밝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솔직히 그때 내가 나갔으면 우리 애덜 그지되야”라고 말했다. 그가 떠나면 자녀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깜깜한 밤길을 쏘다닐 때도 무서운 걸 몰랐다. 하지만

혹여 이웃 사람들이 “남편 안 들어왔어?” 하고 물으면, “들어와서 잤지!” 하고 말하곤 했다. 남편의 허물을 스스로 들추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편과 사는 동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6. 부녀회장 시절, 가족계획캠페인에 앞장서 단산 선택

1965년부터 부녀회장 활동을 시작한 그는 31세에 단산을 선택했다. 면에서는 각 마을 부녀회장을 모아 교육시킨 후 마을을 다니면서 단산을 홍보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산아제한을 위해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덜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 한다’ 등의 선정적인 홍보문구로 캠페인을 벌여 나갔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윤리 관념으로 자리 잡았다. 부계혈통주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은 1960년대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았다. 설령 아이를 그만 낳으려 해도 피임법을 알지 못해 ‘생기는 대로’ 낳았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경

제성장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1961년부터 인구조절을 위한 가족계획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마침 가족계획홍보차가 면사무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포스터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우프’ 장치를 하고 피임을 했다. 아마도 동네에서 최초로 인공피임을 한 사람일 것이다.



사진 1. 1961년 가족계획 포스터 상단에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는 구호가 있고, 그림 밑에는 “루우프 피임법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을 찾으십시오.”라고 써있다.



사진 2. 1974년 포스터의 구호는 1960년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다 보면 다산에 이르게 되므로 무조건 둘만 낳으라고 독려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새마을부녀회를 조직했다. 새마을운동 교재로 부녀회 회장들을 교육하여 해당지역에서 금주운동, 폐품수집, 농악대활동, 공동경작, 산아제한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게 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탁월했다. 그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술선수범하며 일을 잘해 10년 이상 태평마을 부녀회장을 했다. 똑부러지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다”고 말하곤 했다. 당시 사람들의 여성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서(파출소)장도 그를 무서워했다. 지서장은 그가 지서에 나타나면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순경들이 남편이 노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가 지서에 쫓아가서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 부녀회장 시절에 그는 17개 부락을 다니며 선거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7. 시집가는 딸에게 “뺏대지 말고 큰소리치지 말고 살어”

그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한 것을 생각하면 딸들에게는 시집을 권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딸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는 결혼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안 된다. 지집애는 짝을 맺어야 사는 것이다. 느털이 내 속 썩이면 나는 죽는다”고 강하게 말했다. 결혼 안하고 속 썩이면 죽어버리겠다는 엄마의 엄포가 무서웠는지 딸들 모두 혼인을 했다. 그는 딸들 시집보낼 때 형편이 변변치 않아 제대로 혼수를 못해준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그는 “우리 딸들 결혼할 적에는 시집이다 줘버렸어. 딸만 실어다. 딸만 실어다 줘서 그 동네서 잔치했어. 성남하고 서울서”라면서 딸들 모두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혼인하는 딸들에게 시집가서 남편과 시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잘 하고 살어~ 남자가 큰 소리 쳐야 허니께 뻗대지 말고 참고. 시부모님 잘 섬기고, 남편한테 내조 잘 혀. 니들 잘 못 허면 부모한테 원망이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사위에게는 부모 밑에서 고생하고 자란 딸이니 데려가서 대신 호강시켜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싱글족’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우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의 남편 회갑잔치는 중산리 집에서 했지만 그의 회갑잔치는 서울의 한 호텔뷔페에서 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온 엄마를 위한 자녀들의 속깊은 배려였다. 그가 난생 처음 고급호텔에서 값비싼 생일상을 받고 보니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

는 느낌이였다. 그의 남편은 당뇨와 혈압으로 노년에 고생을 많이 했다. 남편은 몇 달간 병원에 입원도 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죽음을 예감한 남편이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9~10월은 그가 집에서 직접 병간호를 했다. 남편은 2008년 10월 26일에 소천했다. 그는 끝까지 남편을 보살피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덩그마니 집에 있는 날이면 남편을 떠올리면서 신세타령 노래를 부르기도 했단다.

〈신세타령 노래〉

보리방아 물불은게 시어머니 생각
 시어머니 안 죽어서 웬수됐더니
 보리방아~ 물불은게 생각난다
 콩다콩다콩 찢는방아
 언제나 찢고서 밤마실 가나
 시아버지 안죽어 성화됐더니
 왕골자리 떨어징게 생각나네
 언제나 가서 아버지 모셔오나
 왕골자리 다시갈게
 시동상 안죽어 성화됐더니
 나무청에 나무떨어징게 생각난다

위 노래는 그가 혼인 전에 친정엄마에게 배운 노래다. 결혼 후에도 심심하면 한 번씩 불렀던 노래인데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후에는 더 자주 부르게 되었다. 노래 가사는, 아무리 시집 살이를 시킨 시부모와 시동생도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가끔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내용이다. 며느리 혼자 보리방아 찼을 때는 시어머니 생각, 왕골자리가 떨어지면 시아버지 생각, 나무청이 떨어지면 미운 시동생도 생각이 난다는데, 그는 언제 남편의 빈 자리를 생각했을까. 그의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지금까지 혼자서 잘 살아왔는데 몇 달 전부터 허리통증과 우울감으로 힘들 때가 많다. 그는 심신이 괴로워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다고 한다. 지금 그는 병원에 다니며 약 잘 챙겨 먹고 하루 한 시간씩 요가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니 한결 나아졌다고 한다.

그의 남편이 떠난 뒤로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바로 마을사람들이다. 그는 타지에 가지 않는 한 매일 태평마을회관에 출근(?)한다. 보통은 오전에 가서 함께 점심을 해먹고 놀다가 오후 5시 정도에 집에 간다. 회관에 모이면 윗놀이나 10원짜리 화투를 치고 논다. 평균 15명 정도가 마을회관에 모이는데, 60~70대 젊은이(?)들이 80~90대 노인들과 놀아주느라고 10원짜리 화투를 함께 친다. 그는 “저게 다 우리네하고 한패

여. 여기가 놀이터여. 여기서 먹으면 안 먹을 것도 한 순갈 더 먹어. 작년에는 손부러졌지. 병신 마냥 살았어. 그런 나를 밥순가락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주고 해서 내가 살았지.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라며 웃으며 말했다. 이처럼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마을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매일 많은 수가 점심밥을 지어 먹다보니 마을회관에 쌀이 떨어져서 요즘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마을회관으로 간다. 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먹을거리들을 조금씩 싸들고 온다. 자식들이 사준 과자며, 과일, 음료수 등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매일 모여도 다툼이 없을 정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진 3.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왼쪽)



사진 4. 2018년 7월 31일 태평마을회관에서

살아가고 있다.

8. 한 가지 바람은 “내 자식들이나 오순도순 그렇게”...

그의 딸들은 “엄마니까 살았지. 나 같으면 안 산다”며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낸 엄마를 위로해준다. 그는 “시방 같으면 그렇게 살 사람 업시유. 시방은 여자세상이잖아”라며 딸들의 말에 공감한다. 그가 30년 넘게 참으며 가정을 지킨 것은 오직 자녀를 위해,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생각해서였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그와 동생들을 데리고 재혼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 손으로 자식들 제대로 키우고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은 좋겠수, 나 아프면 나 좀 잘 데려가시유”라고 혼잣말을 한다. 남편이 돌아간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는 “그런디 이게 다 싹 잊어지지는 안 해. 대강은 인자 소용없다는 생각은 들어도, 싹~ 과거에 넘어간 생각은 잊혀지지는 안 해”라면서 함숨지었다. 그는 이제 그는 부러울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를 바랄뿐이다.

그는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가 되고 싶다. 그는 “나는 참 잘 된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얻어다가 호강시키고 오순도순 재밌게 살고” 싶다고 한다.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훌륭하게 잘 생기고, 많이 배운 남자”로 다시 태어나 할 수 있다면 혼자 제멋대로 살아도 보고 싶다. 그는 맘에 드는 여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멋진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영화도 보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남자로 태어날 수 없다면 그는 새가 되어 하늘을 맘껏 날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 그의 평생에 맺힌 답답한 마음이 탁 트이도록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다. 그가 혼인 후 65년 동안 청남면을 지키고 살았으니 다음 생에서는 더 넓은 세상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그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는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 물론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직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위기를 넘겨왔다. 그의 생애사에서 남편이야기만 빼면 큰 시련이 없이 잘 살아온 듯한 인생이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

를 그는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오히려 그는 고단했던 한 여자의 일생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였다. 태평마을에서 여장부라 불릴 만큼 성격이 호탕하고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도 앞장섰던 주인공이었다. 그는 80세의 고령의 나이에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신세타령노래나 ‘구렁덩덩 서선비’같은 옛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금은 사라진 토속민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창자로서 큰 의미가 있다.

[민속학에서 본 주기에, 전예근, 정용옥의 생애사적 의미]

주기에, 전예근, 정용옥 등은 모두 청양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청양을 지키며 살아온 여성들이다. 주기에는 청남면 중산리에서 출생하여 91년 동안 중산리에서 떠나 본 적이 없는 자타공인의 터줏대감이다. 전예근은 청남면 동강리에서 태어나 6세에 서울로 이주하여 유·청소년기를 보내고 20세에 중산리에 내려와 혼인 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서울살이 1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청양에서 살았으니 청양군 거주기간은 총 72년 이다. 마지막으로 정용옥은 공주군 탄천면에서 태어나 15세에 청남면 중산리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 또한 혼인 후 65년간 청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청양지킴이다. 이들 3인의 구술생애사를 그들의 결혼관, 여성관, 민요 혹은 노래가창 등을 중심으로 생애사적 의미를 살폈다.

결혼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혼인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말한다. 주기에 등 구술자들은 조선후기에 정착된 친영례의 혼인 관습이 남아있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배우자를 만나 약식 전통혼례 방식으로 혼인식을 했다. 그들의 혼인 절차는 의혼에서 대례에 이르기까지 신부의 혼인의사와 무관하게 집안 어

른들이 결정하는 대낙혼(代諾婚)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당시에 관습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그들 자녀들의 혼인은 점차 변화된 세태를 인정하여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과거의 혼인은 집안간의 결합으로서 의미가 컸던 반면 오늘날에는 남녀의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관계를 혼인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관은 여성에 대한 관념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임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에 의하여 규정된 관념과 견해이기도 하다. 주기에 등은 남존여비사상이 존속되던 시대에 태어나 직접적인 남녀 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에 태어나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한 구박과 차별을 받았던 전예근의 사례에서 당시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을 확인하였다. 정용옥은 엄마처럼 살기 싫어 결혼하지 않겠다는 딸에게 여자는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한다면 ‘어머니’로서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겼다. 혼인하는 딸에게 시부모 봉양과 남편 내조를 우선적으로 당부하였다. 이는 출가한 딸이 시부모와 남편에게 인정과 사랑 받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본

인이 당했던 여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그랬어”로 마무리되는 체념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그들은 요즘 젊은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연애와 자유로운 결혼생활 모습에 부러운 시선과 더불어 불편감을 나타내기도했다.

민요는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어 부르고 구전되어 온 노래다. 피지배계층에서 향유되었기 때문에 과거 하층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노래 가사를 통해 그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과 정서를 유추해 볼 수 있어 학자들로부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민속학자들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민요를 중심으로 민속음악을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청양민요에 대한 연구는 2004년에 임동권·정형호·임장혁 등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속민요를 수집, 정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청양의 토속민요 발굴이 아니라 청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확인하여 개인의 환경에 따른 음악적 선택의 결과에 따른 노래부르기에 주목하였다. 청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노래를 부를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 그의 노래는 대부분 경기민요인데 주로 마을사람들이 하는 듣고 귀동냥으로 주웠다고 한다. 전예근은 경기민요와 신민요, 통속민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의 노래는 대부분 양말 공장에 다니던 10대 시절 서울에서 배운 것으로 중산리로 시집와서 마을사람들에게 ‘서울노래’ 전파자 역할을 했다. 한편, 정용옥의 노래는 대부분 토속민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 결혼 전에 친정엄마에게 배운 노래로서 ‘연모가’, ‘자장가’, ‘달아달아’, ‘아이 어르는 노래’ 등등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토속민요를 간직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노래의 학습경로와 시기를 보면 전예근과 정용옥은 각각 10대 때 익힌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예근과 정용옥은 소위 학령기에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노래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주기에 등 3인의 구술자들이 레퍼토리로 삼고 있는 노래들이 각각 그들만의 독자적인 생애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노래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그들은 매일 마을회관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며 노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래로 하나 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군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물질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한다.

고택을 지키고, 문중을 생각하며

1. 고택에서의 유년시절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와 수정리 기덕리에는 평택임씨 집성촌이 있다. 청양에 평택임씨가 정주하게 된 계기는 1600년 무렵 임정수(林貞秀)가 청양 현감으로 부임하여 큰아들 임식이 청양의 해주 최씨 가문의 따님을 얻으며 청양에서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화성면에는 평택 임씨 재실과(덕명의숙) 가옥 3채가 충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평택임씨 가문의 명성과 위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중에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당로 393-42(화암리 222)에 소재한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31호인 '청양 임동일 가옥'은 19세기 말 송암 임용주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당시 연못 조성 시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가 옆으로 누운 듯 자라서 '와송정(臥松亭)'이라는 이름을 나주에 사는 종친 임중필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동일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문간채로 조성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사랑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이름다운 전통가옥에 선정되

어 외지인들에게 전통 한옥 체험공간으로 개방하여 우리문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고택은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선 입구부터 잘 가꾸어진 소나무들이 정원수처럼 늘어서 있어 마을의 역사성과 고택의 정서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 고택은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항일 민족정신이 남아있는데 홍주의병에 임승주와 그의 동생인 임한주가 참여했다. 특히 임한주는 홍주의병과 을사조약에 따른 의병활동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기미 독립운동이 전개되자 파리 평화회의에 보낼 장서를 기초하고 영남 유학자 곽종석과 홍주의병장 김복한과 긴밀하게 내통한 것이 발각되어 6년간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그의 공적이 인정되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이 고택은 송파공의 손자인 동암 현이 살던 집터에 18세기말 송암 임용주가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임동일의 증조부이다. 안채의 상량문은 숭정 기원후 23년이라 쓰여 있어 약 400여년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택은 1910년경에 홍주목 장곡에서 한옥을 옮겨 증축되었다. 따라서 집터와 고택은 단순히 전통가옥으로서 한옥의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지만 조선조 말기에 우리의 굵은 소나무만큼 힘들었지만 국가와 민족을 지키려 했던 선조의 숨결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터전이라 할 수 있기에 보존되어 함께 공감해야할 문화유산이다.

현재 와송정사는 평택임씨 23세손인 임동일(林東一)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그의 증조부는 송암 임용주이며 유교와 성학에 조예가 깊으셨다. 유학의 기본정신인 나라에 충성과 부모에 게 효도하는 가풍은 평택임씨의 기본적 가풍이라 하겠다. 송암은 본래 타지에서 살았으나 이 집이 임현의 집이었던 것을 알고 보수하여 이주하였다.

임동일의 조부는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중앙 대학 경제학부를 수학하던 중 관동대지진을 피하여 귀향 하였다. 귀향하여 화암리에서 일생을 보냈다.

임동일의 부친은 3남매의 외아들로 태어나 독선생은 홍양기사를 지은 애국지사 임한주 선생에게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글씨의 예법은 정향 조병호 선생으로 부터 수학하였다. 부친은 천석을 수확하는 대농으로 농사와 정미소를 운영하셨다. 그러나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하여 가세가 많이 기울기도 했다. 임동일의 모친은 경주 이씨로 비봉면 강정리 한의원집 딸로 일찍이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과 구운몽, 옥루몽, 육전소설까지 섭렵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와서 1킬로 정도 떨어진 물안이의 재종 동서와 친 동기같이 지내셔서 두 분이 같이 주역에 취미도 같아 즐겨 밤늦게 까지 담소를 나누셨다고 한다. 장터에서 두 분이 우연히 만나면 막국수도 드시고 같이 장을 보

며 서로의 집에 들러 호밀칼국수를 먹으며 서로 위로가 해주었다. 당시 시장은 광천장과 청양장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젓갈이나 생선은 광천장을 이용하였다.

임동일은 9형제 중에서 장남으로 어릴 적 사랑채에서 서당에서 교재로 사용하던 「격몽요결(擊蒙要訣)」로 독선생에게서 한문을 익혔다. 초학 교육을 위해 율곡 이이(李珥 : 1536~84)가 쓴 격몽요결은 어린이에게 뜻을 세워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대접할 줄 알며, 몸을 닦고, 독서의 방향을 교육하기 위해 쓴 책이다. 그가 어릴 적에 접한 격몽요결은 부모와 조상을 봉양하고 나아가 조상으로부터 계승되어온 집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의 원천이 되었다.



사진 1. 임동일 부모와의 가족사진

2. 사춘기부터 문학도로 우정을 나누며

그는 청양에서 화엄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 후에 처음으로 객지로 나와 친척집에서 기거하며 홍성중학교를 다녔다. 처음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이었다. 친척집은 충리를 지낸 이현재의 부친의 집이었으며 주말에는 집을 다녀가 부모를 뵙고 오기도 했다.

그는 광천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으나 주산이나 부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국어과목을 좋아했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서정시를 좋아했다. 방학에는 고향에 돌아와 문학을 좋아하는 고향의 친구들과 모여 밤새 책을 읽고 문학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서로 책을 바꿔 읽기도 했다. 김종율, 정재권, 윤충원 등과 같이 문학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5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우정을 함께하며 벗으로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대학진학에 대해 고민을 했다. 평소의 문학적 관심은 그를 충남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진학으로 이끌었다. 대학생살에도 그는 문학을 좋아했었기에 교내는 물론 교외활동에서도 문학동아리에 참여했다. 문학동호인들은 대부분 고교생들로 문학에 취미와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대전에서 약국을 하시던 소정 정운선생이 지도하던

동아리에 참여하여 현대문학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도 즐겨 읽었지만 시에 관심을 두었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를 좋아했다. 동아리는 20여명의 문학도들이 한 달에 3~4번 만나서 독후감을 발표하고 습작을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했다. 소정 선생은 현대문학은 물론 한학에도 깊으셨으며 시조에도 조예가 깊으셨다. 소정의 아들도 이 동호회에 참여를 하였고 무척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 ‘호부호형’하는 친분관계로 발전했었다. 소정은 그의 시가 너무 감성적이라는 평을 듣곤 했다. 그가 대학시절에 쓴 ‘창(窓)’이란 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窓

창은
대추나무 집
소녀와
마주 보고 있었네

대추
빨갭게 익던 날

小女는

靑 제비 따라

시집 갔네

소녀가 피워주
대추꽃 웃음이 기려

총각은

남으로 남으로
행상을 떠났니라



사진 2. 홍성중학생시절 하숙동료와 함



사진 3. 문학가를 꿈꾸던 대학시절

3. 국어교사로 제자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가 문학도로써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 3년간 군복무를 마쳤다. 군 제대 후 2년간 초등학교 교편을 잡다 광천상고, 대천고, 대천여고 등 33년간 국어선생으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는 광천에서 하숙하며 교편을 잡고 있었지만 ‘집을 떠나 와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주말에는 부모님을 뵙고 오곤 했다. 타지에서의 생활을 하였지만 늘 마음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교편을 잡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자 부모님은 장남인 그의 혼사를 맘에 두고 있었다. 마침내 당숙모가 중매를 하였는데 동창생 집안의 처녀였다. 그는 당숙모와 함께 남양면 공덕재를 넘어 신부의 집에서 선을 보게 되었다. 신부를 보고 맘에 들었으며 양가에서도 흡족해하였기에 혼담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약혼은 선을 본 후에 2~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얼마 후 처갓집 마당에서 혼례를 올렸다. 그의 동창생 5-6명과 집안 어른과 함께 함을 갖고 처가에서 전통혼례와 피로연이 열렸다. 피로연에는 신부의 친척이 참석하였고 신부는 신랑의 일행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혼례가 끝나고 신부와 함께 신행을 하였다. 당시에는 차를 타

고 신부와 함께 시택으로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자가용을 빌려 신부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다. 신부는 시택에 와서 신랑의 부모와 가까운 친척께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다. 신부는 시부모님 집에서 모시고 지내면서 종부로서 시어머니에게서 음식이나 살림살이를 익혔다. 신랑은 광천에서 단신생활을 하며 주말에는 집을 다녀가곤 했다. 신부는 1~2년 후에 남편이 있는 광천으로 가서 광천상고의 학교근처에서 신혼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부는 종부로서 음식 솜씨는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일품이었다. 그는 가장 잘하는 음식으로 우렁탕을 꼽는다. 제사음식은 모두 종부의 손을 거친다. 제사 때가되면 하루 전에 시택에 와서 제수음식을 시어머니와 마련하는것이 익숙해져있다. 흥어찜, 조기, 김 등은 제사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다. 고택의 주변에는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가 있어 이들로 제사상을 준비한다. 아마도 오래전 조상이 제사를 염두에 두고 심은 나무들로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는 광천상고에서 8년을 그리고 대천여자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였다. 교사생활에도 틈틈이 시를 썼다. 그는 자신의 모교에서도 교직생활을 하였고 후배와 제자에게 이상과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하였다. 교사는 평탄한 직업이지만

날씨와 같이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는 젊은이의 이상을 실현할 수 믿는 화려한 도시는 1980년대 급격한 경제도약기에 자연을 거슬리고 무기력해지는 현대인의 사회상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사진 4. 약혼기념 사진

아침유감

참빛살 같은 태양의 붉은 빛인
황도 단맛만큼이나 고운 숨결
수목색 짙은 푸르름이 여인의 치마폭에 여며진 산계곡

맑은 잎 새에 고인 감로수가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고
벗끝 같은 고운 새싹들이 검은 그늘을 헤집어
석 잠 잔 누에가 뽕을 갹아먹듯 얼굴을 보인다.

털보숭이 함함한 아이들이 7부 능선 산 협곡을
따라 뛰어 간다
태양의 활주로를 따라 끝없이 뛰어 간다

잠시 태양은 더 맑은 얼굴로 살며시 엿보일 때
멀리 안개 거치듯 희끗 희끗한 도심
항구의 가로등이 스러져 가고
흐릿한 불꽃이 하나 둘 스러져 가고
검은 연기가 소음과 같이 품어 흐른다.

검은 그늘음이 골목 골목마다 침식하며
냄새가 소리와 빛깔이 뒤엉킨 거리
태양은 찡그린다 몸살한다.

누가 저 그늘 길 거리로
원종일 파뿌리같이 지친 걸음으로 걸으며
여둠을 향해 긴 긴 날을 자맥질하는가

(1987.1.10)



사진 5. 혼례에 함이 가던 날



사진 6. 피로연에서 신부가 신랑 동료에게 술을 권하며



사진 7. 광천상고 교사시절 제자와 함께

4. 고택을 지키고 체험의 공간으로

그는 정년퇴직을 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집은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했다. 그 집은 그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조상이 살고 지켜온 터전이 기에 숨결과 손결이 남아 있는 듯 에 의미가 크다. 송암은 사랑채를 개축하면서 연못을 조성하고 소나무를 심었다. 사랑채와 안채의 사이에 창고와 쌀광을 지어 완성하였다. 정면 7칸 측면 2칸

의 사랑채는 독특하여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학동들이 모여 서당으로도 사용하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는 종손으로써 고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벅차했었다. 근년에 고택을 보수하면서 3개의 기둥과 126개의 연목을 교체했다. 그리고 그는 나름 종손으로 역할을 한 듯 뿌듯했다. 그리고 고택을 개방하여 우리 조상의 문화이며 전통문화를 함께 공유하기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고향에서의 생활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기에 만족하며 틈틈이 시를 쓰곤 했다. 도시와 달리 고향의 달빛은 순수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다.

달 빛

물새 날아드는
호수와 같이
다정히 감싸주는 달빛

말없는 포옹
긴 침묵 속에
그 많았던 갈등의 씨알들

이제는 찌꺼기 한 알까지도
질은 소화액에
말갈게 정화된 마음

잔잔한 달빛의 가닥가닥
여운이 무거운 황혼의 고운 색으로
물들어 질 때
실타래 올 혼이 되살아 난다

호수의 맑은 물은
달빛을 한 아름안고
끝없이 일렁이고 있다.

(2012. 10. 2)

한옥스테이를 통한 전통문화 사업은 그리 큰 수입이 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는 점이 많았다. 대부분 도시에 서 오는 고객들로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으며 가족단위로 3대가 함께 오기도 한다. 단골도 생기고 다시 찾아오는 분들은 반갑기도 하다. 종부가 오랜 동안 즐겨 담았던 된장 깻잎장아찌는 전승되어온 음식으로 평택임씨 종가음식으로 비법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깻잎뿐만이 아니라 명태, 소고기 등을 장아찌로 만들었다가 손님상에 내놓곤 했다. 한옥스테이에 머무는

손님과 갯잎 장아찌를 함께 먹으며 음식으로 정을 나누고 있다.

그는 3남을 두었다. 모두가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조상이 살아온 터전을 가꾸고 지켜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현대인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고향의 터를 지키고 노년을 보내는 게 일생의 처음과 마무리로 정리하고 있다.

[민속학에서 본 임동일의 생애사적 의미]

집(家)은 일상생활에서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지만 민속학에서는 학술용어로 주거에 기반을 둔 생활·생계에 공동이 되는 가내집단 뿐 만 아니라 그 집단에 의해 조상제사를 집행하듯이 선조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을 포함하는 초 세대적 사회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의 두 가지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 통할 수 있다. 건조물로서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며 주어진 공간 내에는 조상의 손길과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살며 추억이 살아서 남아있다. 조상의 손길이 남아있는 고택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건조물로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고택을 지키는 임동일은 장남으로 선대부터 이어온 집을 보존하고 있는 데 평택 임씨의 조상들의 얼을 계승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켜가고 있다.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근대교육을 받았기에 전통성과 근대성이 교차하는 시기에 문화변동을 겪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의 가정교육은 전통에 바탕을 둔 유교의 가치관에 익숙하였으며 한편 신교육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였다. 임동일

은 어릴 적 부친의 권유로 독선생으로부터 격몽요결을 배웠기에 정신적으로 유교의 토대위에서 생활을 하였다. 그의 가정생활은 부모와 조상께 효를 실천하였고 사회에서는 교사로서 근대적 교육을 실행하며 합리적인 활동을 하였다. 성인이 되어 그는 부모의 권유로 결혼을 전통적 방식에 따라 하였으며 직장 근처에서 분가하여 국어선생으로 교직생활을 하였다. 그의 문학적 소양과 관심은 조부의 여향이라고 얘기하듯이 가문의 한학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대기에 등장한 관공서나 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전통적 생활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생활에서 집은 숙식을 해결하고 생산 활동의 중심이며 집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 생활의 무대였다. 대부분의 농민이 그러하듯 아침부터 논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곤 한다. 또한 술은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 음복을 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근대이후 공공기관의 등장은 직장인이라는 계층이 생겼으며 직장근처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외식이라는 새로운 식문화가 등장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사회생활 직장동료와의 회식은 음주문화에도 변화를 갖고 왔다. 일상생활에서 음주관행은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대를 이어 구기주를 담아온 고부의 삶

1. 하동 정씨 종부 임영순의 구기주에 얹힌 삶의 애환

1) 가난한 종가집의 맏며느리가 된 임영순

임영순(여, 1936년생)은 21살 때에 가난한 하동 정씨 종가집에 시집을 와서,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술을 담으며 살아왔다.

그녀의 친정은 홍성 홍동면으로, 이곳에서 약 50리 거리이다. 친정은 원래 부자였으나, 할아버지 대에 와서 집안이 기울어서 가난하게 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앞뒤가 산으로 막혀 있고, 겨울에는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산골이었다.



사진 1. 임영순의 최근 모습(둔송구기주)

그녀가 시집을 온 광암 2구는 예전에 110호로 큰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하동 정씨가 10여 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진주 강씨와 서

로 문중간에 힘겨루기를 하며 살아왔다. 지금은 이 마을에 주민이 80호 정도 거주하며, 하동 정씨는 4가구 정도 살고 있다.

하동 정씨는 원래 부여 능산리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현재 정씨 자손들은 주로 서울, 부산, 대전 등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이곳에 살고 있는 형편이다. 세상을 떠난 남편은 하동 정씨 10대손이며, 임영순은 10대 종부로 들어온 것이다.

시댁은 원래 어려운 살림이었으며, 하동 정씨들도 대체로 사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아들이 농협에 들어가자, 집안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며 장하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

시댁에는 일년에 열한두분의 조상 제사를 모셨다. 따라서 제사와 명절, 시제 등이 연이어 있어 일이 무척 많았다. 집안이 어려워 쌀이 귀한 시절인데도 명절에는 흰떡을 3~4말씩 했다. 당시 밀농사를 많이 지어서, 어려운 살림에도 집안 어른들에게 국수라도 삶아서 대접을 했다. 그렇게 앞치마가 숯검정이 되도록 일을 많이 했다. 그 시절 나이든 집안 노인이 타 지역에서 오셔서, 고생한다고 흰 고무신을 몰래 주고 가는 일도 있었다. 그 고무신은 지금의 금반지 이상으로 소중했으며, 힘든 시집살이에서 큰 위안이 되었다.

“사대봉사만 했으면 괜찮게요? 사대봉사만 했으면 여덟 분인데, 거기다 마나님 돌아가셔서 또 지내고 어쩌다 보니까, 열한분인가, 열두분인가 제사를 지냈어유. 봉제사 못 받드는 양반들 물 떠다 드려야지 그냥 말으면 옛날에 뭐가 자꾸 안 좋은 일인가 생긴다잖아유.

그게 살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정월이라고 흰떡 서너말을 겨우 맘 먹고 하네. 그 때는 쌀이 귀했잖아유? 밀농사 저서 겨우 국수 빼다가 삶아서 거기다 몇 접시 내면, 아휴, 그때 앞치마가 숯검정이 되도록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절에 무어가 재미있었느냐면, 나이 잡순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묵어갔어유. 그냥 가시지 않았어유, 다른 지역에서 청양에 오시면. 사촌들고 있고, 동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흰고무신, 코빠기 고무신, 호주머니다 넣어서 몰래 주시고 그러셨어유. 그게 지금도 그렇게 고마워요. 지금 금반지를 해도 그렇게 고맙지 않을게유. 열심히 싸드리면 적게 가고, 많이 갔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송편이고 뭐고 다 내줬어유. 그러니까 뱃속이 편터라고요.”

하동 정씨 집안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종산에 성묘를 하거나, 금초 및 제사를 지내러 올 때에는 대개 종가집에 들린다. 동네에서는 십여분이 오셨으며 먼 곳에서도 오셨다. 시댁은 논 7마지기 농사를 짓는 어려운 살림이었다. 그래도 정성껏 대접하고, 서운하지 않게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음식을 전부 똑같이 싸드렸다. 시아버지는 5형제분이셨는데, 서울에 사는 작은 아버지께서 종부라 해서 특별히 잘 대해 주셨다.

2)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와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 집안 어른

임영순의 시어머니는 18~19살 쯤에 혼자가 되었다. 원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6.25때에 전사했다. 그래서 외아들만 있는 과부였으며, 그녀는 일찍 과부된 시어머니 밑에서 40년간 시집살이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식을 빼앗겼다고 어졌는지, 혼인 초기부터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다.

“시어머니가 열여덟인가, 열아홉에 혼자 되셨어요. 아들 두 분 낳으셨는데, 한 분은 전사 당하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영감님이라도 계시면 그런 시집살이를 안 했을 텐데, 저녁에 둘이 우리 방에 와서 자는 것도 어려웠어요. 안 주무시고, 무슨 소리 하나 다 들으시니까, 그때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엄청 서운했는데, 남편 검 아들 검 하나 보고 사셨는데, 며느리에게 빼앗겼으니, 얼마나 적적 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나이가 어려니까 뭘 알아야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분이셨는데, 그걸 못 받아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 갈 때가 되었으니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시어머니는 칠십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40년 전 좀 넘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고향이 천안이며, 시집을 와서 구기주 담는 법을 배워 술을 잘 담그셨다. 특히 일년 내내 술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이다.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술맛을 보고 술이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을 위해 조금



사진 2. 임영순의 시어머니

씩 담아주기도 했다.

술을 담글 때에 시어머니는 재료를 제대로 쓰라 하셨으며, 잘못하면 머리를 심하게 혼을 냈다. 그 자리에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바로 지적을 하셨다. 그리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술을 지고는 못 일어나도 뺏속에 다 넣고 일어날 정도로 술을 좋아

하는 분이였다. 그런데 술을 이기기 못하고, 지나치게 폭주를 해서, 길에서 눕는 경우가 많았다. 시어머니가 일찍이 혼자 되어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힘들었다.

임영순의 친정 식구들은 술을 잘 먹지 못한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사 때에만 조금씩 담을 정도였다. 그래서 구기자 술을 담그는 것은 전적으로 시댁에서 배웠다.

“우리 시어머니는 술을 가르칠 줄을 몰랐어유. 재료를 내놓고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 적은 없었슈. 잘못

하면 혼내기만 하고, 잘 하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지유.

시어머니가 술을 잘 담그셨지유. 친정에서는 술을 안 잡수시니까 술을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제사 때만 조금 했지유, 종가집이 아니니까 제사가 많지 않았지유. 그때만 조금 해서 봉제사 받들고 그랬지유.

저희는 술이 떨어지면 큰일났어유. 시어머니나 우리 영감님이 나, 지고는 못 일어나도 뺏속에다 다 넣고 일어나는 양반이었슈. 집에서 술을 하면 그 양반들이 분수없이 갖다 잡숫지는 않았는데, 남이 거면 더 채울려고, 그래서 동네 잔치가 있거나 하면 며칠 전부터 걱정이유. 두 양반이 다 퍼지니까, 시어머니도 길거리에서 퍼지고, 잔치집에 가면 명주 바지저고리를 겨울철에 다려서 곱게 입혀 드리면 잔치집에 가면 논이고 밭이고 둥글러서 다시 빨아야 되고, 지금 여자들 왜 살았는가 몰라요. 나도 이해를 못 하겠슈. 그 마음은 이해하지유. 불쌍한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본 적이 없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인물이 부족하다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할아버지는 “네놈이 나가라. 양반 집에서 이혼은 안 한다”고 아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8~9년간 소식이 끊어졌다. 후에 남편이 8살 적에 전라도에서 객사를 하셔서 임시 매장을 한 후에 9살 적에 시신을 모셔온 적이 있다. 시할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 시아버지는 술을 먹지는 못했다.

시어머니는 혼자 되어 길쌈을 하고 바느질, 밭일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시어머니는 글을 모르고, 셈속이 없어서 한

번도 장에 간 적이 없었다. 환갑 직전까지 평생 많은 일을 하다가 한을 품고 70여살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과의 혼인은 동네 어른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미리 선을 본 적은 없다. 집안어른들끼리 서로 혼인약속을 해서 신랑 얼굴도 모르고 혼인을 했다. 신랑은 12살 연상으로 첫인상이 나이 들어 보였으며, 덩치가 매우 컸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딸, 또는 며느리로 오인할 정도였다. 남편은 어린 나이에 철이 없었으며,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임영순을 미워해서 집안에서 내쫓으려고 했다. 그래서 3년간 머슴방으로 쫓겨나서 홀로 생활했다. 이장을 보는 집안 어른이 시어머니께 그냥 내보내지 말고 100만원을 줘서 내쫓으라고 절충안을 냈으며, 4째 작은아버지께서는 나가되 호적은 파지 말라고 권유했다. 임영순은 “정, 그렇다면 나가지만, 살림을 무조건 반씩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이런 이유로 3년간 부엌에서 어린 아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3년이 지나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때서야 방으로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남편은 집안 일에 무관심해서, 농사일은 시어머니가 대부분 맡았다. 시어머니가 외아들을 끼고 돌았으며, 그래서 남편은

철이 덜 들었다. 시댁은 시아버지, 남편, 손자까지 3대가 독자이다. 그래서 임영순은 이런 집안 배경 때문에 외아들만은 엄하게 키우려고 노력했다.

남편은 술을 잘 먹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먹어 술에 취한 남편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자주 받았다. 주로 오후 시간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술 먹고 주사가 심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 주사에 못 견뎌 장광(장독대) 뒤에 숨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는 너무 늙고, 마누라는 너무 젊다고 여겨서 공연히 주사를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편은 쉼 일곱인가 여덟에 술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인근에 하동 정씨 집안 선산이 있어 그곳에 묘자리를 모셨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쉽고 불쌍하다. 지금 살아 있으면 아흔 네살로, 손자라도 보고 갔으며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술독에 구기자 술을 채우며 살아온 임영순의 술인생

임영순의 시어머니는 수시로 술을 담갔다. 명절 때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리고 집안 행사 등에도 술을 담갔다.

시어머니가 구기자를 도구통(절구통)에 넣어 찧어서 구기자 술을 담그는데, 처음에는 단지 빗깔 좋으라고 넣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왜 구기자를 술에 넣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금은 쌀로 담지만 당시에는 보리로 술을 담갔다. 보리를 한번 삶아서 흘려 내버리고 거기다 누룩을 삶았다. 누룩은 밀을 돌매에 갈아서 채반에 가루를 치고 그 지울로 빻아서 술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되었다. 누룩은 봄에 벼꽃이 필 때에 곰팡이가 가장 잘 슬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누룩을 시장에서 사다가 사용한다. 누룩을 사서 쓰지 않고 직접 담가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요즘 밀은 질이 떨어지는지 누룩가루가 잘 나오지 않으며, 잘못 넣으면 술의 빛깔이 달라진다. 당시 집에서 몇 천평의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 술을 담그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요즘은 쌀로 술을 담그지만, 예전에는 보리로 술을 해도 술이 잘 되었다. 보리로 담근 술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쉽게 쉬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지금은 효모를 안 넣으면 술이 되질 않으며, 효모를 공급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다.

“명절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열한번인가, 열두번을 지냈으니깐, 그때마다 구기자술을 담갔지요. 처음 시집와서 구기자인지도모르고, 우리 시어머니가 도구통에 무엇인가 넣고서 철떡철떡 찢어라구. 그래서 술하는데 넣더라구. 그래서 저 양반이,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빛깔 좋아라고 넣는 줄 알았지, 그게 사람에게 좋아서 넣는 줄 몰랐지요. 나이 먹구서 알았지.

그렇게 지금은 쌀로나 술 하지유, 보리쌀을 걸러야지, 맑은 술이 보리를 한번 삶아 흘려 내버리고, 거기다 누룩을 섞었어요. 그러니 그 물로 술을 쓰니 얼마나 흐리겠어유. 누룩은 그때 시절에 밀을 심어서 -밀농사, 보리농사 몇 천평 되었지유- 밀을 수확해서 돌 매에다 갈아서 채반에다 가루를 치고 그 지울로 누룩을 빻았지유. 지금은 술약이니 그런게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게 어디 있어유. 그 대로 누룩을 빻어 술을 했는데, 술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효모 안 넣으면 술이 안 되어유. 조금씩 넣어야 술이 되지유.

누룩은 벼꽃 필 적에 곰팡이가 잘 슬어유. 지금은 누룩을 사다가 써요. 그게 보리술 할 적에는 꼭 그렇게 술이 잘되었는데, 지금은 밀은 지금 안 심는데, 한번 밀을 심어봤는데, 가루가 없어유. 가루가 안 나와. 밀이 그냥 술 지경지 같아. 요즘 밀이 옛날 밀하고 틀려유.”

예전에 밀농사를 지을 때에는 7월에 풀을 베어 두엄을 만들어 9월에 퇴비를 하면 밀이 뽕얇게 잘 익었다. 요즘에는 우리 밀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을 쓰지만, 거무스름한 것이 예전에 비해 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겨우내 받은 인분을 장군에다 지고 다니며 밭에 거름을 주었다. 그 당시 동물 분비물은 거의 쓰지 않았다. 잘 사는 집에 겨우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소의 분비물 양이 얼마 되지 않아 두엄으로 쓸 수가 없었다. 또한 닭도 몇 마리를 키우지만 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주로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했다.

임영순의 집은 항상 술을 담근다는 소문이 퍼져서 세무서에

서 밀주 조사를 자주 나왔다. 주로 술을 집의 토방에 담가 놓는데, 세무서에서는 예고없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한번은 친척 두 분이 집 앞에서 술을 먹는데, 갑자기 세무서원이 집안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뛰어들어 왔는데, 그녀는 미리 눈치를 채고, 술병을 골방에 갖다 놓고 자물통을 채워 놓았다. 세무서원이 자물통을 따라고 요구했지만, 시어머니가 췌대를 가지고 있어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세무서원이 동네 110호 다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찾아서 췌대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리고 구두 신고 무례하게 방안까지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걸 법에 안 걸리느냐? 라고 도리어 따졌다. 그들은 아마 뒤에 누가 봐주지 않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질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보통 여자가 아니라며 물러난 적이 있다. 어떤 때는 술동이를 이고 동네 뒷산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노모가 대신 집중 조사를 받았다. 여러 번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

“집안의 두 양반이 웅기병에다 넣고 문앞에서 술을 자시는데, 양복 입은 두 분이 토방에를 딱 올라서더니, 세무서서 나왔습니다 그래유. 시어머니 마실 가시고 안 계신데, 두 사람이 신발 신은 채로 방안으로 들어왔슈. 저는 부엌에서 나와서 뒷문으로 차고 나가서 뒷골방에 술을 채워 넣었어유. 그랬더니 저 자물통을 따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자물통을 채워놓고, 쌀을 내줘

야 먹는 사람이니께, 난 모른다. 쇠대를 가져갔으니 난 모른다. 그러니 여기 백십호가 사는 집을 집집마다 다 다니래. 제가 깜짝깜짝 덤비는데, 제가 따졌지유. 그럼 법적으로 구두신고 남의 안방을 들어오는 것은 법에 안 걸리느냐. 그래 서로 싸웠유. 두 양반은 술잔을 놓고 그냥 쳐다보고 앉았고. 그리고 나가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가자고.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니께. 뒤에 누가 있으니까 저렇지. 그렇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면했슈. 그 때는 양복 입은 사람만 보면 세무서서 나온 줄 알고, 술동이를 이고 뒤로다 도망다니느라고. 저희는 한번도 들켜 본 적이 없었슈. 누구네 집에 항상 술을 담근다는 소문이 세무서에 들어가 저희 집만 집중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도 못 잡았지.”

구기자 열매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따며, 예전부터 구기자 재배 농가끼리 품앗이로 일손을 나누었다. 특히 노지에서 재배할 때에는 수확 시기가 비슷해서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했다.

예전에는 노지에도 탄저병이 별로 없어서 농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는 탄저병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구기자 하우스 재배는 탄저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

임영순은 원래 시집 오기 전에 구기자를 잘 몰랐다. 처음 이곳에 시집을 와서는 집 주위에 구기자를 심었는데, 열매가 씹스러우면서 달콤해서 그냥 따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먹은 구기자 덕분인지, 그후 병이라는 것을 별로 앓지 않고 살았다. 그리

고 한번은 아들이 목에 어르래기¹⁾가 생겼는데, 구기자 뿌리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 다음에 깨끗이 나은 적도 있다.

청양의 구기자는 질이 좋은 편이다. 빛깔이 좋으며, 햇빛에 말리면 탱글탱글해진다. 양력 7월에 검정색을 띠며, 8-9월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을에 따는 구기자는 질이 좋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10~11월에 수확하는 구기자는 약 성분이 적으며, 삶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구기주의 술맛을 알려면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 술의 특징은 머리가 안 아프고, 먹어도 속이 편하며, 금방 깰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기자를 많이 넣어야 약초 냄새가 진하기에 며느리에게 더 넣으라고 말하지만, 며느리는 시판하는 구기주는 약초 냄새를 줄여야 된다고 말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담글 때에는 두충은 넣지 않고 구기자만 넣어서 향이 적었다. 요즘은 향을 내기 위해 점차 구기자 뿌리를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직 술맛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여긴다.

4) 구기주 명인 지정과 도문화재 지정, 그리고 사업의 시작

임영순이 1996년에 구기주 명인 자격증을 받을 때에는 며느리가 고생을 했으며, 청양군과 청양의 지도소에서 많이 도와주

1) 피부 표면에 곰팡이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의 일종

었다. 그런데 명인을 받고나서 계속 술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자격증만 주고 별 말이 없어서 3년간 술을 담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1998년에 식품 면허를 받았고, 2000년도에 충남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명인과 문화재 지정 이후 여러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때 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생각까지 했다.

명인을 받게 된 것은 주변에 알려진 구기주 술맛 소문이었다. 예전에 하동 정씨 집안 사람들이 계속 이장을 맡은 적이 많다. 당시 이장은 자기 부인의 음식솜씨가 신통치 않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무조건 종가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때 온 면서기나 군서기들이 구기주 술맛을 보더니, 맛이 있다면서 계속 술을 담으라고 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점차 공무원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나중에 명인까지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예전에는 동네 이장은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부모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외지로 못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동 정씨 집안에서도 동네 이장을 오래 했는데, 이들을 통해 점차 종가집 술이 소문나기 시작했다.

1995년에 명인을 받고, 3년 후에 약주 제조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때에 자식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아들은 돈벌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만 그냥 가

업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라고 조언을 했다. 명인 받을 때에 며느리는 술을 담글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시 술 담그는 일은 전부 임영순의 몫이었다

청양군에서 술을 조금씩 계속 담으라고 제안을 해서, 허가를 내어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했다. 초기에 세무서에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면허를 내 주지 않았다. 1억 5천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술 담그는 것을 시작했으나, IMF 시기에 1억5천만원이 더 필요했다. 이것은 결국 빚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 아들이 농협을 다니며 번 돈으로 구입한 군청 앞의 좋은 땅을 팔아서 겨우 빚을 갚았다. 명인을 받고 문화재가 되어도 술을 팔아서 돈 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때 하도 힘들어서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내자고 제안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위에서 그냥 술을 담그는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격증 반납을 말렸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으나, 여전히 운영이 쉽지는 않다. 한때 손자와 손녀 3남매와 며느리까지 대학에 다니느라 어려움이 컸다. 특히 아들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네 식구의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현재 공장은 며느리가 대부분 도맡아서 운영한다. 그런데 임영순은 공장 운영은 며느리에게 맡겨도, 구기자 농사는 맡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은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요즘에는 관심이 갖고 며느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구기주를 담는데 물이 중요하다. 청양의 물은 흘러 나가는 물이 많아 약초 성분이 많다. 현재 지하에서 퍼 올리는 물로 술을 담그고 있다.

올해는 여름에 유난히 더워서 술을 담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7월 말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술이 전혀 없었다. 술은 적당히 끓여 살균해야 변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술이 변한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술이 쉽게 변하게 된다.

5) 팽과리 치는 며느리와 효심 깊은 아들

임영순의 친정 집안은 예능에 소질이 있었다. 친정의 작은 아버지께서 새납을 잘 붙였으며, 운동도 잘 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소리를 잘 했는데, 기생들에게 둘러 쌓여서 소리를 하면 기생들이 물러설 정도로 실력이 좋으셨다. 그리고 동생들도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큰 동생이 아깝게 세상을 먼저 떠났으며, 막내동생(72세)은 아직 살아 있다. 본인은 예전부터 농악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며느리 보고 농악을 배우도록 권했다.

“젊어서 풍물을 그렇게 치고 싶었어유. 갱맥이 치는게 그렇게 좋았슈. 내가 배우고 싶었지유. 그래서 며느릴 배우라고 한 거에 유. 며느리가 끼가 있는지 솔깃하더라고요.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는 군에서 행사가 있으면 새납을 붙였거든요. 친정 식구가 기가 있었어요. 운동도 잘 하구. 우리 친정아버님이 소리꾼으로 나셨을 거예요. 창이구 뭐구 다 잘했지유. 옛날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지는 다 잊어버렸지유. 그때는 소리라고 했지유. 그런 것을 잘 불렀는데, 기생들 있는 술집에 가서 소리를 하면 기생들이 저만치 물러 앉았데유. 동생들과 노래 잘 해유. 큰 동생은 죽었고, 막내동생은 칠십둘인데, 잘 불려유. 며느리 배울 때가 제가 육십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늦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앞은 짧고, 며느리 세상인데, 며느리가 못 배우면 이 세상에 뒤떨어져 살거 아니유. 지도소가 저는 남편이고, 애인이고, 지둥이었슈. 동네 마실 갈새가 없었슈. 군 회장을 했고, 도 부회장까지 했슈. 회장을 하라고 권하는데, 내가 머리가 짧은 걸, 가방끈이 짧은데, 괜히 회장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까지 그럴 것 같아서 안 했슈.”

며느리는 농촌지도소에 다니며 농사나 술에 관한 정보를 얻고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청양문화원에 다니며 사물과 농악을 치고 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 농악을 배우라고 권할 때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꽃꽂이 정도만 배우려고 했다. 그래서 얼마동안 같이 데리고 다닌 적도 있다. 당시 청양에서는 농악을 매일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대천으로 보내 3년간 매일 배우게 했다. 그래서 며느리는 농악의 상쇠가 되었으며, 현재 난타도 배우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며느리의 영향으로 아들도 웃다리농악에서 북을 치고 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운곡면 대표로 농악에서 상쇠와 북을 치고 있으며, 손자 손녀도 농악을 배우고 있다.

손자가 어릴 적부터 체육을 잘 해서 충남의 육상 대표로 나간 적이 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에 아들이 공부하라고 손자를 일반계 학교인 공주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손자는 나중에 체대에 가려고 입시를 치렀으나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대전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고, 등록금도 비싸서 한달 만에 포기했다. 그리고 영장을 받아서 방위로 군대에 갔다.

방위 시절에 대대장이 집을 방문해서 민수가 어떻게 컸는지 보고 갔다. 그리고 손자를 비롯한 몇 명의 장병에게 방과 후 교육을 시켰는데, 처음에 여러 명이 함께 하다가 도중에 다 탈락하고, 오직 손자만 독선생으로 공부를 했다. 노력한 덕분에 제대 후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현재 세종시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있다. 손자는 큰 도움을 주었던 당시의 대대장과 가르치던 선임과 요즘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 제사 때에 큰 양푼에다 술을 올리려고까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술을 적당히 먹으면 약

이 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술이 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술이 귀해서 한번 술을 보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폭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본인은 혼자 되고나서 술을 먹지 않고 있다. 남의 이목이 있고, 또한 과부가 술 먹고 취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아들도 술을 안 먹으며, 손자는 조금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임영순은 건강이 좋은 편이나,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해서 걸음을 걷는 데에 좀 불편한 상태이다.

2. 시어머니에 이어 구기주 대를 잇는 최정아

1) 집단 선보기의 당혹감과 힘든 신혼 생활

최정아(1961년생)는 1985년 25살에 뜻하지 않게 하동 정씨 집안의 종부가 되었다. 고향은 청양군 정산면 광생리로 그리 멀지는 않다. 처음 혼인을 하고 나서 가난한 시댁에서 결혼의 꿈을 접고 매우 힘들게 지냈다.

그녀는 청양의 정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생활이 싫어서 경기도 성남으로 올라가서 4년 6개월 동안 혼자 자취하

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당시 성남의 남한산성 아래 쪽에 있는 양친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외과 과장이 성질이 다혈질이라 좀 힘들게 생활을 했다. 주로 응급실에 근무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본인의 성격이 긍정적이라 잘 견뎌냈다.

직장 생활이 권태기에 들 무렵에 시골의 어머니께서 내려와서 한번 남자와 선을 보라고 연락을 했다. 그래서 결혼할 마음도 없이 갑자기 선을 보게 되었다. 당시 부친의 이종사촌이 광암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중간에 소개를 해 주었다고 한다. 모친은 막내딸이 25살로 결혼 나이가 다 찼으니, 그냥 선만 한번 보라면서 내려오게 했다.

그녀는 청양 읍내 터미널 이층의 사랑방 다방에서 선을 보았는데, 정작 남편은 나오지 않고, 하동 정씨 집안 어른들만 잔뜩 와서 깜짝 놀랐다. 당시 둘째, 셋째할아버지, 당숙 등 50-60대 하동 정씨 집안 어른들이 열대여섯 분 정도 집단으로 선을 보았다. 이들로 다방이 꽉 찰 정도였는데, 본인은 순간 무척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노인들이 돌아가며 “시골에서 살 수 있는가?”, “종가집인데 살겠는가?”라는 질문을 주로 던졌다. 그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감의 손톱을 유심히 보며, 매니큐어를 칠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녀는 평상시 청바지를

입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들었다고 한다.

선을 보는 동안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고개를 숙이고 ‘네’라는 대답만 한 기억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답은 주로 친정 부모님이 대신 했다. 약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십년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다. 선을 보고나서 기분이 나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성남으로 올라갔다.

“이 동네에 우리 이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 자네 딸 여기로 시집보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선을 보는데, 청양에 터미널 위층에 사랑방 다방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새까만 어르신들만, 오륙십대 어르신네들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있어요. 그래 서 있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미쳤는가봐, 딸을 팔아먹었는가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상대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어르신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동 정씨, 다 나온 거예요. 종부를 본다고. 그리고 남편은 못 나오게 하고, 어르신들이 일단 보고 결정하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가씨 때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손톱에 매니큐어 한번 안 바르고 살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손톱만 보신 거예요. 매니큐어를 칠했는지 보려고.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둘째, 셋째 할아버지, 여기 당숙들, 하여간 하동 정씨 어른들 다 모이신 거예요. 열대여섯 분 나왔을 거예요. 다방이 꽉 찼으니까. 당황하고, 황당하구요.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가시고. 어른들이 물은 것이, 시골에 와서 살 수 있겠느냐? 종가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인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선보려 나온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몸다는데, 엄마, 아버지 체면을 봐서 선본다고 다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만 보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스물다섯 살이고, 제가 막내딸이에요. 그때는 스물 셋, 넷에 결혼하던 때예요. 그 시간이 두 시간도 안 되었는데, 한 십년이 지난 느낌이에요. 고개도 못 들고, 네, 네 하다가 그대로 갔어요. 성질이 나서 청양 집에도 안 가고 성남 직장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생전 처음 맞선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첫번째 집단 선을 본 다음 주에 신랑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성남에서 만났다. 대전에 사는 하동 정씨 집안의 시모와 같이 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하동 정씨 집안에서는 최정아를 며느리 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다.

신랑은 장남이면서 외아들이었는데, 첫 인상에 순진한 촌사람의 모습이었다. 당시 농협에 근무하면서 마장동, 가락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탄 모습이었다. 최정아는 아들 넷, 딸 셋의 칠남매 중의 막내딸인데, 그에 비해 상대는 홀시어머니에 외아들인데다가, 더구나 당시 시골로 시집을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상대방의 혼인 얘기에 생각해 보겠다며 대충 대답을 하고 자리를 떴다. 홀시어머니에 외아들이라 꺼렸으며, 또한 시집살이가 심할 것이라고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

남편은 광암리에서 가까운 예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던 중에 폐병을 앓았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어 예산농업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상대를 몇 번 만나면서 순박한 모습에 끌려 결국 결혼을 승락하고 말았다. 남편은 학교 시절에 공부도 잘 했지만, 운동과 예능을 좋아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축구선수를 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특이하게 색소폰에 취미를 붙였다. 당시 색소폰을 불던 동아리 친구들을 남편은 지금도 만나고 있다.

2) 가난한 하동 정씨 11대 종부로서의 힘든 생활

최정아가 처음에 시집을 온 종가집은 초가에 방 2칸의 가난한 집이었다. 시어머니께서 종가집에는 가난한 종가집과 부자 종가집이 있는데, 이 집은 가난한 종가집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초가집은 1990년대에 현재의 기와 형태로 다시 집을 지었다.

집안에서 4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명절 때에는 집안 일로 쉴 틈이 없었다. 특히 명절이나 시제 때에는 쌀 한 가마니로 밥과 떡을 했다. 하동 정씨의 산소는 여기 광암리 마을 안쪽 ‘증골’에 있다. 예전에 집안 일로 종친회를 하면 종친 간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다. 주로 땅과 소나무 베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많았다.

집안에 일이 많아서 한번은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께 사대봉사가 힘드니 시아버지 제사만 지내면 어떠냐고 제안한 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 제사만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한번은 점을 치니 자손이 없는 불쌍한 큰할머니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점괘가 나와 이후로 한 분의 제사가 늘었다. 한식 때에는 집안 어른들이 하동 정씨 사당에 모여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며, 같이 점심을 먹는다.

“이 골짜기 안에 증골이라고 해요. 거기에 하동 정씨 윗대 산소가 있어요. 시제 지내러 다 오셔요. 예전에는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 와요. 종친회를 하면 그렇게 싸워요. 땅 애기 나오고, 돈 애기 나오고, 땅 팔자 뭐, 소나무 팔자,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싸움들을 무지하게 해서, 하도 질려서 얼굴도 안 들여다 봐요. 제사는 4대 봉제사 지내요. 9번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제사만 지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제사만 지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할머니 제사 때가 되면 지금이 할머니 제산데, 제산데 혼자말로 그러는 거예요. 심란해 해요. 그래서 할머니 제사를 지내요. 또 심란해서 무엇을 보러 갔어요. 잘 될라나 안 될라나. 저도 봤더니, 저희 큰어머니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대요, 후손이 없대요. 불쌍한 양반이라고 시어머니께서 계속 제사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큰어머니 제사도 지내요. 한식 때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사당에서요. 정씨들이 지내는데, 시어머니께서 가시더라고요. 한식 날 점심 때 지내요.”

구기자 술을 잘 담으셨던 시할머니는 1959년생인 신랑이 19살 때에 세상을 떠나서, 손자가 장가가는 것을 못 보셨다. 따라서 최정아는 시할머니를 본 적이 없으며, 술 담그는 법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배웠다.

시어머니는 구기자 품앗이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동네에서는 구기자를 심는 집이 많다. 그래서 다른 집의 구기자 품앗이를 해야만, 우리 집 구기자 품앗이도 할 수 있다. 요즘은 부족한 일손 때문에 서로 품을 나눌 수밖에 없다. 현재 시어머니는 고령에도 농약 치는 일까지 손수 하고 계시다.

농촌지도소의 김미숙 과장에게는 시어머니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명인과 보유자 지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현재까지 33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3) 시어머니로부터 구기주 담는 방법의 전수

최정아는 결혼 전에는 구기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결혼 초기에 시댁의 담에 구기자를 소량 심어서, 이것으로 술을 담았다. 그녀의 친정인 정산에서도 구기자를 재배했는데, 어린 시절에 구기자 한 바가지에 100원을 받을 정도로 비싼 편이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청양에서 구기자를 심은 것은 7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운곡면 위라리에 살다가 작고한 박관

용 씨가 처음 재배했으며, 그래서 그 마을에는 ‘구기자이야기’ 관련 비석이 세워져 있다.

시어머니께서 구기자술을 조금씩 담아서 외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점차 외부에서 술을 담아 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었다. 김미숙 과장이 재료비만 받고 3만원에 판매를 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공무원과 일부 청양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 실비로 술을 담아

싼값에 판매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술을 판매했다고 어떤 사람이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300만원의 벌금



사진 3. 공장 내부를 설명하는 최정아

이 내려왔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공주 행사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온 도지사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해서 벌금은 겨우 모면한 적이 있다.

“구기자술은 시집 오자마자 담갔어요. 그때는 판매를 안 하고서, 그때는 김미숙 과장이 재료비가 3만원 든다. 그래서 3만원씩 받아라. 과장님이 행사에 쓰려고 재료비를 주고서, 필요할 때 술을 담아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입소문이 나서 맛있다, 맛있다 그래

서 3만원씩 몇 년 간을 판매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불법이다. 이완구 도지사님이 공주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생활개선 회장님이니까 지사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때 공주세무서에서 와서 막 옥상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뺄뻤을 쳤어요. 지금 세무서에서 와서 우리집 다 뒤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300만원의 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지요. 그게 아마 한 20년쯤 전이지요.”

최정아는 20년 전쯤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본격적으로 술을 담기 시작했다. 구기자술은 쌀과 누룩, 구기자(열매와 잎, 뿌리), 두충피, 들국화, 맥문동, 감초 등을 원료로 한다. 특히 구기자의 잎과 열매, 뿌리 등이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기자는 다년생으로, 대략 5-10년 정도 가며, 매년 4월 초에 캐기 시작한다. 여름에 채취하는 것이 올구기자로 품질이 좋다. 대체로 구기자는 병에 강하지만, 노지에서는 탄저병에 걸리기 쉽다. 이 병에 걸리면 구기자가 마르고, 열매가 열지 않게 된다. 노지는 빗물이 튀기기 때문에 탄저병에 취약하다. 그리고 노지에는 새가 따 먹는 경우가 많은데, 비둘기, 참새, 콩새 등이 구기자 열매의 물만 쪽 빨아먹으면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요즘에는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다.

구기자 뿌리도 10년생을 두드려 쓰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사다가 썼다. 요즘에는 인근 구기자시험장에서 그냥 가져다 쓴다. 그곳은 품질개발을 철저히 해서 1년생이라도 뿌리가 비교적 두껍게 내리는데, 이것을 가져다 사용하면 향이 매우 좋다. 구기자 뿌리는 시험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거의 공짜로 얻어다 사용한다. 술을 담을 때에 구기자는 그해 여름에 채취한 것을 사용한다. 구기자가 오래 되면 뿌리와 대가 커지고 거름을 많이 먹게 된다.

두충은 20년 된 나무에서 채취한다. 두충피는 귀한 편인데 봄철에 새로 싹이 올라올 때에 베어야 벗기기가 쉽다. 주로 경동시장이나 재배 농가에서 구입하며, 두충피는 말려서 삶은 다음에 사용한다. 들국화는 추석 직후에 채취한다. 밭뚝에 심어서 꽃필 때에 꽃을 따서 잘 씻어 건조기에 말려 사용한다. 맥문동은 집에서 조금씩 심고, 주로 장평면 화산리에서 사다가 쓴다.

누룩은 생각대로 잘 나오지 않는다. 봄철에 벼꽃이 필 때에 곰팡이가 가장 잘 쓴다. 상온에서 잡균이 생겨 여름에 쉽게 쉬게



사진 4. 구기자 뿌리

된다. 따라서 여름 누룩은 사다가 쓰며, 직접 만든 것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한다.

지금 중국산 구기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눈으로 쉽게 구별이 된다. 중국의 청도 지방에서 재배한 구기자의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국산의 1/6 정도에 팔린다. 최정아가 청도에 갔을 때에 알아보니, 이곳에서 구기자가 1만 6천원 하던 때에 청도에서는 3천원에 팔고 있었다. 중국인 보파리 장사들이 구기자를 한국에 많이 가지고 들어오지만, 품질은 크게 떨어진다.

4) 둔송구기주 사업의 시작과 상품화의 어려움

최정아는 시어머니의 명인 지정을 위해 1993년부터 준비했으며, 1996년에 명인 지정을 받았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서류 준비를 도와드렸고, 직접 농사법령집에 대한 공부를 하며 따로 준비를 했다. 또한 당시 농촌지도소 김미숙 계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면장(현 군수)께서 직접 찾아와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으면서 도움을 주었으며, 문화재 제안도 먼저 하셨다.

충남 도지정을 받기 위해 6개월을 준비했지만, 3년간 연속해서 탈락을 했다. 처음에는 심의에도 올라가지 못했으며, 나중에 심의에 올라가서 1차에 탈락된 적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1년 후에 통과되어 문화재 지정을 받았다. 당시 1차 현

장조사에서 미니박물관 설립의 권유를 받아서, 임시로 인근에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으나, 나중에 전시물을 전부 도둑맞았다.

“1996년에 명인을 받고, 2000년에 문화재 받고 했거든요. 구십육년에 명인 받을 당시 엄청 힘들었거든요. 김미숙 계장님이, 퇴직하셨거든요. 명인 한번 해보지요 하면서 받아볼라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명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93년부터 서류준비를 했지요. 그 동안에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었지요. 제가 준비했어요. 면사무소에 법령집이 있잖아요? 책 갖다 놓고 공부했지요. 현재 군수님이 당시 면장님이셨는데, 현장에 오셨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돈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고 문화재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받으려고 6개월을 준비했는데, 충남도에 신청했는데 3년간 심의도 못 올라간 거예요. 담당자한테 왜 탈락이 되었느냐? 물었어요. 심의도 못 올린 거예요. 현장조사를 오셨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면장님이 탈락이유가 무엇이나 묻자, 심사위원이 미니박물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6개월간 준비해서 안 사는 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 물건을 다 전시했는데, 사람이 안 살다보니까, 도선생이 싹다 가져갔어요.”

명인 이후에 상품화를 시도했으나, 가족회의에서 남편이 사업 성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또한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망설이게 되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청양 지역 생활개선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상품화의 권유

를 계속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께서도 구기주를 상품화하고 싶어 하셨다. 자식 부부가 처음에 상품화에 반대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도에서 1억 5천만원의 보조를 받았지만, 100평의 공장에 기계를 구비하고, 운영자금까지 포함하면 3억원이 필요했다. 당시 IMF 시기라 여러 가지 전망이 좋지 않아 보조금을 반납하고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다. 이로 인해 약주 제조 면허는 3년간 연기되어, 1998년에야 비로소 면허를 받게 되었다.

한편 충남 도문화재를 신청해서 2000년 10월 추석에 시어머니께서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최정아는 본격적인 상품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술공장을 순례하기 시작했다. 충남 지역을 모두 다녔고, 충북과 전라도 지역까지 두루 다녔지만, 잘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명인과 문화재 지정까지 받고 왜 찾아왔느냐며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구십팔년에 면허를 내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농협에 다니잖아요. 계산을 잘 하잖아요. 계산기를 두드



사진 5. 임영순의 식품명인 표지판

리더니 이건 승산이 없다. 오십대 오십이다. 도에서 일억 오천의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반납했어요. 당시에 무상이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100평의 공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IMF가 터지면서, 3억이 들어가는데 1억 5천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하고 운영자금이 라 뭐다 해서 3억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농협에다 넣고 이자를 따 먹는 게 낫다 하고서 포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명인을 받았는데 안 할 수가 있느냐, 사업성을 생각 안 하시고, 공장만 지으면 되는 줄 아셨던 거예요. 3년간 미루고 사업을 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니까 하자. 셋이서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2000년도 추석 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술공장이라 데는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잖아요? 충남은 다 돌아다니고, 충북도 가고, 또 전라도 그런데도 예전에 크게 했다는 데는 다 다녔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기 노하우로 하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런 데로 오나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편 사업 시작 이후에 세무서에 처음 신고를 하는데, 서류미비로 결제가 두 달간 보류된 적도 있다. 신고서에 끝이곧대로 신고를 하니, 세무서 직원이 인지도도 없는데 이렇게 남는 것도 없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충고를 해 주었다. 그래서 인건비도 넣고, 재료값도 이윤을 넣어서 서류를 다시 꾸미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통과되었는데, 모든 것이 서툴러서 일어난 일이었다.

5)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집안 식구의 도움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벌여라”라는 신념으로 술을 담아오셨다. 그래서 재료는 가장 좋은 것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좋은 구기자 확보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구기자는 자체로 3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농가 및 구기자 조합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예전에는 1000평에 구기자를 심었으나, 너무 힘들어 300평으로 줄였다.

구기자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후대에 혜택을 볼 정도로 길게 보고 재배해야 한다. 굵은 구기자를 만들기 위해 봄철에 젖순을 제거하는데, 이것은 가지치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외대에 순은 3개만 남기고 제거하는데, 이것은 더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기자조합에서 수매한 것을 일부 구입해서 사용한다.

“저희 시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벌여라.” 젊어서는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이 먹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재료도 좋은 것 쓰고, 재료를 나쁜 것 쓰면 사기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재료 나쁜 것 쓰면 돈을 벌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재료는 좋은 것 쓰라고 말씀하세요.

재료는 구기자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300평 구기자 농사를



사진 6. 구기주 제조 공장의 발효실



사진 7. 구기주 제조 공장의 여과기



사진 8. 구기주 제조 공장의 살균기



사진 9. 구기주를 담은 스텐 술독

직접 짓는데, 직접 짓는 걸로 충당해요. 예전에는 천평 넘게 지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300평만 농사를 지어요. 구기자 농사를 봄부터 관리를 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옆에 젖준이 안 나오고, 일종의 가지치기예요. 계속해 주어야 해요.지금 외대로 키우거든요. 예전에는 나오는대로 키웠는데, 외대로 키우니까 이정도 높이로 해요. 구기자는 손주 때에 결실을 보거든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관리를 하거든요. 이 대는 놔두고, 순이 나오면 3개만 남겨놔요. 거기에 순이 또 나오면 가지치기를 또 해줘요. 또 길러 나오면 거기에 구기자가 열지요. 구기자는 당대에 심어서 당대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농사에서 일부 구입하기도 하고, 조합에서도 구입하기도 해요.”

남편이 살균약주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술을 끓여 살균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나중에는 병을 살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남편의 도움으로 살균포장을 했으며,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운곡면에 사는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살균을 들어서 했어요. 우리 술이 살균약주잖아요. 열다섯병 병에다 넣어서 끓이는 방식으로 했어요. 혼자 살균을 했어요. 무거운 걸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기는 병살균을 했는데, 나중에 술살균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처음 살균부터 마지막까지 다 도와주었어요.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시누남편하고 시누가 같은 면에 같이 살거든요. 와서 많이 도와주어요.”

구기주는 환경이 맞지 않으면 술이 잘 되지 않으며, 특히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저온 발효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4월 사이에 술맛이 가장 좋고 색깔도 좋다. 대체로 21-24도 사이가 가장 발효가 잘 된다. 따라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술맛이 더 좋다. 지하실에서 발효를 하지만, 이곳은 습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와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장소에 따라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과향이 나는 것이 잘된 구기주이다. 다른 술 제조공장을 가면 벽에 피는 백곰팡이를 효소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한편 쌀로 술을 하면 쌀찌꺼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여과기에 거르지 않으면 술 위에 부유물이 뜨게 된다. 따라서 3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스텐 술독을 사용하지만, 초기에는 항아리 술독을 사용한 적이 있다. 웅기가 숨을 쉬는 좋은 그릇이지만 세척이나 소독에 불편한 점이 많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술독을 얹어 놓고 쪼을 태워서 웅기 안을 소독했다. 그리고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웅기 술독은 깊고, 잘 깨지기 때문에 세척이 매우 어렵다. 특히 최정아는 초기에 술독을 여러 개 깨뜨린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텐 술독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양조장에서도 항아리가 아닌 스텐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여름처럼 무더운 시기에는 술이 잘 되지 않으며, 술

이 쉽게 쉬게 된다. 따라서 너무 더울 때에는 술을 담그지 않으며, 에어컨이 있지만 발효를 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윗대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술을 담갔지만, 지금은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량화를 시켰다. 그래도 과거에 시어머니가 담근 술맛이 가장 좋다고 여긴다.

술은 주로 우체국 쇼핑을 통해 판매하며, 서울, 부산의 일부 백화점에도 납품을 한다. 구기주는 16도의 약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은 1년이다. 한편 이곳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외부인들을 위해 체험학습으로 누룩을 만지게 하고 남새와 맛을 기억하게 한다.

현재 토속주는 대체로 큰공장이 매출이 올라가고, 작은 공장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둔송구기주는 늦게 출발했고, 또한 지명도가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청양의 유일한 구기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 인건비, 병, 박스값, 구기자값이 다 올랐지만, 술 가격은 올리지 않고 있다.

시어머니와 함께 힘



사진 10. 상품화된 둔송구기주

을 모아 좋은 술을 만들고, 또한 상쇠로서 팽과리를 두드리며, 집안 일까지 하는 바쁜 생활이지만, 그녀는 긍정적인 사고로 현재에 만족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민속학에서 본 대를 이어 구기주를 빚은 임영순과 최정아의 삶]

이 글은 2대에 걸쳐 청양의 하동 정씨 집안에서 구기주를 담아온 임영순, 최정아 고부의 이야기이다.

임영순(82세, 10대 종부)은 홍성 홍동면에서 하동 정씨 집안에 시집을 와서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술을 담기 시작했다. 종가집 이면서 시댁 식구들이 술을 매우 좋아해서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항상 술을 담갔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밀주 단속에 여러 번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어 술 담기와 술 마시기로 위안을 삼아온 분으로, 임영순은 이런 집안에 종부가 되어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

종가집에서는 연중 십여 회의 제사와, 각종 명절 및 집안 행사에 항상 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술을 담가야 하는 집안에서 다행히 시어머니로부터 구기주 담는 법을 제대로 전수 받았다. 그래서 집안 어른과 이웃의 입소문을 타고 구기주 맛이 알려지면서 비공식적으로 술을 담아 싼 값에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고발을 당하자, 허가를 받아 며느리와 함께 본격적인 술담그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주변과 군 직원의 권유에 힘입어 1996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명인 11호가 되었

고, 2000년에 충남 도문화재 제 30호 둔송구기주 보유자가 되면서, 이제는 술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임영순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자가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본인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이제는 평생 술을 담그고 있다. 술의 애환을 다 겪으며, 술과 인연을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최정아(57세, 11대 종부)는 청양 정산면 출생으로, 경기도 성남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부모의 권유로 고향에서 선을 보게 된다. 전혀 결혼할 생각도 없이 하동 정씨 집단의 집단 선보기에 나와서, 순박한 남편에 끌려 농촌으로 시집을 오게 된다. 농촌이 싫어 도시로 나간 처녀가 뜻하지 않게 농촌으로 시집을 오고, 그것도 가난한 종가집의 종부가 된 것이다. 결혼 초기에 적응을 못해 우울증에 힘들게 지내다가, 시어머니의 권유로 술 담기와 농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며, 점차 시집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작한 고부간의 구기주 이어가기는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시어머니를 구기주 명인으로 만들고, 충청남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고부간의 두 사람은 하동 정씨 집안의 전통 구기주를 최고의 토속주로 인정받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있다. 술 팔아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청양의
토속 구기주를 지키고 있다.

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청양읍내 중심가의 로타리에 1957년 무렵에 개업을 하여 6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오는 “월광사진관”이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양에는 사진관이 네 곳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중에 월광사진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월광사진관은 청양군 읍내 백천리에서 태어난 정성모는 1959년에 개업을 한 사진관이다. 그는 1931년 청양읍에서 태어나 화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사진과 인연을 맺어 업으로 할 만큼 사진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고 청양의 사람들과 풍경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1965년



사진 1. 월광사진관 창업자 정성모

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생존하였다면 많은 청양의 영상기록이 남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가 사진을 배우게 된 계기는 군에 입대하여 사진병으로 복무하여 인연을 맺었다. 그의 둘째 형님도 대전에서 사진관을 개업한 바가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그는 청양읍내에 개업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부여출신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 사진관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성업을 이루었다.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기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관을 찾거나 집으로 출장사진을 요청하여 사진을 찍었다. 기념사진은 돌, 약혼, 혼례 등이 대부분 이었고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사진으로 추억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사진사의 보람은 농가의 안방 벽에 걸려있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나 환갑잔치의 사진이나 아들의 사각모를 대학 졸업사진 등으로 부모의 보람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일이었다. 사진관의 매년 가장 큰 행사이자 사업은 졸업앨범의 제작이었다. 월광사진관은 당시 청야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앨범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한 해 동안 학교의 중요한 연중행사에는 늘 사진사가 참여하여 기록으로 남겼고 이를 앨범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수학여행이나 운동회, 소풍의 장기자랑 그리고 학우와의 단체사진 등은 나이가 들어도 웃음을 짓게 하는 명장면이었다.

1960~70년대에 카메라는 고가의 장비였는데 대부분 독일제나 일제의 카메라였는데 출장용 카메라와 사진관내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로 두 종류였다. 실내에서 촬영에는 조명으로 마그네슘을 터트리는 플래시를 사용하였다. 천안의 도매상은 정기적

으로 사진관을 방문하여 조명용품이나 필름 그리고 암실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었다.

정석모는 한 참 성업 중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한가할 때에는 청양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그가 사망한 후에 사진관의 경영은 부인이 전담하게 되었다. 당시의 카메라장비는 크고 무거웠으며 플래시를 터트려야하기에 두세 명의 기사가 출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했다. 또한 사진기사는 암실에서 작업하며 원판에 보정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기에 사진관에는 항상 보조기사가 2~3명이 필요하였고 친척이 와서 도와주곤 했다. 부인은 사진일에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였고 주로 친인척을 고용하여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때로는 그의 아들인 정철호는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지만 방학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으며 일손이 부족하여 바쁠 때에는 사진기사의 역할을 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사체 사진을 급히 찍어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출장을 나간 적도 있다. 아들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사진에 관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 있었다.

정철호는 천안의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그의 누나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고향에는 어머니 홀로 계셨다. 그는 대학을 졸업 후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을 사진관을 계속 운영하

였다. 다행이도 사진관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진 일을 해오시던 외사촌 형이 계시며 함께 일을 하였다.

1980년대부터 카메라는 대중화되었고 즉석인화기가 등장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이미 디지털사진이 보급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시대가 되면서 사진관의 경영은 어려워졌다. 따라서 2004년부터 그는 사진관만 아니라 홍보물제작과 기념품제작에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올해로 84세를 맞이하였다. 어머니는 20여 년 전에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피해를 입어 사진관의 존폐위기까지 갔었으나 그동안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제 그의 아들은 사진관을 운영하며 부친의 업을 계승하고 있다.



사진 2. 월광사진관 전경

[영상자료의 민속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청양문화원은 그동안 청양의 민속을 민간신앙·관혼상제·설화·시장과 교역·교통 등 다양한 주제로 군민을 대상으로 전승되는 생활상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민속의 여러 분야를 체계적으로 편집한다면 민속지가 될 것이다. 민속지(民俗誌)는 문자로 기록하며 각 분야의 유기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전승자가 기억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민속을 문자로 기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각이나 시각적인 경험은 문자로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다. 194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등 각 년대에 따라 청양풍경은 큰 차이가 있다. 칠갑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설운동장이 건립되고 군청의 모습도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농경지정리사업은 굽은 논두렁과 밭두렁은 곧게 나아가 논과 밭이 사면체로 각을 지고 있다. 이러한 풍경의 변화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도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게 한다. 고향을 찾은 도시민은 어릴 적 뛰어놀던 학교나 논길은 사라지고 현대적 관공서의 건물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세대에 따라 그들이 성장한 마을이나 읍의 풍경은

민속지에서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진이나 각종 영상자료는 도시나 농촌의 변해온 풍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세대별 그들이 보아온 시각사를 이해하는 역사적 자료라 할 수 있다. 근대화이후 노후가 된 건조물이 사라지고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은 향수를 느끼기 위해 고향을 찾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한다. 근년에 ‘마을 가꾸기 운동’은 근대기에 건립한 건물의 외관을 보호하고 내부를 개조하여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취지는 공동체의 공간 확보보다는 고향을 찾은 이들에게 향수를 되찾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자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뿐 만 아니라 그곳을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자연이나 인위적 풍경을 갖고 있다. 풍경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영상자료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변해가는 풍경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영상자료는 우리에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더불어 자연을 느끼며 본래 자신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대를 이어 가업인 한약방을 운영하며 약재와 함께 살아온 삶

1. 고조부의 뛰어난 학식과 증조부의 곧은 선비 기질과 한일 합방 이후의 단식

이종금(남, 1952년생)은 청양에서 조부 시절부터 3대에 걸쳐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에 약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조부 이병태(1839~1908년)는 한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항



사진 1. 이종금의 최근 모습

상 책을 가까이 하셨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로는, 우암 송시열¹⁾은 밤낮없이 30일을 책을 보았고, 동춘당²⁾께서는 밤낮없이 25일을 책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1) 우암 송시열(1607~1689)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유학자로, 노론의 거두이며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위하였으며, 효정의 불벌을 도왔다. 율곡 이이의 학통을 이어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은 대학자이다.

2) 동춘당 송준길(1606~1672년)은 조선 효종 때에 대사헌과 병조판서를 지냈다. 동춘은 자기의 호이며, 낙향해서 기거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별당의 이름이다. 우암 송시열이 쓴 현판이 걸려 있다.

고조부께서 밤낮없이 27일을 책을 보았으니, 우암보다는 못하고, 동춘당보다는 낫다고 전해진다.

이종금이 예전에 고조부 묘소를 이장했는데, 삼(때)이 매우 커서 보통 체격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고조부께서는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묘에 성묘를 하고, 시험을 보았지만, 아쉽게 낙방을 했다.

증조부 이형래(1855-1942)는 선비이고, 약재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며, 한때 서당 선생님도 했다. 환자들을 위해 많은 처방을 내어 사람들을 치료했다. 단발령이 내렸을 때에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버렸으며, 주위에 화제(和劑, 처방전)를 지어주며 사람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한일합방이 있자 울분을 참지 못해 20일간 단식을 했다. 두 문불출하며 일체의 곡기를 끊고 지내자, 며느리가 1주일이 되자 슬며시 미음을 끓여 냈다. 그러자 야단을 치며 물리치셨다고 한다. 그리고 20일이 되자, 마지못해 미음을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비가 나라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라면서, 약장³⁾을 지고 장에 나가서, 이때부터 약재를 하기 시작하셨다.

“저희 집은 그저 증조께서 약방을 하신 게 아니라, 대개 선비들

3) 약장(藥幖)은 약재를 분류하여 따로따로 넣어두는 여러 개의 서랍이 달린 목재 장으로, 약장기(藥幖器)라고도 한다.

집안에서는 대대로 나름대로 처방을 하고, 나름대로 집에서 약도 쓰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약방을 하게 되었어요.

서당하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웃더라고. (너의 증조부께서) 한 일합방 되어 한달 공안 곡기를 끊으시며, 지금 설조스님 단식하듯이, 할머니께서 일주일 되시는 날 미음을 살짝 주었더니, 증조부께서 야단을 치며 물리치셨대요. 20일 되어 미음을 올리니 못이기는 척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비가 나라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라고 약장을 지고 장에 나가셨대요. 그래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 단발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존심이 강하시니까,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면, 화제를 내주시면, 그 화제를 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드셨어요. 화제라는 것은 요즘의 처방전이지요. 왜놈들이 상투를 자르러 대드니까, 장꾼들이 막아서 못 자르게 했대요.”

증조부의 장인은 파평 윤씨인데, 한의학에 밝고, 화제(처방전)를 잘 지으셨다. 천석지기에 청양 향교에서 전교를 한 분이다. 일본인 경찰서장이 이점⁴⁾에 걸려 한의와 양의들의 치료에도 낫지를 앓았다. 그러자 3번이나 사람을 보내 처방전을 지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했다. 그러자 직접 찾아와 토방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 그래서 약 3첩을 지어 주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후로 여러 번 선물을 갖고 찾아와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했다. 나중에 마지못해 약제를 하는 사위에게 허가를 내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4) 이점은 물갈이병으로, 현재의 대장염이다.

약제는 허가제였는데, 장인이 사위에게 허가를 내 주게 한 것이다. 당시 조부가 14~15세 정도의 나이였다. 일본 사람들은 물갈이병이 많아 러일전쟁 시기에 나온 것이 정로환이다.

“여기에 일본인 경찰서장과 보건소장이 들어왔는데. 경찰서장이 이점이 걸렸어요. 이점은 대장염이지요. 옛날에 왜놈들이 고춧가루 안 먹어서 이점에 걸리면 죽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셨고, 정로환이라고 있어요. 러일전쟁 시절에 왜놈들이 아주 물갈이, 배탈 나서 죽는 게 많아서 그때 만들어낸 것이 정로환이라고 있지요.

그러서서 보건소장이 양의사를 데리고 왔고, 한의사 데려와서 안 나오니까, 그 진외할아버지에게 왜놈이 와서 화제를 좀 내 달라고 사람을 보냈대요. 세 번을 거절하니까, 직접 와서 토방, 마루 밑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세 첩을 들고 넣었대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원이 있으니까 들어줄 테니까, 거절을 하셨대요. 계속 오니까, 그 당시 허가제로 많이 바꾸었어요. 우리 사위가 약을 하는데, 허가를 좀 내 달라고, 그 때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열 넷인가 다섯이래요. 일찍 받으셨대요.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증조부께서 동학란 시기에 고조부를 모시고 이곳 청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증조부가 당시 유구에 살고 있었는데, 마당을 쓸다가 동학군에게 잡혀서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두고 청양으로 피신을 오게 되었다. 그래서 장승리에 사는 함평 이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청양읍내 인근 장승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여기 오게 된 게, 거기 동학란 나셨는데, 동학군들이, 우리 할아버지 유구에서 사셨는데, 마당을 깨끗이 쓸고 다니셨대요. 유구 쪽 이니까, 증조를 대들보에 묶어 놓고 구타를 하셨대요. 그것을 피하셔서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쪽으로 요신 거예요. 실제로 관여는 전혀 하시지 않았지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부자였다. 이한열씨에게 가서 먹고살게 해 달라고 해서 이십마지기를 얻어가 지고 함평 이씨 마을인 장승리에 정착하신 거예요.”

고조부나 증조부 모두 바둑을 무척 좋아하셨으며, 돈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증조부는 해방되기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2. 조부의 의생 합격과 서울 진출 후 낙향해서 4곳 한약방 운영

조부 이용현((1900~1961년)께서는 경자 4월 9일에 태어나서, 신축 3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61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때가 이종금이 국민학교 4학년 때이다.

조부는 17세에 의생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어 양의 시험에도 합격을 한 분이다. 그리고 20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서 제기동에 원재약방을 차렸다. 이후 소개령⁵⁾ 때에 청양으로 내려와 청양읍내를 비롯해 인근의 광천, 대천, 예산 4곳에 약방

5) 여기의 소개령은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제가 패색이 짙어지자,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서울 소개령을 내려서 주민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분산시킨 조치이다.



사진 2. 이종금의 조부

을 차렸다. 조부께서는 목탄차를 타고 4곳을 순회하며 진료를 하셨으며, 당시 돈을 많이 벌었다.

“조부는 열일곱인가 의생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물살 때인가 서울에 가서 약방을 차리셨어요. 주소는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원재약방이라고. 우리 어려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가끔 약도 사러다기고 했지요. 거기에 그

분들이 저희 집하고 같은 광주 이씨라고 해서, 할아버지와 친하셨다고.

제일 처음에 서울을 가서 약방이 잘 안 되었던가보죠.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께서 재주도 있고 하니까 귀염도 받으셨대요. 그 분들께서 처방을 하셨는데, 그 당시 유행병이 되가지고 왔는데, 처방을 해서 낫게 되면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서 잘 되었지요. 거기서 소개령이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여기로 내려오셨어요. 광천, 대천, 예산인가 홍성인가, 여기 청양에 네 군데에 약방을 내셨어요. 그때 순회를 하셨는데, 목탄차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전 용으로 빌려서 계속 타고 다니셨대요. 할아버지만 아니라 그 윗대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대에 와서 망했지요.”

조부는 소아병인 홍역, 마마 등에 뛰어난 치료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돈도 많이 버렸다. 한때 돈을 세지 않고 쓸어 담았다고 한다. 그런데 고모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증을 많이 서주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신 분이라 재산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집에는 예전부터 고서적이 많았으며, 궤에 가득 담아 보관했다. 대부분 한의약 관련 서적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소설가 이문구⁶⁾씨는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수양아들인데, 같은 광주 이씨로 서울 약방에 자주 드나드셨다.

“저기 이문구라고 있지요, 소설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나 아직 그분들이 살아계시냐고. 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문구 형 되시는 분이 좌익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수양아들이었대요. 그분들은 대서소를 했고,”

조부께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본인이 약방을 잘 지키지 못했으며, 대신 친구들이 와서 대신 약방을 지키기도 했다. 조부께서는 침을 놓고 종기를 따고, 화제를 잘 짓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약방을 하셨어요. 침놓고 종기 따

6) 이문구(1941-2003)는 '장한몽', '관촌수필', '우리동네' 등을 펴낸 소설가로, 고향은 충남 보령의 대천 갈머리(冠村)이다. 농촌 지역을 배경으로 지역어를 사용하며, 농민의 삶을 생생하게 소설로 그려냈다. 나중에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고, 화제 잘 내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약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진짜 훌륭한 분들은 교수 같은 거 하지 않고, 재야에 계시잖아요.”

3. 부친의 일제 징용과 생환, 그리고 한약방 운영하며, 음악과 바둑을 좋아함.

부친 이도재(李道載, 1921-2015년)는 국민학교 3학년을 편입해서 월반을 했으며, 서울에서 경기중학교 시험에 실패하고 한성중학교에 입학했다. 부친은 장질부사에 2번이나 걸려 고생을 한 적도 있다.

부친은 원래 음악과 바둑을 좋아했다. 학교 다닐 때에 축음기를 몰래 구입해서, 조부로부터 큰 질책을 받고 이로 인해 낙향을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전국바둑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께서 음악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가셨는데, 축음기를 사서 가지고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당장 그만두

사진 3. 이종금의 부친

라고 하셔서 그만두었어요. 운동회 때에 왜놈 순경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왜 군대 안 갔느냐? 자꾸 순경이 오니까, 가패라고 여기서는 대치면 상갑리라고 그리로 피했어요. 나중에 남양주로 징용을 갔지요. 그 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바둑을 두시는데, 바둑을 뒤희 승승장구 하시니까, 서울로 가셔서 그 당시 서울 전국대회에서 2등을 하셨어요. 재주가 있으셨지요.”

부친은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징병을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칠갑산 주위의 대치면 상갑리로 피신을 한 적도 있다. 결국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남양군도에 노무자로 징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산호초 섬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청양에서 80여명이 함께 징용을 갔으나, 부친을 포함해서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 돌아왔다. 다행히 일본 초급장교인 기미시마와 의무대에서 바둑을 둘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당시 부친은 바둑을 좋아하셨으며 상당한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 말기에 식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본군은 전쟁이 다급해지자 원주민을 창고에 가두고 집단 학살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인 노무자도 죽이려고 하자, 바둑을 두던 초급장교가 지휘관에게 직접 “저들도 일본을 위해 노무자로 온 사람들이라 굶기더라도 총살할 수는 없다”고 간청해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부친은 미군과 영국군의 연합군 포로로 붙잡혀서 해방 3년 후

에야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포로 시기에 포로와 연합군 군 인간의 합동 노래자랑에서 2등을 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뛰어났으며, 서예에도 실력이 있고, 그림도 잘 그려, 매우 재주가 많은 분이셨다.

해방 후에 생명의 은인인 기미시마를 찾으려고 수소문했으나, 1990년대에 겨우 연락이 되어 일본에 건너갔다. 그러나 이미 은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다만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부친은 그동안 애써 모은 LP판을 일본인 수양딸에게 전해 주었다.

“남양군도에 끌려가셨는데, 그때 스물 몇인가? 여기서 팔십여명이 갔는데, 살아오신 분이 사십 몇명에 겨우 반 정도 였어요. 가서 가지고 말없이 고생하셨지요. 가서 산호초가 있는 곳이라요. 무슨 섬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바둑을 잘 두시니까, 왜놈들이 바둑을 두셨는가요. 거기에 기미시마라는 초급장교와 바둑을 두며, 태평양 전쟁 말기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지요. 쥐 같은 것 잡으면 가마솥에다 넣고 끓이면 최고 요리고, 바닷가에서 조개 같은 게 독성이 있어서 죽는다는데. 하여튼 그런 거 먹고. 원주민들 창고에 다 넣어서 죽이고.

한국 사람들 노무자들 전부 몰아다 죽일려고 하는걸, 기미시마라는 분이 정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대장한테, 저 사람들도 대일본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굶겨 죽이더라도 죽일 수 없다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있을 수 없지요. 그당시 아버지는 징병가라고 하니까, 노무자로 징용을 가신 거예요. 나이가 안 됐는데, 그

기미사마라는 초급장교 덕분에 다 죽음을 면한 거지요. 아버지가 해방 뒤에 3년이나 되어 돌아오셨는데, 미군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영국군, 미군, 노르웨이, 일본군 한국, 노래자랑을 했는데, 당당하게 2등인가 했다구해요. 아버지가 음악학원 다니며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예요. 저는 직접 하는 걸 못 봤어요. 아버지는 진짜 글씨를 잘 쓰셨어요.

기미시마, 그 분을 찾으려고, 구십몇년도에 일본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돌아가신지 삼년이 되셨대요. 그 부인을 찾아 뵙고, 수양 딸 한 분이 있어요. 일본판 같은 걸 그쪽에 주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걸 주었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바둑을 즐겼다. 고조부와 증조부께서 바둑을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부친도 대를 이어 바둑을 좋아해서, 뛰어난 실력 덕분에 남양군도 징용에서 살아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부친은 남양군도 생존자의 편지를 받았다가 나중에 좌익으로 오인을 받아 고문을 받은 적도 있다. 한편 집안의 큰 아버지께서 건준⁷⁾과 보도연맹⁸⁾에 관여하셨다가 돌아가신 일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 형제분들은 시련을 많이 겪으셨다.

1960년대 말까지 부친의 한약방에는 청양의 약초상들이 약재를 가지고 많이 드나들었다. 구입한 건재 약초들은 서울의 약재

7) 건준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약자로, 1945년 해방과 함께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최초의 건국준비단체이다. 당시 좌익진보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이다.

8) 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로,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다. 사상적으로 좌익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강제로 등록시켰는데, 6.25 전쟁 중에 여기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다.

시장으로 유명한 제기동 경동시장의 약재상에게 보냈으며, 그 외에 대전으로도 일부 보냈다.

이종금은 어린 시절에 약방에 찾아온 약초꾼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 새벽 3~4시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청양의 약초꾼들이 찾아와서 방바닥에 손을 넣고 추위를 녹이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당시 약재상들은 시이오, 길경, 속단, 창출, 우슬 등의 많은 약재를 가지고 왔다. 당시 칠갑산 주위에 사는 약재상들뿐 아니라 청양의 약초꾼들이 다 모였는데, 대치, 운곡, 남양, 화성면 등지에서 모여들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와서 건재가 전문화되면서 약방에서 약초를 직접 취급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약을 구해다가 우리집 문앞에서 우리 집에 넘기면, 다시 외지로 넘기고, 칠십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육십년대 말까지 그랬어요. 칠십년대부터 약방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건재까지 우리 약방에서 했지요. 외지는 그때도 서울이에요. 대전이 일부 있고, 서울은 제기동 쪽이지요. 제기동 큰 데는 다 우리가 거래했어요.

우리 집에, 나 어릴 적에만 해도, 새벽 세시나 네시 경이 되면 그분들이 다 우리집에 와요. 겨울철에, 자는데, 밑에 손을 넣고 “아! 뜨듯 하네.” 그래요, 5일마다 스는 장에 열대여섯명씩 오시지요. 산삼 같은 것은 없구요. 시이오, 길경, 무슨 뭐 속단, 창출, 우슬, 뭐 가지각색, 엄청나게 약재를 많이 가지고 와요, 다들 청양분들이지

요. 주로 칠갑산, 하여튼 대치, 운곡, 뮌 여기, 남영, 화성 청양의 전 면에서 다 왔어요. 칠십년대부터 건재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한테 넘어갔지요. 아버지께서 약만 지으셨지요. 약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약방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워낙 오래 했으니깐요.”

4. 동양의학의 홀대 속에 4대째 이은 가업과 본인의 자부심

이종금(1952년생)은 청양농고를 졸업하고 부친 밑에서 약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3년에 한약업사 자격증을 땀다. 돈을 조금 벌어서 처음으로 땅을 샀는데, 부친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부친은 “집안에서 땅을 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땅을 산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농자유전’이라 말을 하시면서 농사꾼이 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농사꾼이 아닌 한약방을 하는 아들이 땅을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예부터 칠갑산은 약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기자, 창출, 하수오, 복령 등이 많이 났다. 구기자는 청양의 특산물로 보정, 강장 효과에 좋으며 약재로 쓰는 범위가 매우 넓다. 이것은 보정으로 정액을 보충해 주고, 진액에도 도움

을 준다. 한편 하수오도 많이 나는데, 한때 사람들이 하수오를 많이 찾자, 일부 약재상이 달분을 하수오로 둔갑해서 팔기도 했다. 복령은 소나무 밑에서 나는데, 청양에서 많이 생산되어 어렸을 적에 많이 봤다.

약방의 위치는 일제 강점기에는 청양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6.25 때에 폭격을 맞아 집이 모두 불에 탔다. 그래서 현재 약방 자리 앞으로 옮겼다가, 1968년에 부친께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이곳에서 한약방을 한 지는 대략 50년 정도 된다.

현재 모든 한약재는 포장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이 아니면 불법이다. 청양 특산물인 구기자도 한약방에서는 포장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약재는 반드시 건재상을 거쳐야 쓸 수 있다. 이종금은 독성검사를 제대로 하고,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한약은 사람에 맞춰 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재의 품질이 중요하다. 특히 약재도 야생과 재배에 따라 차이가 큰데, 특히 시이오, 도라지의 경우에 재배한 것이 야생에 비해 약효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마치 산삼과 장뇌삼의 차이와 같다. 따라서 누가 약재를 가져다 줘도 현재는 쓸 수가 없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한의학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은요, 세금 문제도 있고, 독성검사도 있지만, 포장 안 된 것은 전부 불법이래요. 전부다 위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구기자 말고는 다 여기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구기자야 말로 좋은 걸 써야 하지만, 탄 걸 쓸 수가 없어요. 유통과 독성검사는 이해는 가지만, 법이 그래요. 누가 약재를 갖다 줘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일단 건재상을 거쳐와야 해요. 한의학의 특성 이런 것이 다 말살된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법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성복과 맞춤복이 있는데, 우리 한의학은 맞춤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불법화 되다보니, 편하긴 한데, 이게 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원 한의학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약재가 이런 것이 길러지면서 약효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어요. 시이오를 써 보는데, 재배한 시이오와 야생의 시이오가 효험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저기 도라지 같은 것도 써보면 다르고요. 또 삼도 그냥 있는 삼하고 장래삼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게 약력에 차이가 있어요.”

동양의학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증’과 ‘변증’이라고 한다. 근래에는 양의학에서도 한의학을 바탕으로 여러 약재를 실험해서 핵심적인 신약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양의학은 자연친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전 자유당 정권 때에 동양의학의 발전을 막으면서 여러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지

만, 둘째 아들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편입을 준비하면서 가업을 이을려고 준비 중이다.

그는 다양한 난치병과 희귀병 치료에 대해 보고 들은 게 많다. 따라서 본인은 이 분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사진 4. 이종금과 집안 서적

어린 시절부터 큰 병에 대한 법제⁹⁾와 약재 치료를 많이 보아왔다. 특히 난치병으로 치료하기 힘든 간경화, 무도병,¹⁰⁾ 루게릭병, 미친병(광견병) 등의

치료하는 과정을 많이 봐 왔으며, 치료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긍지를 지니고 살고 있다. 1980년대에 중풍에 걸린 사람을 6~7명을 밤새 치료해서 낮게 해 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단골이 되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이제는 한약방에서는 침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9) 법제(法製)는 한방에서 자연 채취한 원래의 생약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독성과 자극을 없애고 치료 효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10) 무도병은 희귀병으로, 춤바람을 일으키는 병을 말한다.

“제가 그 한의학 전반을 다 공부했지요, 나 어릴 적에 치료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나만큼 한의학 전반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과 얘기해 보면, 비록 학문적으로는 깡통이지만, 그 법제라든가, 약재, 또 큰병,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병 치료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이 변하니까 자주 잃어가고, 이런 얘기 하면 믿으실지 모르지만 팔십년 대까지 중풍을 하루에 여섯, 일곱명씩 밤 세서 받고 그랬지요. 잠 안 자고 치료하던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약재하고 침을 다 했는데, 지금은 침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지요. 중풍환자, 간경화, 무도병이니, 저절로 춤추는 그런 병, 진짜 치료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루게릭병도 치료하는 것 다 봤어요. 저는 웬만큼 치료하는 것을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고 미친병, 광증, 정신병, 이런 거 몇 십년 된 거 저는 치료하는 것 봤어요.”

[대를 이어 가업인 한약방을 운영하며 약재와 함께 살아온 삶]

이종금은 광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 청양에서 증조 때부터 3대에 걸쳐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고조부 이병태(1839~1908년)는 27일 밤낮을 책을 볼 정도로 학식과 인품이 높으신 분이였다.

증조부 이형래(1855~1942)는 일제의 단발령을 거부하고, 한일합방 직후에 20일간 단식을 하며 나라 잃은 선비임을 부끄러워 했다. 그리고 단식을 끝내고 약장을 지고 장에 나가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약재를 지어 주었다. 그는 당시 인근의 유구에 살다가 동학교도들에게 심한 피해를 입고, 부친과 함께 청양으로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았다. 고조부와 증조부는 바둑을 특히 좋아했으며, 나중에 부친도 바둑으로 인해 남양군도에 징용을 가서 생환하셨다.

조부 이용현(1900~1960년)은 17세의 어린 시기에 의생에 합격하고, 양의 시험에도 합격한 분이다. 20대에 서울에서 약방을 하다가 나중에 귀향해서 광천, 대천, 예산, 청양의 4곳에 한꺼번에 약방을 열었다. 당시 유행병에 뛰어난 치료 능력을 가져 많은 돈을 버셨으나 돈에 구애받지 않으셨고, 남의 보증을 많이 서주

어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한다.

부친 이도재(1921~2015년)는 서울의 한성중학 출신으로, 일제 말 징병을 피해 숨어있다가, 결국 남양군도에 징용으로 끌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이다. 일본인 초급장교인 기미시마와 바둑을 두며 쌓은 친분 덕분에 총살을 모면하고, 나중에 연합군 포로로 잡혀 전쟁 후 3년 만에 생환했다. 부친은 음악을 좋아해 학생 시절에 축음기를 구입하고 LP판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포로 시절에는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전쟁 중에 남양군도 생존자의 편지를 받았다가 좌익으로 오인받아 고문을 받는 고초도 겪었다. 1990년대에 생명의 은인인 기미시마의 주소지를 가까스로 알아내고 일본에 건너갔으나, 이미 당사자는 세상을 떠났고, 대신 부인을 만나고 왔다.

이종금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영향을 받아 여러 한약재를 다루었고, 유행병이나 희귀병 치료법을 많이 보며 자랐다. 집안에 재야 한의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으며, 집에는 예전부터 한의학 관련 고서가 많았다. 그리고 1960년대 말까지 여러 약초꾼들이 모여들었다.

이종금 본인은 뛰어난 조상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겸손해 하지만, 나름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치료법에 능

숙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다. 실제 예전에 많은 중풍환자를 치료했지만, 지금은 침을 놓을 수가 없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현재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직업에 대한 긍지를 느끼며 가업을 잇고 있다.

청양 토박이들의 생애사

(비매품)

집 필 임 장 혁 / 중앙대학교 교수
정 형 호 / 중앙대학교 교수
조 순 자 / 중앙대학교 교수
인 쇄 2018년 12월 10일
발 행 2018년 12월 10일
발 행 인 이 진 우
발 행 처 청양문화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전 화 041-943-4774
팩 스 041-944-1030
홈페이지 www.cnkccf.or.kr/cheongyang.do
편집·인쇄 태웅그래픽 (02-2265-9948)

● 이 책은 충청남도과 청양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무단복제나 복사를 금합니다.